

함께 걷는 사람

2020 여름,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가족과 애정, 이웃과 인정이 깊어지게 거든 사회복지 현장실습

실습생 | 김선재 조새봄 안예영 이예지 양정아 신희선 김민주
실습지도자 | 권대익

푸른복지

차례

머리말 | 권대의 1
응원글 | 김상진 9

준비

단기사회사업

+ 단기사회사업 소개 | 권대의 12
+ 2020 여름 사회사업 실무학교 소개 | 권대의 15

당사자 면접

+ 실무자 면접 | 권대의 19
+ 당사자 면접 준비 | 권대의 24
+ 당사자 면접 | 권대의 35

공동사업 |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

+ 진행 44
+ 진행 49
+ 평가 70
+ 부록 | 4개 단지 아파트 실습생 기록 모음 76

개별사업

어린이 여름 여행 | 조세봄 권대의 78
중학생 여름 여행 | 이예지 권대의 94
고등학생 여름 여행 | 양정아 권대의 114

- 어린이 자전거 여행 | 김민주 권대익 130
- 배드민턴 마을 선생님 | 김민주 권대익 150
- 우리 마을에 나쁜 개는 없다 | 신희선 권대익 169
- 무력무력 가족 여행 | 김선재 권대익 191
- 윤동우 님 가족 여행 | 안예영 권대익 204

마무리

수료사

- + 사람살이 배웠습니다 | 김선재 수료사 218
- + 함께 걷는 길 | 조세봄 수료사 221
- + 느리게 걷는 사람 | 안예영 수료사 225
- + 어떤 사회사업가 될래? | 이예지 수료사 228
- + 함께 걸을 동료가 생겼습니다 | 양정아 수료사 232
- + 영당이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 신희선 수료사 235
- + 나에게 삶의 방향과 교훈을 준 아이들 | 김민주 수료사 241
- + 사랑하는 일곱 후배에게 전하는 마음 | 수료증, 실습 지도자 권대익 249

인터뷰

- + 스스로 하니 뿌듯하고 재미있어요 | 한서연 어린이 인터뷰 264
- + 박주성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 방서현 어린이 인터뷰 269
- + 수료식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 무력무력 가족 여행 김시울 김아린 어린이 인터뷰 272
- + 스스로 하니 더 재미있고 자유로워요 | 중학생 여행 황윤선 인터뷰 275
- + 마음의 폭이 넓어졌어요 | 가족 여행 윤동우 님 윤소현 인터뷰 278
- + 대학생 선생님께 어린이 여행 양은찬 양은서 어머니 인터뷰 282
- + 그날 서윤이가 정말 행복한 얼굴로 잠들었어요 | 중학생 여행 전서운 어머니 인터뷰 285

- + 담당자 평가 291
- + 동영상 모음 298

- + 맺음말 | 권대익 299

머리말 | 권대의

코로나19와 실습지도

방학 때마다 실습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실습도 풍성하고 재미있게 이루었습니다. 겨울 실습이 끝나자마자 여름 실습을 계획했습니다.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상상하고 준비했습니다.

때마침 코로나19가 퍼졌습니다. 신종플루나 메르스처럼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상황은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다른 복지관 사업도 대부분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는 복지관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지관도 더 이상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마을 이웃을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만나는 실습지도도 우려가 컸습니다. 복지관 많은 사업도 주민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7~8월 여름방학 때 코로나 추이가 불투명하니 실습생 모집하는 일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코로나19로 실습지도를 하지 않는 복지관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2019년 말,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강화하면서 더더욱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기관이 적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120시간 기준 가운데 기관에서 80시간만 직접실습을 하고 학교에서 40시간 간접실습을 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마다 간접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은 모두

달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습기관·학교·협회 모두 충분한 준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방화11의 실습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방화11은 실습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갈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나름의 기준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단기사회사업 실무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머리를 맞대며 어떤 사업으로 과업을 이룰지 궁리했습니다. 한두 명이나 소규모의 친밀한 관계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이루는 개별사회사업 중심으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단계가 격상되면 물리적 공간에서는 개인별로 활동하고 가상 공간에서 집단으로 함께 기획 준비하는 방식의 집단사회사업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 힘이 났습니다. 지속해서 서로 정보와 생각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먼저 코로나19 전에 계획한 2박 3일 여행은 모두 당일 여행으로 바꾸었습니다. 함께 숙박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거리를 두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00명 이상이 마을 공터에 모여 함께 물놀이 마을잔치를 계획했는데 취소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6주 동안 270시간 이상을 계획하되, 코로나 상황이 격상되면 비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실습 이수 기준인 120시간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실습 모집 공고에 자세히 안내하고 지원자에게도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소규모 야외활동을 중심으로 기획

이번 여름은 7명의 실습생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되었고, 선발 과정 끝에 7명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실습은 기관에서 80시간만 해도 되지만 270시간이 넘는 과정에 지원한 겁니다. 대부분 방화11 실습 과정을 이미 알고 사회사업을 잘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지원했으니 뜻있게 잘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실습생 전원이 공통과업으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별과업으로 윤동우 님 가족 여행, 무력무력 가족 여행, 초등학교 여름 여행, 중학생 여름 여행, 고등학교 여름 여행, 자전거 여행, 배드민턴 마을 선생님, 반려동물 사회사업까지 8개 과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0인 이하 소규모 모임으로 야외활동을 중심의 활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사업을 이루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애정, 이웃과 인정이 깊어지는 실습

8가지 개별과업과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은 가족과 애정, 이웃과 인정이 깊어지는 활동입니다.

윤동우 님 가족 여행과 무력무력 가족 여행은 가족과 함께 여행하며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준비했고 여행을 누렸습니다. 수료식에서 서로에게 편지 쓰고 안아주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개별과업도 가족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했던 내용과 강점을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 집에서 대화하고 칭찬하도록 했습니다.

수료식에 부모님을 초대해서 아이들이 활동내용을 발표하면 응원하고 칭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웃과 인정도 깊어졌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아이들이 둘레 사람과 이웃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생활복지운동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기획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수많은 붙임쪽지를 보며 경비원 아저씨를 생각하는 주민이 많음을 알았습니다. 기획단이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웃 인정이 깊어졌습니다.

공동체를 생동하는 일이 자연 생태를 생각하는 적극적 실천

사람 사이 관계를 생동하게 하는 복지관 본연의 일에 충실합니다. 사람 사이 관계가 살아나면 이것이 자연 생태에도 이롭습니다. 더욱 복지관답게, 사회사업가답게 일하면 자연스레 환경에도 이롭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복지사로 더욱 힘써야 할 일' 소책자¹⁾

실습이 끝나고 복지관 동료들과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먼저 구슬땀은실 김세진 선생님께서 쓰신 '코로나 이후 사회복지사로서 더욱 힘써야 할 일'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은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생활방식에 있습니다. 관계를 생동하게 하는 일이 복지관 사회사업가답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이 공동체성이 살아나고 생동하면 자연스레 둘레 자연환경에도 덜 해를 준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고 비접촉 비대면 사업이 강조되지만 복지관에서 주로 만나는 약자는 온라인 영상과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 관계의 고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1) PDF 파일 내려받기. cafe.daum.net/coolwelfare/RmPf/253

으로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도 직접 만나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궁리하고, 대규모 동원 행사를 내려놓고 소규모 일상 만남에 힘쓰자고 했습니다.

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선생님의 ‘코로나 충격과 사회사업’ 영상²⁾도 복지관 동료들과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중심 관계망 사업을, 일상으로 일상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회 생태와 자연 생태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약자가 소외되는 사안에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하는 방식, 디지털 매체와 아날로그 매체를 함께 하는 방식도 제안하며 여러 예시도 보여주셨습니다.

소규모 일상 관계를 돕는 일은 양원석 선생님과 김세진 선생님께서 꾸준히 사회복지 실천 운동으로 이어온 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물과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아니라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주체로, 복잡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복지관과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에 맞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방식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모든 과업이 이력했습니다. 7명의 실습생이 이룬 개별 과업과 아파트 생활복지운동은 소규모 일상을 돕는 소박한 방식이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온라인 소외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2) 푸른복지배움터 홈페이지 edu.welfare.pe.kr

2시간 30분가량의 ‘코로나 충격과 사회사업’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7명의 실습생과 함께

이 일을 7명의 실습생과 이루었습니다. 김선재 조재복 안예영 이예지 양정아 신희선 김민주 학생이 공통과업 생활복지운동과 개별과업을 뜻있게 이루었습니다.

실습 첫 주에 온오프믹스 합동연수에 참여했습니다. 「복지요걸」 책에서 사회사업 근본을 공부했습니다. 여러 책을 읽고 사례특강을 들으며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준비했습니다. 사회사업가 쪽의 강점과 자원으로 돕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당사자나 지역사회 것으로서 이루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7명의 실습생은 부지런히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을 전하는 홍보지를 만들 때도 기획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감사 홍보지를 만들고 붙이는 일도 기획단에게 묻고 의논하니 심부름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감사·공이 들어가니 당사자의 자존심·체면·품위가 살고 당당해졌습니다. 개별 과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복지관과 지역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조용했던 복지관과 마을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이웃과 인정이 넘쳤습니다.

일주일에는 한 번은 실습 동료와 여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로 사람이 없는 야외 공간인 산과 바다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보며 동료와 자연을 누렸습니다. 비전 워크숍과 강점 워크숍으로 동료와 지지와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사회사업 글쓰기’는 사회사업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살피는 도구요, 당사자를 향한 내 마음을 바로잡고 다듬는 성찰의 도구입니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 사회 사람살이를 생각하며 거들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사자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돕고, 둘레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도우려고 어떻게 했는지 밝히는 이야기가 ‘사회사업 글쓰기’입니다. 「사회사업 글쓰기」³⁾

실습생은 매일 실습일지를 썼습니다. 생활복지운동과 개별과업 실천과정을 썼습니다. 그 실천과정에서 ‘의도와 근거와 성찰’을 담았습니다. 사회사업을 ‘기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실습지도자인 제가 발췌 인용 정리해서 사례집으로 출판합니다. 치열하고 뜨거웠던 한 달의 시간을 담았습니다. 7명의 실천 이야기를 조금씩 요약해서 모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습생의 글을 그대로 넣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다듬기도 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매일 조금씩 글을 정리했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과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실습은 3단계에 준하는 서울시 상황과 기관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욱 조심스러워진 상황에 신나게 활동했던 지난여름의 시간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책이 선재 새봄 예영 예지 정아 희선 민주에게 작은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뜻있게 실천하며 기록했던 시간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졸업하고 사회사업 현장에서 만나 함께 이루어가는 선후배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3) 「사회사업 글쓰기」 (김세진, 구슬 꿰는 실, 2020)

더하여 이 과정이 사회사업 현장에서 실습 슈퍼바이저와 사회복지 대학
생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뜻있게
일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도 작은 실마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긴 머리말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뜻있게 이룬 사회사업 이야기, 시작합니다.

실습지도자 권대익 사회사업가



강화 석모도 여행을 함께한 일곱 실습생

응원 글

함께 일하게 되어 참으로 고마운 권대익 사회복지사를 응원합니다.

작지만 한 기관을 책임자로 일하는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신뢰하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쭙고 의논하며 그분들이 마을 안에서 주체적 삶을 살면서 여럿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료들이 자랑스럽지만, 오늘은 특별히 권대익 사회복지사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사실 권대익 사회복지사를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회사업과 연애를 하듯이 정열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고맙고 든든하기도 하지만 혹시 소진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실습을 담당하게 되는 방학이 되면 그 마음은 더 생기곤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단기사회사업 형태의 실습을 진행하는데 일반 실습보다도 몇 배의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일입니다. 권대익 사회복지사는 실습하는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서 인지 매일 늦게까지 실습생들과 토론도 하고, 일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지만 체력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복병과 함께 불볕더위라는 애초 예상과 다르게 긴 장마로 실습 진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더욱 힘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했듯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 변수로 인해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지요. 그런 힘든 과정을 이번에 책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권대의 사회복지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후배들을 사랑 하는지, 그리고 사회사업을 진행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경험 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의미 있는 사회사업을 실천할 귀한 후배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권대의 사회복지사가 사회사업과의 연애뿐 아 니라 평생의 반려자와도 뜨거운 사랑을 나눌 기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 도합니다. 사랑하는 권대의 사회복지사 아니 권대의 후배를 축복합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김상진 관장

준비

단기사회사업 소개 | 권대의

단기사회사업은 사회복지대학생이 방학 중 5~6주간 사회사업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정보원이 주선하는 단기사회사업은 「복지요결」 방식으로 실천하는 기관이 함께 합니다.

- ① 대학생이 복지 당사자와 함께 한두 가지 단위사업을 기획부터 평가까지 수행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사회사업 근본 곧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을 공부하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 살이’에 감동하여 ‘아~ 사람 사는 것 같다!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됩니다. ‘사회사업이 이렇게 재미있고 귀한 일이구나!’ 하게 됩니다.

목적

- ① 실무 지원 : 실무를 거들고 좋은 자극과 기운을 줍니다.
- ② 인재 양성 : 사회사업 현장을 지키고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웁니다.
- ③ 정서 지원 : 사회사업 재미와 감동, 우정과 낭만을 누리게 합니다.

주체

- ① 사회복지대학생 : 사회사업 뜻있게 즐겁게 제대로 잘하고 싶은 학생, 실무를 기획부터 평가까지 직접 실행해 보고 싶은 학생
- ② 사회사업 기관 : 이런 학생을 찾아 기관의 인재로 사회사업 지도자로 키우고 싶은 기관, 이런 학생과 함께 몇 가지 단위사업을 기획부터 평가까지 '실제로' 실행할 기관

과정

- ① 복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단기사회사업으로 할 일을 선정하고 모집부터 평가까지 전체 과정을 대략 구상해 봅니다.
- ② 홍보 : 학교 수업시간이나 특강 시간에 사례를 발표하고 방학에 이런 사회사업을 함께 해보자 합니다.
- ③ 지원서 : 지원서로써 학생을 돕습니다. 탈락자 서류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감사 축복하는 편지를 씁니다.
- ④ 면접 : 당사자가 면접을 준비 진행합니다. 지원자가 면접으로 사회사업을 배웁니다. 당사자와 어울리고 지역사회를 누립니다. 탈락자 서류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감사 축복하는 편지를 씁니다.
- ⑤ 격려 글 : 면접까지 합격하면 격려 글을 받습니다.
- ⑥ 연수 : 「복지요결」 본문과 해당 분야 사회사업 편을 읽고 실천 사례를 공부합니다. 단기사회사업 실행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예비 보고서를 나누고 가상 출판 기념식을 합니다.
- ⑦ 사회사업 :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서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감사함으로 마칩니다.

⑧ 평가와 수료 : 추억 사례 배움 강점 희망 감사를 나눕니다. 수료사를 낭독하고 수료증을 줍니다.

⑨ 보고서 : 단기사회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당사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냅니다. 도서등록번호를 받아 인쇄 제본합니다.

2020 여름 사회사업 실무학교 소개 | 권대익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바른 사회사업 실천을 지향합니다. 더하여 전 직원이 함께 만든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뜻있게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2018년부터 동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복지관 3대 기능으로 팀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사회사업가 한 명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까지 실천합니다. 복지관이 만나오던 방화동을 넘어 그동안 잘 만나지 못한 공방동에 이르기까지 활동합니다. 복지관이 위치한 아파트 주변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단지까지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마을 안에서 사회사업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향점에서 사회사업 실무학교도 동 중심 사회사업을 이루어 가는 데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실습생이 별도의 실습용 프로그램을 맡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관 단위사업에 계획된 사업을 정식으로 맡아 수행합니다. 2017년 여름부터 시작했으니 지금까지 햇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실습을 지도할 때 아래 네 가지 주안점을 두고 돕습니다.

- ① 공부 :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합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실무자와 충분히 이야기 나눕니다. 공부가 사업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 ② 실천 : 하나의 과업을 기획 진행 평가까지 실습생이 온전히 실천합니다. 매일 실무자의 슈퍼비전을 받으며 함께 사업을 이루어갑니다. 현장에서 사

회사업가가 일하는 방식을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③ 추억 : 당사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함께 과업을 수행하는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실습 동료와 추억을 쌓습니다. 합동연수, 중간 연수, 합동 수료식에서 가슴 시린 추억과 낭만을 연습합니다. 자연을 누립니다. 산과 들, 계곡과 바다, 달과 별이 주는 풍성함을 만끽합니다.

④ 글쓰기 : 실습일지를 이야기체 기록으로 훈련합니다. 실습일지를 여러 번 고치고 다듬어서 한 권의 사례집으로 발간합니다.

2020년 여름 사회사업 실무학교는 사회복지 대학생 7명이 활동했습니다. 공통과업으로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개별과업으로 윤동우 님 가족 여행, 무럭무럭 가족 여행, 초등학교 여름 여행, 중학생 여름 여행, 고등학교 여름 여행, 자전거 여행, 배드민턴 마을 선생님, 반려동물 사회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과업	내용	실습생
1	윤동우 님 가족 여행	사례관리 당사자 가족의 여행	안예영
2	무럭무럭 가족 여행	5가정 주민모임 가족 여행	김선재
3	초등학교 여름여행	초등학교 근교 당일 여행	조새봄
4	중학생 여름여행	중학생 근교 당일 여행	이예지
5	고등학교 여름여행	고등학교 근교 당일 여행	양정아
6	자전거 여행	자전거 한강 여행	김민주
7	배드민턴 마을 선생님	배드민턴 배우기	김민주
8	우리 동네에 나쁜 개는 없다	반려견 주민모임	신희선

사업에 앞서 먼저 전국에서 여러 실무자와 실습생이 모여 공부하는 ‘합동 연수’로 시작했습니다. 한덕연 선생님께 「복지요결」 강의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강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각 팀의 여러 실천 이야기와 단기사회사업 사례특강을 들었습니다. 한 달 일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프로그램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업을 실습생이 펼쳐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동네가 아이들과 주민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조용했던 마을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겨웠습니다.

사업의 마무리는 당사자와 함께하는 마칩식입니다. 한 달 동안 실습생이 당사자와 깊이 만났으니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을까요. 함께한 시간을 정리하고 발표합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표현하고 나눕니다. 감사와 감동이 넘칩니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실무자와 실습생이 모여 수료식을 합니다. 실습생이 한 달 동안 실천한 사업의 과정과 내용, 배움과 성과를 ‘사례발표’ 합니다. 한 달의 시간 동안의 일과 소회를 아름다운 수필로 쓴 ‘수료사’를 낭독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실습생의 글쓰기를 돕습니다. 사회사업가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공부합니다.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무엇을 써야 할지 살핍니다. 실습일지를 정리해서 한 권의 사례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함께 여행도 했습니다. 강화 석모도, 인천 무의도, 개화산으로 여행했습니다. 합동수료식에서 강원도에 있는 민동산, 덕풍계곡, 타인캠슐공원을 여행했습니다. 산과 바다와 계곡을 누렸습니다. 가슴 시린 추억입니다.

2020년 여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방화동은 실습생의 열정으로 더욱 뜨거웠습니다. 7명의 실습생이 34일 272시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립습니다.



실습생과 함께 다녀온 여행, 고려산 일몰

실무자 면접 | 권대의

실무자 면접

여느 때보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272시간, 토요일 포함, 6주 동안 진행되는 고난이도 과정인데도 11명이 지원했습니다. 2020년부터 실습 기관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이 적어서일까요?

지원자를 만나보니 이미 단기사회사업을 경험한 선배에게 추천을 받기도 하고, 교수님이나 다른 기관 실무자가 방화11에서 실습을 해야 잘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하고, 그동안 학교를 찾아다니며 단기사회사업을 홍보한 이야기를 기억해서 지원한 학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실습 기준이 완화되어 슈퍼바이저 1명이 최대 10명까지 실습지도가 가능했습니다. 1차 서류 면접을 하고, 2차 실무자 면접에서 지원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학생을 만나는 일

단기사회사업은 실습생 한 명이 하나의 사업을 기획 진행 평가까지 수행합니다. 실습생은 합동연수에서 '복지요결'로 사회사업 근본을 탐구하고 여러 공부와 연구로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이룰지 궁리하고 준비합니다. 맡은 사업을 한 달 동안 실습생이 주체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이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된 좋은 학생과 함께함이 좋습니다. 여러 실습지도자가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좋은 학생이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1차 서류 면접을 했고, 2차 실무자 면접을 공지했습니다.

지원자 환영하기

6월 15일(월) ~ 16일(화) 11명의 지원자를 이틀에 나누어 실무자 면접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면접'이라고 이름을 썼지만 딱딱하고 일방적인 면접이 되기보다 실무자와 지원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상호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습생은 6주의 시간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합니다. 저는 실습지도자로 6주 동안 실습생의 활동을 돕습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무계를 생각하며 신중히 정성껏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밑줄 치며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사회복지 대학 생활의 배움과 과정이 어떠했는지, 방화 11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기대가 있는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실습생 환영하기 위해 복지관과 면접실을 꾸몄습니다. 복지관 1층 현관에 지원자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 글귀와 사진을 붙였습니다. 면접실을 올라오는 계단에 지원자를 환영하는 글귀를 썼습니다. 퇴근길 복지관 1층에서 만난 어린이집 어느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환영받는 실습생의 기쁨이 클 거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면접실에는 '방화11과 20년 뒤 사회복지계를 이끌어갈 인재가 만나다' 글귀를 썼습니다. 이런 귀한 인재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진실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단기사회사업 경험이 많은 이미진 선생님께 면접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든든합니다. 이미진 선생님께서 시원한 차와 따뜻한 음악을 준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10명의 지원자를 2명, 3명씩 나누어 총 4번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원자를 만나다

이틀 동안 면접을 했습니다. 모두 늦지 않고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두셋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눴습니다.

면접을 보기 전후로 관장님과 사무실 직원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김상진 관장님께서서는 늘 예비 사회복지사 대학생을 교육하는 일이 현장을 위하는 길임을 알려주시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사무실 동료들도 한 달 동안 복지관에서 생활하는 실습생에게 관심을 두고 환영해주셨습니다. 동료들은 실습생에게 때마다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여러 조언과 도움을 줍니다. 최종 합격 후에 다시 반갑게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 질문. 자기소개, 지원동기, 실습에 임하는 각오입니다. 누가 먼저 대답할까요? 상호 만남이니 실무자인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저는 '진실한 마음과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관 8년 차 사회사업가입니다. 대학생과 사회사업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나누는 자리가 좋습니다. 선배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학생의 성장이 현장의 성장이라 생각합니다.

20년 뒤 사회복지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합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실습생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이미진 선생님께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어준 차 덕분에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실습생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복지관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졸업 이후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살펴며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지원자도 복지관과 실습 일정에 궁금한 점을 질문했습니다. 합격 이후 과정과 실습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모듬별로 한 시간 정도씩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안예영 학생은 면접을 잘 봤습니다. 그동안 다른 단기사회사업 경험도 있고 지난겨울 구슬 활동⁴⁾도 했습니다. 방화11에서 잘하고 싶어하는 꿈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안예영 학생과 함께 이번 여름 실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합격자 발표, 탈락자와 전화통화

고심 끝에 2차 실무자 면접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2명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탈락자와 전화 통화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방화11과 인연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면접과 실무자 면접이 어떠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지 이야기했습니다. 기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기를 응원하고 축복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4) 사회복지사사무소 '구슬' 김세진 선생님께서 주관하는 '사회사업 공부와 여행' 대학생 활동입니다. 졸업 뒤 사회사업 현장에서 뜻있게 일하고 싶은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를 게시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후배의 성장과 경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명씩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방화11 지원 과정이 사회복지 대학 생활에서 좋은 도전과 자극, 배움과 성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차 당사자 면접

1차 서류 면접, 2차 실무자 면접을 마쳤습니다. 6월 20일(토) 오후에 마지막 3차 당사자 면접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실습 과업의 변화가 많습니다. 당사자 면접도 10인 이하로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당사자 면접을 진행할지 주민과 기관과 조금 더 의논해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 면접 준비 | 권대익

당사자 면접 기획

여느 때였다면 여름 활동 과업이 결정되고 과업별 참여자가 한 명의 실습생의 면접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직 어떤 과업을 할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지관 운영계획에 맞추어 과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인원으로, 야외활동 중심으로 만납니다. 당사자인 주민과 충분히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신중하게 과업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과업별 면접이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방식의 면접을 궁리했습니다. 8명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1차 서류 면접, 2차 실무자 면접을 했고, 마지막 당사자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10인 이하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면접을 합니다.

과업과 관계없이 통합 집단 면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 대표들이 실습지원자 8명을 면접하는 겁니다.

면접위원과 지원자까지 10명 이하 소규모 모임으로 진행하기 위해 면접 위원도 아동 청소년 그룹, 어른 그룹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룹별로 함께 해주실만한 이웃을 미리 섭외했습니다. 실습지원자도 8명 가운데 4명씩 두 그룹을 나눕니다. 아동 청소년 그룹, 어른 그룹을 각각 나누어 교대로 두 번 면접합니다. 실무자 면접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당사자 면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 아동 청소년 그룹

- ① 조정연 (6학년/여)
- ② 방서현 (6학년/여)
- ③ 정서광 (6학년/남)
- ④ 조이정 (4학년/여)
- ⑤ 김인애 (고등학교 1학년/여)
- ⑥ 김화해 (고등학교 3학년/여)

※ 어른 그룹

- ① 김민경 님 (정연 이정 어머니)
- ② 김경옥 님 (강아지 활동/여)
- ③ 윤동우 님 (가족 여행/남)
- ④ 이선이 님 (아파트 동대표/여)

윤동우 님께 면접위원 부탁드립니다

윤동우 님을 만났습니다. 딸 소현이와 함께 복지관에 오셨습니다. 윤동우 님은 하우정 선생님이 자주 만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딸과 함께 하는 가족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윤동우 님은 이미 단기사회사업 경험이 많으십니다. 2017년 여름에는 중년 나들이를 다녀오셨습니다. 당시 실습생이 「우리가 날던 날」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지난겨울에는 ‘한겨울 날의 작은잔치’ 사업을 이루셨습니다. 같은 층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맛있는 만둣국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윤동우 님, 이번에도 실습생이 와서 가족 여행을 거들어 드릴 거예요. 토요일 면접도 함께해주세요.”

당사자 면접이 어떤 의미와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습생 자기소개서를 정리 출력해서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소현이는 바다로 여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와 여행 다녀온 경험이 적고 바다 여행을 어렸을 적에 한 번 갔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동우 님께서 소현이와 함께 가족 여행을 잘 이루실 겁니다. 시원한 바다에 발 담그는 부녀의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웃음 짓게 됩니다.

무력무력 김민경 님 가족에게 면접위원 부탁하기

김민경 님을 만났습니다. 첫째 딸 정연은 복지관에서 ‘꿈을 잡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이정은 복지관에서 ‘친구야 놀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님은 동네에서 아이들이 하는 일을 적극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동네 이웃들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복잡한 신청 서식도 이웃과 모두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김민경 님의 사업은 ‘엄마도 아이도 자연과 더 친해지자’라는 주제입니다. 모임 이름은 ‘무력무력’입니다. 무력무력 사업 안에 여러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여름방학 때 실습생과 함께 이를 만한 사업을 복지관과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전화통화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함께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님과 정연, 이정이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정연과 이정은 오랜만

에 복지관에 오니 기분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 싶었던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눴습니다.

김민경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무력무력 사업계획서를 출력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단기사회사업으로 함께할 내용은 ‘숲 활동’입니다. 숲 선생님과 우리 동네 산을 다니며 ‘숲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산 외에도 조금 멀리 산에도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무력무력’에 참여하는 가족이 차를 나누어 산으로 가고 일몰과 달과 별을 보기로 했습니다.

“우와~ 좋아요. 아빠들도 함께 가야 하니까 토요일에 가요!”

‘무력무력’ 세부사업 안에 ‘모기퇴치제와 버물리 만들기’ 활동도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님 가족과 당사자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6월 20일(토) 당사자 면접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논했습니다. 8명의 실습생 자기소개서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실습생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정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면접실을 어떻게 꾸밀지, 실습생과 어떻게 만날지도 의논했습니다. 가족 별로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선이 통장님께 면접위원 부탁드리기

이선이 통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선이 통장님은 동네 ‘홍반장’ 같은 분이십니다. 통장으로 아파트 구석구석 이웃의 상황을 잘 아시고 살핍니다. 아파트 전체 동대표 회장도 하고 계십니다. 주민센터에서 이웃살피미, 희망드림단 등의 활동도 합니다. 복지관 여러 일을 부탁드릴 때마다 적극

적으로 도와주십니다. 2019년 여름, 「한여름 날의 낭만잔치」⁵⁾ 사업을 실습생과 함께 이루셨습니다. 여러모로 실습생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명절 잔치, 수육 잔치 등 3동 잔치 때마다 풍성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선이 통장님께서 실습생과 직접 하시는 활동은 없습니다. 그래도 방화동에서 실습한다면 동네 유지이신 이선이 통장님을 잘 만나고 인사드리면 좋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시려 하실 겁니다. 이 마음으로 이선이 통장님께 면접위원을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오세요~”

통장님께 전화하니 단번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니 여느 때처럼 같은 층 이웃인 장재희 님, 김수옥 님과 왕래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3동 이웃의 근황도 들려주셨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조금씩 여러 일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내 일처럼 이웃을 살피는 통장님과 이웃의 애씀이 감사했습니다.

9명의 실습생이 면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니 통장님께서 꼭 면접을 봐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흔쾌히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장재희 님도 실습생의 자기소개서를 살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사진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지원자가 합격하면 통장님 맥으로 초대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통장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차를 마시면 따뜻한 우리 동네의 이웃과 인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한여름 날의 낭만잔치」 (박세경 권대익, 구슬깨는실, 2020)

2019년 여름, 삼삼오오 층층마다 느슨한 모임을 주선하며 아파트 한 동의 이웃 관계를 도운 사업입니다. cafe.daum.net/coolwelfare/OX67/113

김경옥님께 면접위원 부탁드립니다

김경옥님을 만났습니다. 방화마을 합창단 활동을 하셨고 멋진 음악회도 이루신 분입니다. 김경옥님은 반려동물 ‘떡보’, ‘밍밍’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매일 강아지와 산책하고 강아지 에티켓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2019년 1월에 강아지 활동으로 단기사회사업을 즐겁게 참여하셨습니다. 김경옥님께 이번에 강아지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동네에 몸과 마음이 아파 반려동물을 산책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데 동네에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 모임을 해보면 어떨지 말씀드렸습니다. 흔쾌히 함께하시기로 했습니다.

김경옥님은 여러 손재주도 좋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살펴 빵과 쿠키를 만드는 일도 동네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6월 16일(화) 4시에 실무자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에게 나눈 빵도 김경옥님께서 실습지원자를 위해서 만든 빵이었습니다.

김경옥님께서서는 여러 사정으로 두 딸과 떨어져서 살고 계십니다. 가족 여행을 제안했지만 여러 상황이 있어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면접위원 부탁하기

지난겨울 6명의 소녀와 제주도 한라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연 속 실습생이 「또렷한 흔적을 남기다」⁶⁾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서지선 김인애에게 이번 여름 여행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과정 전체를 지켜본 인애 언니 화해도 이번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 시간을 피해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선 인애 화해가 밝은 표정으로 복지관에 왔습니다.

이번 활동 원칙 세 가지를 다시 이야기 나눴습니다.

1. 스스로 - 청소년이 스스로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2. 관계 - 친구, 가족,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3. 자연 - 산과 들, 바다와 계곡, 햇볕과 비바람, 아름다운 자연을 누립니다.

활동 원칙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에 임하는 마음도 나눴습니다. 모두 방학 활동을 기다렸습니다.

당사자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나눠주었습니다. 집에서 각자 자세히 읽고 질문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실을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선생님을 만날지 의논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답소를 나누며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잘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설레는 모습으로 복지관으로 달려왔을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도 멋진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6) 「또렷한 흔적을 남기다」(강연숙 권대익, 푸른복지, 2020)

청소년 6명과 다녀온 제주도 여행 사업. PDF banghwa11.tistory.com/825

어린이 면접위원 준비모임

서현, 서광도 면접위원을 부탁했고 준비모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면접 준비모임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연과 이정도 가까이 있으니 오늘도 함께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흔쾌히 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4명이 만났습니다. 서현과 서광은 지난겨울에 속초여행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정연과 이정은 서광을 처음 만납니다.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서현과 서광에게 실습 선생님 자기소개서를 전했습니다. 집에서 각자 읽고 질문을 생각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면접위원 명패를 만들고 선생님을 환영할 때 들고 있을 손팻말을 만들었습니다.

서광은 실습 선생님께 소개할 영상을 찍었습니다. 서현은 부끄러워서 찍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중해서 모임을 하니 1시간 만에 모임이 끝났습니다.



당사자 면접을 준비하는 아이들

실습 선생님 면접 일정

면접위원		실습 선생님	
1조 ① 조장연 (영화초 6학년) ② 방어진 (영화초 6학년) ③ 조이경 (영화초 4학년) ④ 장서을 (영화초 6학년) ⑤ 김희하 (여흥고2학년) 3학년 ⑥ 김민아 (해곡보건경영고 1학년)	2조 ① 김민경 님 ② 김경옥 님 ③ 윤동우 님 ④ 이선이 님	1조 ① 김선아 (선문고4학년)님 ② 이지희 (서문고4학년)여 ③ 심희선 (서문고4학년)여 ④ 김민주 (성결고4학년)여	2조 ① 조서은 (선문고4학년)여 ② 안연정 (서문고4학년)여 ③ 양영아 (선문고4학년)여 ④ 김미현 (KCG고4학년)여

시간	내용	담당	비고
13:00 ~ 14:00	면접 준비, 푸이기, 여행연습		
14:00 ~ 14:40	실습생 환영 준비	노희 담당 : 전담 담당 : 다같이 명함 담당 : 안내 담당 : 지문 담당 :	실습 선생님은 본행사 공휴일 입실 후 복귀함으로써 이동
14:40 ~ 14:50	복지관 1층 이모에서 인사		실습생, 발명거꾸, 요스톡
14:50 ~ 15:10	차 대입과 후식	주문 담당 : 김희현 조리 담당 : 배달 담당 : 음각 담당 :	현장대기실 : 도서관
15:10 ~ 15:50	1차 면접		마스크 착용, 2m 간격
15:50 ~ 16:00	후식	사회자 : 조장연, 김민경 이동철소선 : 3층 나눔이 어른 : 3층 공휴터	화장실 다녀오기
16:00 ~ 16:40	2차 면접		마스크 착용, 2m 간격
16:40 ~ 17:00	편지쓰기	다함께 편지쓰기	실습생은 면접대기실에서 대기
17:00 ~ 17:10	배움과 인사	실행시 발표	1층 이모에서 배움
17:10 ~ 17:30	협력자 발표 영상 촬영		협력 영상

■ 면접

자리 안내 - 사회자 인사 - 면접위원 소개 - 실습 선생님 기본 소개 - 질문 - 하고 싶은 말 - 마무리

당사자 면접 궁리하기

당사자 면접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동안 면접위원들과 준비를 끝냈습니다. 면접 당일 어떤 흐름으로 진행할지 궁리하고 상상했습니다. 면접위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부탁드릴지 점검했습니다.

면접 당일, 어떻게 면접을 이룰지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새롭게 부탁할 일을 적었습니다. 사회사업가인 저의 역할은 주민과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일뿐입니다.

문서로 정리하니 머릿속에 있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부탁드릴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자료는 내일 모여서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면접 질문 점검하기

이번엔 면접 질문을 준비모임에서 함께 정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자기소개서를 읽고 정리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8명의 자기소개서를 모임 한자리에서 읽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모이기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면접 전날, 면접위원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여쭙었습니다. 김경옥 님께서는 먼저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김민경 님, 정연, 이정은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기 좋게 정리해서 출력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질문 내용이 깊습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김민경 님과 의논하기

수요일에 김민경 님께서 우쿨렐레를 연주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친구야 놀자’ 사업 감사공연에서 우쿨렐레 공연을 멋지게 하신 적이 있는데 노래와 연주가 이번 당사자 면접에서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전화로 어떤 노래를 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노래를 추천해주셨습니다. 쉬운 멜로디와 가사로 환영 곡으로 제격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음악을 찾아 다른 면접위원에게 미리 연습해서 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실습 선생님께 대접할 음료로 매실차와 아이스티를 준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면접위원 소개 영상 편집

면접위원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미리 만납니다. 지원자에게 면접위원을 어떻게 소개할지 궁리했습니다. 그동안 지원자에게 소개할 프로필을 만들어서 공유했는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동안 면접위원을 만나 촬영했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내내 기대하는 마음으로 웃으며 편집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본 동료는 그토록 웃으며 편집한 이유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활동과 영상 활용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을 사용하더라도 ‘관계’를 잇는 역할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참조 : 295쪽 ‘동영상 모음’ ① 면접위원 소개, 실습지원자에게 전하는 마음

당사자 면접 | 권대의

설레는 출근길

1차 서류 면접과 2차 실무자 면접이 끝나고 마지막 3차 당사자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과 담당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8명이 함께 통합 집단 면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면접위원을 섭외했고 3일 동안 당사자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당사자 면접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실습 선생님과 주민 면접위원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오후 당사자 면접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1층에서 준비하기

오후 1시. 면접위원이 하나둘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1층에서 먼저 회의를 했습니다. 꿈자람책놀이터 도서관이 면접 대기실입니다. 웃음꽃방에서 차를 준비해서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 둘러앉아 오늘 일정을 의논했습니다. 조 구성과 면접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습 선생님 맞이할 때 역할 나눔을 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아주머니, 아저씨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서로 동네에서 이미 알고 있거나 알법한 관계입니다.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실습생이 처음 왔을 때 환영하며 부를 노래입니다. 우쿨렐레 연주에 맞춰 함께 노래했습니다. 어젯밤에 가사를 갑자기 바꾸어서 조금 헷갈리기도 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밖에서 노래 예

행연습을 했습니다. 1층 현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실습 선생님이 가까이 오면 모두 등장해서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3층에서 준비하기

어린이 청소년은 나눔터에서, 어른은 공유터에서 면접을 합니다. 각자 면접실을 꾸몄습니다. 미리 만들어놓은 사진과 손팻말을 붙였습니다. 책상에 명패를 놓았습니다. 자리 배치도 면접위원이 의논해서 정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면접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역할을 했습니다. 예행연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선이 통장님께서 함께 나눠 먹을 요구르트를 사주셨습니다. 윤동우님께서 비타500 음료수를 사 오셨습니다. 김민경님께서 매실과 아이스티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면접 준비하는 주민

실습 선생님 도착과 차 대접하기

면접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깜짝 환영을 위해 실습 선생님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은하수공원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모두 환영 노래를 준비하고 저는 실습 선생님을 만나러 은하수공원으로 갔습니다. 8명 모두 일찍 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 가득하지만 내려놓고 복지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짜잔! 실습 선생님이 복지관 앞에 다가오자 11명의 면접위원이 모두 등장했습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했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노래를 개사해서 우쿨렐레 연주에 맞춰 불렀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 방화동과 실습쌤이 함께하는 날 / 환영해요 환영해요
환영해요 / 만나서 반가워요~”

이정이 체온 담당입니다. 실습 선생님 체온을 측정했습니다. 정연이 안내 담당입니다. 방명록을 작성하고 면접 대기실에서 쉬시도록 안내했습니다. 화해가 주문 담당입니다. 방명록을 작성하면서 어떤 음료를 드실지 여쭙었습니다.

이선이 통장님, 김민경 님, 김경옥 님께서 음료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윤동우 님과 서광이 배달했습니다. 실습생이 박수로 환영해주었습니다.

면접하기

실습 선생님이 음료를 드시고 면접위원은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이정이 1층 면접 대기실에 계신 실습 선생님을 3층 면접실로 안내했습니다.

8명의 지원자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 면접합니다. 1차 면접이 끝나면 그룹을 바꾸어 2차 면접을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그룹에는 정연, 어른 그룹은 김민경 님이 사회자입니다. 인사하고 질문하는 모든 과정을 사회자가 직접 했습니다.

저는 양쪽을 오가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웃으며 면접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하며 2시간 가까이 말하고 듣는 시간이 힘들었을 텐데 면접위원도 지원자도 흐트러짐 없이 진지하게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린이 그룹 당사자 면접

편지 쓰기

모든 면접이 끝났습니다. 실습 선생님은 면접 대기실로 내려갔습니다. 3층에서 모든 면접위원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전원 합격 의견을 내셨습니다. 합격 발표는 바로 하지 않고 영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실습 선생님께 드릴 편지를 모두가 함께 썼습니다. 예쁜 도화지에 8명의 지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썼습니다. 저는 면접 대기실에서 실습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합격하면 해야 할 일과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함께할 날이 기대됩니다. 실습 전에 각자 충분히 준비해서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삼행시, 그리고 인사

모두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라 야외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화해가 준비한 삼행시와 함께 편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면접 준비모임에서 재치있게 삼행시를 잘 짓는 모습을 보고 8명의 지원자 이름으로 삼행시를 부탁했습니다. 화해의 삼행시 능력이 놀랍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이: 령계

예:쁜 사람을

지:금이라도 알아보길 바라

김:미현 선생님

미:인이신 것 같아요

현:재 실물이 더 미인인 것 같아요.

신:비럽고

희:망차 있으며

선:한 인상을 가진 예쁜 그대

김:이 쪽 빠지더라도

민:달팽이처럼

주:위를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

안:그래도

예:뿐데

영:원히 예쁘면 좋겠다

양:면이 다르지 않고

정:말 똑같이 대해주는

아:름다운 행동

조:급해 하지 말고

새:로운

봄:을 찾으러 가자

단체 사진으로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서로 꼬옥 안아주며 마무리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영상 촬영

합격자 발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찍을지 어떻게 찍을지 주민이 모두 의견을 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촬영했습니다. 전원 합격을 주셨습니다. 참조 : 295쪽 '동영상 모음' ② 당사자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실습 선생님 마음이 어떠할까요? 발표 영상을 본 실습 선생님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진을 보정 하고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늦은 밤 실습생과 면접위원에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실습생도 면접위원도 발표 영상 소감을 홈페이지 댓글로 부탁했습니다.

감사

당사자 면접을 잘 마쳤습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힘이 납니다. 면접 날 밤에, 그다음 날에 면접위원에게 감사 인사했습니다.

면접실 꾸미는 일, 차 대접하는 일, 자기소개서 읽고 질문하는 일, 노래하고 연주하는 일, 편지 쓰고 삼행시로 축복하는 일, 모두 주민이 했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주시는 매실차, 요구르트, 비타500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대학생 실습생 면접! 제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좋은 경험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쌤들과 좋은 여름방학 되면 좋겠습니다! 꼭 쉬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세요! | 김민경 님

너무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 김화혜

제가 체온 체크도 하고 직접 면접관이 되어서 좋았어요. 자주 만나요. 제가 복지관에 자주 찾아갈게요. | 조이정

면접이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에 천천히 당사자 면접 소감을 더 여쭙어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지도 의논하고 싶습니다. 한 달 뒤에 오실 실습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19도 이기는 멋진 추억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면접에 참여하는 주민과 실습생

공동사업 | 생활복지운동 이야기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

권대익 김선재 조새봄 안예영 이예지 양정아 신희선 김민주

진행

사업 배경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사건이 큰 이슈였습니다.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고 경비원을 추모하는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대하는 일부 주민의 모습에 우리는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소위 ‘갑질’ 논란은 경비원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무원, 피자 가게, 택배기사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도 많습니다.

사회사업가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에 한정하여 그 일에 참여하는 몇몇 주민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빠르게 이웃과 인정이 사라져 지역사회가 삭막해지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관 지역복지 공부노트」 생활복지운동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관과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주민모임으로 지역주민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삭막해지는 지역사회에서 복지관과 사회사업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궁리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법조인 등 저마다 각자의 역할을 찾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사업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지관 사업은 대체로 문제가 발생한 뒤에 이를 해결하려는 일입니다. 문제를 수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고 억제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안에 이웃을 만들고 그사이에 인정이 흐르게 하는 일은 문제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책입니다. 지역사회에 이웃이 있고 인정이 소통해야 문제는 생기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도 이웃과 인정이 바탕에 있는 지역사회가 이를 탄력적으로 대처합니다. 가족 사이에 애정이 깊어지고, 이웃을 만들고 인정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안합니다.

「복지관 지역복지 공부노트」 생활복지운동

사회복지사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쪽에 힘쓰기보다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나쁜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소극적 복지’보다, 좋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사회사업가의 별칭을 「복지요결」에서는 사람들이 친하게 사는 사회이게 일을 꾸미는 ‘사회 공작원’이라 하고, 「복지관 지역복지 공부노트」에서는 사람들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으로 ‘관계 주선사’라 합니다.

그러니 사회사업가로 경비원 아저씨와 주민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경비원 아저씨와 주민이 인사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사업가가 경비원 아저씨와 주민의 관계를 주선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갑질’이라는 문제를 없애는 과업에 집중하기보다 경비원 아저씨와 주민이 좋은 선린의 관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일을 생활복지운동으로 합니다.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사회사업을

넘어 지역사회를 통째로 만나 변하게 하는 시도입니다. 대중에게 생활 속에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운동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대개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합니다. 다만 개별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강물에 돌 던지기 같아 보입니다. 지역사회 '대중'을 움직이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복지요결」 복지관 사회사업

선행연구, 선행 경험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복지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방화동 곁에있기팀에서 일하며 여러 실천 경험⁷⁾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8년 방화초등학교 이웃사랑 케이크 나눔 생활복지운동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든 케이크를 직접 쓴 엽서와 함께 경비원 아저씨와

7)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생활복지운동 선행 경험 | 복지관 홈페이지 실천기록 연결

- ① 2018년 어버이날 부모님께 연락해요 생활복지운동 banghwa11.or.kr/82
- ② 2018년 방화초등학교 등굣길 생활복지운동 1 banghwa11.or.kr/107
- ③ 2018년 방화초등학교 등굣길 생활복지운동 2 banghwa11.or.kr/298
- ④ 2018년 방화초등학교 이웃사랑 케이크 나눔 생활복지운동 banghwa11.or.kr/141
- ⑤ 2018년 동네 카페와 함께하는 생활복지운동 1 banghwa11.or.kr/279
- ⑥ 2018년 동네 카페와 함께하는 생활복지운동 2 banghwa11.or.kr/283
- ⑦ 2019년 방화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어버이날 생활복지운동 banghwa11.or.kr/500
- ⑧ 2020년 가정의달 생활복지운동 banghwa11.or.kr/861

나눌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컸습니다. 이 관계를 더 잘 돕고 싶었습니다.

2020년 가정의달 생활복지운동도 뜻있게 이루어졌습니다. 복지관 인근에 있는 아파트 3개 단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승강기에 붙임쪽지를 붙일 수 있는 팻말을 붙였고 이웃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붙임쪽지가 붙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주민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서로 마음을 표현한 뜻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날로그 언택트 방식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건물과 서비스 중심의 실천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이웃과 인정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곁에있기팀 전체가 함께했고 서로에게 작은 성공과 기쁨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16년 이전 기관에서 일할 때 전국 19개 복지관이 생활복지운동 네트워크로 꾸준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김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와 경비원 아저씨께 인사하자는 생활복지운동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천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행연구와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을 기획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마다 팻말을 붙이고 오가는 주민이 경비원 아저씨께 하고 싶은 말을 붙임쪽지에 써서 붙입니다. 일주일 뒤에 이 편지를 정리해서 경비원 아저씨께 전달합니다. 이번엔 이 일을 함께할 주민 기획단을 모집해서 주민이 생활복지운동에 주체가 되도록 합니다.

8) 김해종합사회복지관 경비원 아저씨께 인사하기 생활복지운동 실천 사례
cafe.daum.net/coolwelfare/RmPf/242

실습생과 함께하는 생활복지운동

단기사회사업 방식의 실습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은 사회복지대학생이 방학 중 5~6주 동안 복지관에서 「복지요결」 방식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정입니다. 실습생 한 명이 한 가지 사업을 기획·진행·평가까지 수행합니다.

이번 여름은 코로나19로 여느 실습과 달라야 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실무자 워크숍을 하면서 각자 지역에서 어떻게 실습 과업을 이룰지 궁리했습니다. 소규모 중심, 야외활동 중심, 비접촉 방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습생 한 명이 소규모 야외활동 중심으로 한 가지 사업을 담당하는 개별 과업 외에 실습생이 함께 이룰 수 있는 공통과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철암도서관 김동찬 선생님께서 실습지도하는 방식을 보며 복지관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실습 초기에 공통과업으로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개별과업 전에 공통과업을 먼저 실천하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를 바랐습니다. 2인 1조로 아파트 하나를 담당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재미와 기쁨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가정의달 생활복지운동은 11단지 아파트, 12단지 아파트, e-편한세상 아파트 이렇게 3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실습생이 7명이니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작은 태승훼미리2차아파트까지 더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습생과 생활복지운동을 공부했습니다. 「복지요결」과 「복지관 지역복지 공부노트」를 함께 읽으며 생활복지운동의 배경과 의미를 살폈습니다. 그동안 방화11에서 실천한 생활복지운동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을 어떻게 이룰지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주민 기획단 모집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복지를 이루는 주체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됩니다.

생활복지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제안하여 주민들이 활동하게 합니다.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복지관과 사회사업가가 아니라 당사자와 지역사회에게 부탁드립니다.

4개 단지 아파트별로 주민 기획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홍보지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 알렸습니다. 이미 복지관과 관계가 있는 아이들에게 제안하고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별로 5~6명 정도를 모집했습니다. 이 생활복지운동은 4회기로 구상했습니다.

1회기	승강기에 붙일 팻말 만들고 꾸미기
2회기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팻말 붙이기
일주일 이 지난 후에	
3회기	팻말 수거해서 꾸미기
4회기	경비원 아저씨께 팻말 책자 전달하기

1,2회기는 승강기 안에 붙일 팻말을 만들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승강기에 직접 붙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민들이 승강기에서 붙임쪽지에 경비원 아저씨께 전하는 편지를 써서 붙입니다. 3,4회기는 이 팻말을 수거해서 경비원 아저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작은 책자를 만들어 직접 전달합니다.

4번의 만남으로 쉽게 이룰 수 있는 활동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실습생이 활동하기에도 어렵지 않고 편안합니다.

11단지 아파트에서는 김경옥 님께 생활복지운동을 부탁드렸습니다. 흔쾌히 함께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요. 가끔 언니 집에 가기만 해요.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니 좋아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신 김경옥 님. 생활복지운동을 부탁드리고, 우나개 사업을 부탁드렸는데 감사 인사를 받았습시다.

김경옥 님의 붉은 눈시울에서 이웃과 만남과 관계에 얼마나 목말랐는지 느껴졌습니다. 모임과 만남을 주선, 제안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생활복지운동, 김경옥 님과 함께 신나게 활동합니다. 김경옥 님이 생활복지운동의 주인입니다. 김경옥 님께 칭찬·감사·공이 돌아갈 겁니다.



가운데 김경옥 님, 왼쪽 김선재 실습생, 오른쪽 안예영 실습생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캠페인 기획단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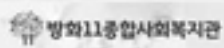


우리가 만나 같이 할 일

-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일 홍보지를 만듭니다.
- 동네 사람들과 함께 경비원께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 일주일 뒤 홍보지를 모아 경비원께 직접 선물합니다.

11단지, 12단지, 4~9단지대상, 태승 2차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과 방법은 신청하신 분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 권대익 사회복지사 02) 2661-0670-3



기획단 모집 홍보지

기획단과 첫 만남



e-편한세상아파트 기획단 첫 모임

4개 아파트 단지별로 기획단이 모였습니다. 이미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도 있고, 잘 모르는 관계도 있습니다. 알고 지내더라도 관계가 깊지 않은 사이도 있습니다. 서로 소개하고 인사했습니다. 특히 12단지 아파트 기획단 6학년 혜민이와 하은이는 같은 반입니다. 한 학기가 지났지만 코로나19로 학교에 자주 가지 않으니 친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생활복지운동이 기획단 안에서도 서로 관계가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단에게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이 활동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더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슈가 되었던 경비원 아저씨 사건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알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모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던 이정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구나."

정연은 경비원 아저씨를 자주 마주치며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정과 지식은 경비원 아저씨를 잘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한집에 사는 자매인데도 경비원 아저씨와 관계가 다릅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늘 그 자리 그곳에 계시는데 관계와 관심의 깊이만큼 보일 겁니다. 이번 활동 이후에 기획단 아이들은 경비원 아저씨를 더 자주 만나고 인사하는 관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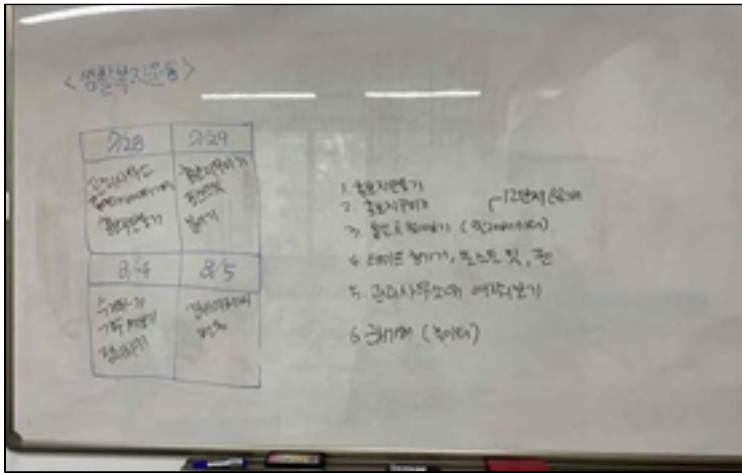
이번 활동을 어떻게 이룰지 함께 일정을 의논했습니다. 먼저 지난 가정의달 생활복지운동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도 저거 했었는데!"

가정의달 생활복지운동 때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붙임쪽지에 써서 붙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참여한 적이 있고 영상도 보니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스트잇 사기! 홍보지 만들기! 홍보지 수거하기! 경비원 아저씨께 전달하기! 관리사무소에 여쭙보기!"

이렇게 4번의 만남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날짜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했습니다. 생활복지운동은 주민 기획단과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이는 복지를 이루는 주체가 사회사업가가 아니라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민 기획단과 함께 의논한 내용

관리사무소 방문하기

“홍보지 만드는 게 오래 걸리니까 관리사무소 먼저 다녀오면 될 것 같아요.”

김경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누가 대표로 말할지 정했습니다. 서현과 서연에게 부탁했습니다. 둘 다 잠시 고민하더니, 서연이 외칩니다.

“이거 그냥 다른 기획단 할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되잖아!”

그러더니 펜을 집어 듭니다. 서현이 대본을 불러주고 서연이 적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1분 만에 대본을 다 짰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 단기사회사업과 복지관 활동을 경험한 덕입니다.

다 함께 관리사무소에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활복지운동 주민 기획단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요즘 경비원 아저씨분들이 고생하시기에 편지를 써드리려고 해요. 이걸 하려면 홍보지를 승강기에 붙여야 하는데, 붙여도 될까요?”

관리사무소에서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홍보지를 예쁘게 만들어 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파트에 승강기가 몇 대가 있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홍보지 만들기

홍보지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지는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위와 풀이 필요했습니다. 복지관 사무실 용품을 쓰더라도 아이들이 직접 부탁해서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민지 선생님, 손혜진 선생님, 권대익 선생님 알아요!”



함께 홍보지 팻말을 만드는 아이들

자신이 알고 있는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무슨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지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 감사 인사도 잘했습니다.

홍보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역할을 각자 나누어서 했습니다. 색연필로 종이 꾸미기, 풀칠하기, 가위질하기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홍보지를 만드니 각자 원하는 모양대로 다양하고 개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만드니 재잘재잘 이야기 나눕니다. 서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붙임쪽지와 펜을 넣을 상자도 만들었습니다. 상자 만드는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김경옥님은 금방 익히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태승2차아파트는 4학년 민준과 7살 동생 채윤이 기획단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모두 만들기 어렵거나, 아이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작업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만큼 돕고 대신해 주더라도 아이들의 일이게 했습니다.

대신해 준다면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복지요결」 부탁하기

“선생님이 상자 접기 해주시니까 그러면 붙이는 건 꼭 제가 할게요.”

부족한 만큼만 돕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민준이의 모습이 참 예쁩니다.

처음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입니다. 합동연수에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어려웠는데 첫 모임을 하니 감이 쉽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홍보지 팸탈

홍보지 붙이기

6명의 기획단이 함께 아파트를 돌며 홍보지를 붙였습니다. 서로 역할과 순서를 나누어가면서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붙였으면 좋겠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얼마나 기뻐할지 궁금해요.”

“이 활동 매우 재밌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언제 해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고 직접 준비하니 재미있고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아파트마다 자신이 사는 동은 자신이 만든 홍보지를 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강기를 탈 때마다 홍보지를 보며 부듯해하겠지요.

하민은 자신이 붙였던 동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30분 사이에 벌써 몇 개의 붙임쪽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필적 뛰며 좋아했습니다.

혜민은 늦은 밤에 홍보지에 붙은 붙임쪽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뿌듯했을까요?

홍보지를 붙이다가 여러 이웃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가정의 달 생활복지운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활동인지 잘 이해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민 기획단을 모집해서 직접 준비하고 홍보지를 붙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착해요~.”

한 어르신이 아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것보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어른이 칭찬하니 아이들에게도 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선생님, 근데 승강기 안에 붙이면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못쓰는데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승강기가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1층에 사는 주민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와 의논했습니다. 1층에 사는 주민은 현관문에 승강기 안에 생활복지운동을 하고 있음을 붙임쪽지에 써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태승아파트는 단지가 적고 1층에 사는 사람이 적어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1층에 사는 사람이 많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홍보지를 붙이는 e-편한세상아파트 기획단



태승아파트 기획단 채윤과 민준

홍보지 수거하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승강기마다 많은 이웃이 써준 붙임쪽지를 기대했습니다. 이미 기획단이 집을 오갈 때마다 승강기를 자세히 살피며 많은 붙임쪽지가 붙어 있다고 귀땀해주셨습니다.

11단지 아파트 김경옥 님과 1105동 1층에서 만났습니다. 김경옥 님은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홍보지 하나를 떼어 들고 계셨습니다. 다른 승강기를 둘러봤습니다. 승강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동시에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와~”

김경옥 님께서는 제 옆에서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경옥 님은 승강기를 자주 살피셨습니다. 종이와 펜이 동나지는 않았는지, 감사편지가 얼마나 빼곡히 적혀 있는지 늘 전화로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김경옥 님이 홍보지를 조심스레 떼어내셨습니다. 품에 소중히 안으셨습니다.



홍보지를 수거하는 소현 서현 서연

12단지 아파트 기획단도 승강기로 향했습니다. 홍보지에 많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붙임쪽지보다 그냥 홍보지에 쓴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분들이 포스트잇을 보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쓰는 게 편하신 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는 너무 다리가 아팠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오늘은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하민이는 무겁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도 다리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이웃이 써주신 포스트잇을 보니 힘이 났을 겁니다.

e-편한세상아파트도 홍보지를 수거했습니다. 붙임 쪽지가 많이 붙여져 있는 승강기를 볼 때마다 어린이 기획단은 놀라 합니다.

“우와~ 선생님! 여기 엄청 많이 붙여져 있어요.”

딩달아 기쁩니다.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뤄준 결과입니다. 승강기로 걸어가는 길에 아이들과 간단히 역할을 나누자 제안했습니다.

제안함과 동시에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하며 똑딱 역할을 나눴습니다. 키가 큰 정연이는 포스터의 높은 부분 떼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 꼼꼼한 아린이는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모으는 역할, �직한 시울이는 자동문과 승강기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신경 써주는 역할, 아파트 단지를 잘 아는 이정이는 아파트 출입키로 문을 열어주는 역할, 아이들 모두 각자 하고 싶은 역할을 맡아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로 출발합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아이들 얼굴은 환하게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승강기 문이 열릴 때마다 홍보지에 붙은 수많은 붙임쪽지에 감동하고 행복해합니

다. 아이들은 승강기마다 붙어 있는 붙임쪽지 글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모두 읽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문구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우리 아파트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책자 만들기

큰 홍보지에 적힌 붙임쪽지를 경비원 아저씨에게 전달합니다. 두고두고 보기 좋도록 A4용지에 붙임쪽지를 붙여서 코팅하기로 했습니다. 펀치로 구멍을 뚫어 동그란 링을 연결해 편하게 넘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단지 아파트. 김경옥 님과 소현이 홍보지에 적힌 감사편지를 오리면, 서현과 서연이 종이에 붙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코팅지에 끼웠습니다. 권대익 선생님께서 코팅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소현과 서현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이 배운 대로 곧잘 따라 했습니다. 종이 끝을 잡고 숨죽여 집중했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아이들이 사무실에서 직접 모두 빌렸습니다.

김경옥 님께서 표지를 꾸며주셨습니다. 볼펜으로 꾸미고 종이를 옷을 접어 붙여주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빈 곳에는 좋은 가사를 적으면 어떨까요? 가사를 조금 바꿔서요. 경비원 아저씨도 좋아할 것 같아요.”

김경옥 님께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노래를 개사했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아침이 되었고, 난 항상 경비 아저씨인 줄만 알았는데 주민들이 가족처럼 생각해주네.’



경비원 아저씨께 드릴 책자를 만든 아이들

12단지 아파트. 아이들이랑 함께 책자를 만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 습니다.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니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자기들이 만든 책자를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정말 꼼꼼히 잘 붙입니다. 공간이 많은 붙 임쪽지가 있다면 잘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심하고 꼼꼼한 아이들입 니다. 작은 손으로 꼼꼼하게 만듭니다.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운 문구가 있었습니다. 헤민이는 경비아저씨가 알 아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면서 새로운 포스트잇에 예쁘게 씩니다. 흑여 나 꾸미고 만들기만 좋아하는 건 아닐지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경비원 아 저씨께 정성껏 드릴 마음으로 책자를 만들고 있던 겁니다. 경비원 아저씨 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쁩니다.

책자를 만들며 이야기꽃이 폈습니다. 그림을 색칠할 뿐인데 뭐가 그리 재 밋는지 아이들이 웃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에 가득합니다. 웃 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이들이 웃으니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됩니 다. 이제 첫 모임에 돌았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편한세상 아파트 책자 표지 만드는 아린

경비원 아저씨 만나기

일주일 동안 아파트 이웃들이 경비원 아저씨께 쓴 편지를 예쁘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미리 의논해서 어떻게 경비원 아저씨께 전달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이제 이 책자를 경비원 아저씨께 전달하며 마음을 표현합니다.

11단지 아파트. 서현과 지선이 경비원 아저씨께 전달했습니다. 초소가 2곳이라 각각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미리 예행연습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1단지에 사는 주민인데요. 경비원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책을 만들어왔어요.”

“승강기를 오가면서 다 봤어요. 오늘 이제 주러 온 거니?”

좋은 일 했다고, 수고했다고 아이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책자를 받은 경비원 아저씨의 표정이 환합니다.

12단지 아파트. 책자를 3개 만들었습니다. 경비반장님께 하나 드리고 초 소 2곳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경비반장님께서 초소를 직접 안내해주셨 습니다.

혜민이와 가현이는 10년 넘게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이쪽은 처음 온다 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동네 곳곳을 다닌 덕분입니다. 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살면서 관리사무소도 처음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 슨 건물인지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 이 마을과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반장님 일이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뭐가 힘들어~ 나는 일을 해서 행복해. 내가 이 나이까지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계속 이렇게 즐겁게 일하고 싶어.”

뭉클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경비반장님의 표정이 밝습니다. 정말 이 일 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동네를 아끼시는 분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께 책자를 드린 12단지 아파트 기획단

e-편한세상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책자를 전달하는 일도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아린이가 손을 제일 먼저 번쩍 들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께 대표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모두 아린이를 응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책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이걸 다 만든 거야~ 고마워요~”

아이들 눈을 맞춰주시며 칭찬해주셨습니다. 아이들 모두 기쁜 표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경비원 반장 아저씨가 계시니 그곳으로 가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아파트 정문은 5명의 경비원 아저씨께서 하루하루 돌아가며 업무를 보시는 곳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께 인사드리니 경비실로 안내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이번 주 2주 동안 생활복지운동을 진행했어요. 수고해 주시는 경비원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활동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담은 붙임쪽지들을 모아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어요.”

“이야 너희들 언제 이런 걸 만들었어~ 너희들 덕분에 아저씨들이 힘 날 것 같다. 고마워!”



경비원 아저씨께 책자를 전달한 e-편한세상 아파트 기획단

태승2차 아파트. 민준이가 책자를 드렸습니다. 내용도 잘 설명했습니다.

“다들 좋은 말만 써줬네~”

경비원 아저씨도 책자를 자세히 살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아저씨가 평소에 냉장고에 두고 먹는 초콜릿인데 너희들 줘야겠네.”

냉장고에서 초콜릿도 꺼내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챙기는 어른의 모습이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고 인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생각해주는 입주자와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하신지, 엄마 말을 잘 들으라며 덕담을 해주시며 당신의 어머니를 떠오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진지하게 반겨주셨고 아이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을 반겨주신 태승2차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마무리

이렇게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이 끝이 났습니다. 4회기로 모임을 마쳤지만 조금 더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단과 약속한 만남이 끝났고 아이들도 여러 일정으로 더 모이기가 어려워 실습생이 직접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파트 주민이라면, 오며 가며 보던 홍보지가 어느 날 없어졌을 때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까? 붙임 쪽지를 적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획단이 경비원 아저씨께 어떻게 전달했는지 작은 홍보지를 만들어 다시 승강기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홍보지에는 주민 기획단의 이름을 넣기로 했습니다. 기획단이 이룬 일이니 의도적으로 주민에게 감사와 공이 돌아가게 합니다. 주민 기획단의 이름을 넣는 일도 한 명씩 통화해서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지난주에 생활복지운동 끝났잖아. 홍보지에 받은 붙임쪽지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종이에 경비원 아저씨께 감사 인사한 사진을 담아서 승강기에 붙이려 해. 이 일을 선생님이 대신해도 괜찮을까?”

“네.”

“응, 고마워~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민 기획단이 이루었잖아. 서연이 이름 포함해서 기획단 모두의 이름을 종이에 넣고 싶은데 어때?”

“네, 아주 좋아요!”

마무리 홍보지 만드는 일도 기획단과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께 감사인사 전하기

우리 이웃들이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기획부터 감사 쪽지 전달하기까지, 모두 우리 이웃
김경욱 님, 방서현, 서지선, 윤소현, 한서연이 이루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의미와 성과 1 | 기획단 간의 관계

12단지 아파트 기획단 6학년 헤민이와 하은이는 같은 반입니다. 한 학기가 지났지만 코로나19로 학교에 자주 가지 않으니 친하지 않습니다. 생활복지운동으로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장난도 칩니다. 서로 가위와 풀도 빌려주며 만들기도 도와줍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니 자주 마주칠 겁니다.

e-편한세상 아파트 기획단은 적극적입니다. 만날 때마다 주어진 역할을 서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회의하며 조정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고, 서로를 관찰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서로를 응원하고 챙겨줍니다.

“아린이~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부담가지지 말고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알겠지~?”

경비원 아저씨께 감사 인사하는 역할을 맡은 아린이를 언니들이 마음껏 축복하고 응원해줬습니다.

11단지 아파트에서 김경옥 님은 손재주가 좋은 주부입니다. 홍보지를 만들 때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생활복지운동이지만 마을 선생님 활동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내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기획단 아이 한 명을 만났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인사하니 그 친구도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홍보지를 만들어주어 고맙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빨리 가야 해서

못했어요.”

생활복지운동을 하며 김경옥님과 그 아이는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눈인사 정도만이라도 하는 사이라면 '이웃'입니다. 때때로 차 한잔 나누거나, 내 반찬 만든 김에 하나 더 해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지관 사회사업가의 정체성과 처지와 역량을 살렸을 때, 이웃을 이 정도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인사하며 지내는 이가 많아지게 추천하고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지역복지 공부노트」 누가 이웃일까요?

의미와 성과 2 | 경비원 아저씨·관리사무소와 관계

이번 기회로 아이들과 경비원 아저씨와 관계가 쌓였습니다. 경비원분들이 교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경비원분을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만난 경비원 아저씨 세 분은 아이들이 기억할 겁니다. 다음에 마주쳤을 때 서로 인사하고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저 여기 택배 받으러 자주 가요.”

“그래? 경비원 아저씨들이 하은이 택배를 받아줘서 그동안 편했겠다. 앞으로 더 감사 인사 잘하자.”

경비원 아저씨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와 관계도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2번 이상 관리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나와 맞이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칭찬해주셨습니다.

의미와 성과 3 | 경비원 아저씨의 눈물, 그리고 이웃의 변화

태승2차 아파트 마지막 날, 경비원 아저씨께 감사 책자를 전해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획단 민준 채운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경비원 아저씨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잘 맞이 해주셨는지 전했습니다.

“승강기에 붙은 홍보지와 주민들이 써주신 편지를 보았어요. 아직 세상이 살 만하구나, 우리 동네도 따뜻한 곳이구나, 생각했어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최근에 자주 바뀌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경비원 아저씨께 더 관심을 두고 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민준 채운 어머니와 통화하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자주 바뀌는 상황, 경비원 아저씨를 힘들게 하는 일부 주민이 있는 상황. 이 일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한과 책임, 기회비용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 복지, 강점으로 돕고 싶습니다.

생활복지운동이 끝나고 3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습 마지막 날, 동네를 다니며 마을 인사를 했습니다. 태승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에게 잘해줘요. 저에게 인사하는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나눠주시는 분도 많아요.”

생활복지운동의 힘과 변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미와 성과 4 | 부모님의 문자

활동이 끝날 때마다 기획단 아이들 부모님께 사진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아이가 어떤 활동을 잘했는지 칭찬했습니다. 이 활동으로 집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고 우회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녀가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을 전하는 생활 복지운동에 참여하니 부모님도 경비원 아저씨를 더 귀하게 만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요즘 이슈화되는 문제에 이웃과 함께 나누고 행동했다는 것에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아이들 이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연 이정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경비 아저씨들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선생님들 덕분에 다들 경비원분들께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마음 따뜻한 생각을 할 기회가 되었겠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좋은 일 하니 뿌듯하고 스스로가 좋대요. 고생 많으셨어요. 서울 아린 어머니

양정아 선생님, 장문의 글 고마워요. 아이들이 생활복지운동 활동을 참 좋아해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해주는지, 아이들 이야기에 얼마나 경청하는지, 칭찬 또한 신경 써서 잘하니 그렇겠다 싶어요. 서울 아린 어머니

부모님의 문자에서 아이들이 이 활동을 얼마나 즐겁게 참여했는지, 이 활동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실습생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의미와 성과 5 | 실습생과 기획단의 관계

아이들과의 생활복지운동 마지막 모임이 아쉽습니다.

하민이는 모임을 빨리 끝내고 놀러 가자고 말합니다. 어느새 많이 정들었나 봅니다. 헤민이는 제가 복지관에 계속 있을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계속 복지관에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이번 방학 끝나면 집에 돌아가야지~ 선생님은 공부하러 온 거야.”

“헐~ 안 되는데. 선생님 2년만 더 있다가 가요! 아니요 1년도 괜찮아요. 1년만 더하고 가요~ 네?”

“나도 헤민이랑 떨어지기 아쉬워~ 선생님 감동이다.”

태승2차 아파트는 마지막 모임 때 실습생과 민준 채운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 집 근처로 취직하세요. 그래야 매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을 계속 보고 싶어요.”

민준의 편지 내용입니다.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계속 보고 싶다는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민준의 기억에 오래 남는 대학생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이룬 것 같다 뿌듯합니다.

실습생과 사업을 준비하며 기획단 아이들의 강점을 바라보고 지지 격려 응원 칭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습생과 기획단 아이들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활동 기간 아이들에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⁹⁾이 되었습니다.

9) 실습생과 「사회복지사 책모임 북스북스」 책을 공부했습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만나며 믿고 응원하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확인했습니다.

기대와 소망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 전하기 생활복지운동. 풍성하게 이루었습니다. 감동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생활복지운동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생활복지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쌓이니 실무자도 이 사업을 확신하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곁에있기팀 전체가 가정의달 생활복지운동을 먼저 실천한 덕분에 실습생도 조금 더 수월하게 실천했습니다. 더하여 아파트마다 주민 기획단을 모집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복지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다면, 방화2동 더 많은 아파트와 함께 생활복지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림필유 아파트’와 함께 하려 시도했으나 짧은 실습 기간에 함께할 주민 기획단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꾸준히 동네를 다니며 함께할만한 이웃을 찾고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때의 핵심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다면, 다른 주제로 생활복지운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와 음식 배달기사가 많이 애쓴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 소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래층 이웃에게 작은 엽서를 전하는 생활복지운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실습생과 생활복지운동을 함께했습니다. 조직에서 온전히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여러 실무자가 실습생에게 여러 정보와 조언을 나누어주었습니다. 함께할만한 주민 기획단도 소개하고 연결해주었습니다. 함께한 덕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 4개 단지 아파트 실습생 기록 모음

11단지 아파트 | 안예영, 김선재 실습생

준비 - 기획단 모집과 홍보지 만들기 <https://banghwa11.tistory.com/964>

진행 - 책자 만들고 전달하기 <https://banghwa11.tistory.com/996>

12단지 아파트 | 김민주, 조새봄 실습생

준비 - 기획단 모집과 홍보지 만들기 <https://banghwa11.tistory.com/965>

진행 - 책자 만들고 전달하기 <https://banghwa11.tistory.com/999>

e-편한세상 아파트 | 양정아, 신희선 실습생

준비 - 기획단 모집과 홍보지 만들기 <https://banghwa11.tistory.com/966>

진행 - 책자 만들고 전달하기 <https://banghwa11.tistory.com/1000>

태승2차 아파트 | 이예지 실습생

준비 - 기획단 모집과 홍보지 만들기 <https://banghwa11.tistory.com/967>

진행 - 책자 만들고 전달하기 <https://banghwa11.tistory.com/1001>

개별사업

어린이 여름 여행 | 조세복 권대의

참여자 모집

어린이 여름 여행은 방학마다 이루어지는 단기사회사업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여행을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니다. 여행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됩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도 여행의 유익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시작 전부터 여행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송화초등학교 영광 서광 어머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활동을 많이 알리셨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는데 이미 참여자가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공평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수강 신청을 도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여름방학 사업을 홍보하고 정해진 일시에 선착순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사업 가운데 어린이 여행이 제일 먼저 마감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함께할 수 있는 인원인 9명의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에게 한 명씩 전화했습니다. 여름 활동의 원칙과 내용을 다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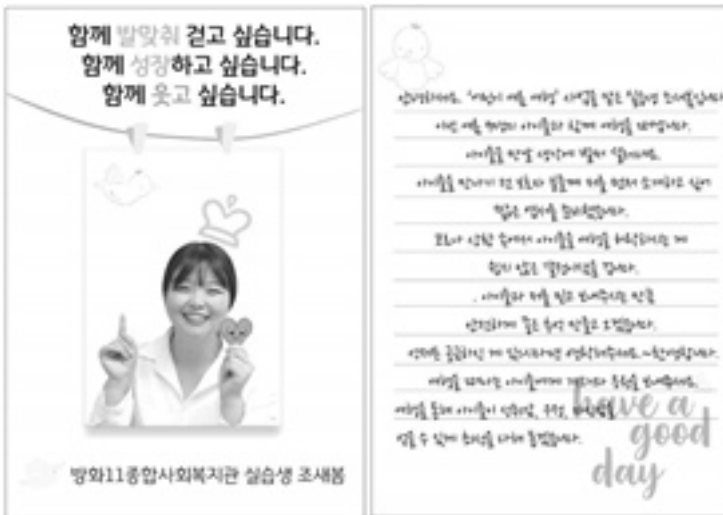
이번 여행은 코로나19로 인해 1박 2일 여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야외활동 중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여행이 인기가 많으니 2박 3일 30여 명의 아이와 섬 여행을 계획했는데 모두 취소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코로나19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 주로 있던 아이들에게 작은 해방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개별 만남 준비하기

첫 만남 전에 개별 만남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이 공식모임이지만 그 전에 부모님과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인사하고 사업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9명이 되고 회의시간은 짧으니 미리 안전을 이야기 해서 첫 회의를 잘 이루기로 했습니다.

조새봄 선생님은 먼저 오랜 시간을 궁리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복지관, 집, 공원 등 다양한 곳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되도록 복지관보다 '당사자의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을 잘 준비하기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실습생 소개와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하니 만남이 더 깊었습니다. 다수가 있을 때보다 개별적인 만나니 편안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포용하고 인사했습니다.



첫 만남

첫 만남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온 서현과 서연에게 지난 여행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미리 모여 지난 여행 발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PPT를 정리했습니다. 자기소개 할 때 사용할 종이도 함께 자르며 준비했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개하며 가까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서현과 서연이 발표하니 서로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발표하는 사람에게는 책임감이, 듣는 사람에게는 여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도 재밌게 했습니다. 서로 궁금한 질문을 정리해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아기돼지 삼형제, 콩쥐 팥쥐,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를 적은 종이를 뽑아 짝공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소개했습니다. 이후 다함께 모여서 짝공을 대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강희: 좋아하는 게 뭐야?

은찬: 이름이 뭐야?

은서: 혈액형이 뭐야?

예성: 여행 좋아해?

서광: 이번 여행 어디 가고 싶어?

한빈: 뭘 좋아해?

은선: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서연: 너의 성격은 어때?

여행의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로 1박 2일 여행은 하지 못하지만 2~3번 정도 당일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적고 야외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9명의 아이가 복지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복지관에 생기가 듭니다.

여행지 정하기

어디로 여행갈지 의논했습니다. 9명이 모인 만큼 산, 계곡, 갯벌 등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갯벌 의견이 많아 장봉도, 석모도, 무의도 등의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 휴가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습니다. 물놀이 외에 가벼운 등산 위주로 제안했습니다. 남자 아이는 등산을 좋아하지만 여자 아이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 계속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9명이 모일 수 있는 날과 시간이 적습니다. 아이들을 따로 만나 의견을 주고 받으니 수월합니다.

다음 회의는 세부 일정을 정합니다. 강화도의 여러 산 가운데 어디로 갈지 의논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팽배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도록 실습생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상봉산으로 결정했습니다.

역할 정하기

여행을 준비하며 어떤 규칙과 역할이 필요한지 회의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전부를 신경 쓰기 힘들 수도 있으니, 힘든 친구를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친구를 생각하는 은서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돈 계산 담당, 돈 정리 담당, 사진 담당, 교통 담당, 일정 담당, 리더, 헬퍼, 먹거리 담당 9명의 아이가 참여하기 때문에 9개의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리더 역할을 누가 할지 투표했습니다. 은서가 많은 투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리더 안하고 싶어요. 은선이가 속상할 거 같아서요.”

은서는 리더를 하고 싶어 하는 은선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친구를 생각 하는 은서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여행을 3번을 하니 서로 번갈아 가면 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소박한 여행

“선생님 우리 5만 원씩 가져와서 푸짐하게 먹어요. 9명이면 45만 원이에요.”

당일 여행인데 비용이 너무 큽니다. 용돈을 받기가 부담스러운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여행이니 부모님께 쉽게 용돈을 받아쓰기보다 소박하게 다녀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많이 다녀온 서현이 먼저 친구들에게 소박한 여행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 잘 이해했습니다.

교통팀

한번 서연 서현이 교통 담당입니다. 핸드폰으로 지도를 켜습니다. 복지관에서 민머루 해변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민머루 해변까지 가는 데만 3시간이 넘어요. 자가용은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 대중교통이 어려우니 차를 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복지관 차가 있으나 아이들이 직접 신청하고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관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허락을 맡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생각

했습니다. 종이에 써서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관장님께서 마스크 사용을 잘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며 허락해주셨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이 아니고 차로 가게 되었어~ 왕복 5시간을 안 가도 돼.” 신이 난 서연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차량 운전도 권대익 선생님께 정식으로 부탁했습니다. 이후 대여신청서도 한빈이가 직접 신청했습니다.

먹거리팀

“애들아, 꽃게탕 좋아해?”

“아니 난 꽃게 안 좋아해.”

“아 그래? 그러면 치킨은?”

“치킨은 좋아”

먹거리팀 은찬 은서가 방마다 분주하게 다니며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궁리했습니다.

“선생님 간식 꾸러미를 만들 거예요. 거기 안에 마이쥬 음료수 작은 과자 등을 챙겨서 넣어주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은서가 간식 꾸러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배고플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꾸러미를 챙겨주면 친구들이 좋아할 거 같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은서를 칭찬합니다.

식사로는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꽃게는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백반집은 가격이 부담됩니다. 소박하게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고 설명한 내용을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부담되지 않을 가격의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놀이팁

예성 은선 서광이 놀이팁입니다.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 안전한 놀이를 생각했습니다. ‘피구’, ‘좀비 놀이’, ‘다리 찢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구에 필요한 공은 서광이가, 좀비 놀이에 필요한 안대는 예성이가 가져옵니다. 사회는 예성 은선 서광이의 부탁으로 은서가 하기로 했습니다.

격려 글 받기

여행을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격려의 글을 받습니다. 은선의 격려의 글 받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은선은 첫째 언니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격려의 글이 생소할 수도 있어 실습생이 먼저 전화 드렸습니다.

“이번 여행을 떠나기 전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격려 글을 받아요. 은선이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첫째 언니라서 언니에게 받고 싶다고 하네요.”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은선에게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첫 번째 여행 | 서대문 안산자락길

오늘은 기다리던 첫 번째 여행 날입니다. 기나긴 장마가 이날도 큰 비가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전날 부모님과 아이들과 의논했습니다. 석모도는 다음에 가기로 했습니다.

대안으로 한강, 서울식물원, 안산자락길 등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의논했습니다. 한강도 장마로 침수되어 출입이 어렵고, 서울식물원은 자주 다녀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안산자락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을 준비를 해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강희를 제외하고 8명이 모였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와 다르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복지관 차를 그대로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안산자락길을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간식도 나눠 먹으며 갔습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안산자락길 초입은 경사가 있습니다. 천천히 올랐습니다.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체력이 좋은 한빈 예성 서광이 앞서 걸었습니다. 곤충이 보이면 가던 길에 멈춰 바라보고 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걷다보니 멀리 인왕산과 북한산도 보입니다.

“선생님 비가 안 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석모도 갔어도 좋았을 거 같아요.”

코로나19에 더해 기나긴 장마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귀합니다.

“선생님 저, 리더 안 하고 구급대원 할래요.”

힘들어하는 친구는 서로 도왔습니다. 은서는 직접 만든 모기퇴치제와 버물리로 친구들에게 모두 뿌려주었습니다.



안산자락길 전망대에서

3시간을 걸었습니다. 힘들지만 주위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서광이가 나무와 곤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넓은 공터에서 쉬면서 가위바위보, 다리짚기 놀이를 했습니다. 약수터에서 물도 먹고, 계곡에서 잠시 물놀이도 했습니다. 자락길을 모두 걷고 내려가는 길, 그제야 비가 내립니다. 땀으로 젖은 몸을 시원한 비로 씻으며 걸었습니다. 안산 자락길에서 잘 놀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 준비 회의

다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가기로 한 금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탐방, 개화산 산책, 요리하기, 물총 놀이, 보드게임 등의 활동을 두고 아이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하고 싶

은 활동을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요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뉴는 김치전과 떡볶이입니다. 함께 검색하고 재료도 알아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건 나누어서 가져오기로 하고 사야 할 건 돈을 모아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떡, 어묵, 치즈, 식용유, 음료수, 오징어는 함께 돈을 모아 사기로 합니다. 회비는 4천 원입니다.

“요리를 도와주실 어른이 있으면 부탁드려볼까?”

아이들은 온전히 스스로 요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른이 있으면 자신의 몫이 줄어들어 이번에는 우리끼리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어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여러 번 제안했으나 아이들의 의견은 분명합니다. 고심 끝에 아이들 의견을 생각해서 온전히 우리 힘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떡볶이와 부침개 잔치가 연린 날

오늘은 함께 요리하는 날입니다. 각자 가져온 회비 4,000원을 모았습니다. 서광이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서광과 한빈은 떡볶이팀, 서연 서현 예성은 부침개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요리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떡 어묵 치즈 식용유는 마트에서 삽니다. 오징어는 한빈 예성 서광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서 사 오기로 했습니다. 오징어를 잘 사 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만 원에 4마리로 금세 사 왔습니다.

“예성아, 정말 가지런히 잘 썰었다. 집에서 요리 자주 해 먹어?”

“자주는 아니고요.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칼 솜씨가 좋은 여성을 다른 친구들이 감탄하며 칭찬합니다. 김치 자르는 건 서광과 한빈, 반죽은 서연과 서현이 했습니다. 재료가 많아 물을 넣으니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아 재료를 더 넣으니 재료가 많습니다. 모든 재료를 넣었습니다. 양이 많으니 사무실 선생님, 중학생 여행팀, 고등학생 여행팀 모두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많이 부어 ~ 가득 부어.”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합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맛이 좋습니다. 속 재료가 듬뿍 들어갔습니다. 떡볶이팀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잘 만들었다며 서로 칭찬했습니다. 부침개 하나에 큰 환호성이 3층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직접 음식을 만드니깐 재밌어요.”

서로 협동하며 스스로 했기 때문에 더 즐겁고 맛있게 느꼈을 겁니다. 떡볶이도 맛이 좋습니다. 실습 동료 신희선 선생님이 떡볶이팀을 도왔습니다. 밖에서 파는 떡볶이보다 맛도 좋고 양도 넉넉합니다.

“이거 저희가 만든 떡볶이와 부침개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직접 만든 거야? 고마워 잘 먹을게~”

은선이가 대표로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 가장 은선이 답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니 아이들의 밝게 웃습니다.

뒷정리도 함께했습니다. 학원에 가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 서현이가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했습니다.



떡볶이와 부침개

수료식 준비

마지막 세 번째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 바로 수료식을 합니다. 다른 날은 가족 여행이 있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료식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개인 일정이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신 서연과 서현이 수료식 발표와 PPT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PPT에 넣을 사진을 골랐습니다. 서연과 서현은 배드민턴 활동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재촉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화났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수료식 준비는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연아, 선생님이 너에게 화를 낸 거 같아서.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늘 열심히 활동해주는 서연 있어서 너무 고마워. 서연이
가 가끔가다 해주는 말에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 고마워.”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저에게 말해주실 때 감동 받아요.”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이 잘 이해해줬습니다. 서연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제가 울먹거리니 서현도 함께 울먹였습니다. 짧은 시간
이지만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별
써 아쉬움이 큼니다.

석모도 여행 전날

내일이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여행입니다. 비 소식으로 미루었던 석모도
에 갑니다. 간식 담당 은서를 만났습니다. 사야할 간식을 마트에서 샀습
니다.

“파란색 음료수는 2개, 빨간색은 음료수는 7개.”

“왜 파란색은 2개이고, 빨간색은 7개야?”

“제가 애들한테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다 물어봤어요.”

친구들을 생각해서 음료수 맛도 미리 한명 씩 물어봤다는 은서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수료식 준비도 부탁했습니다. 사회자를 할 수 있는지 물으니 다른 아이들
이 바쁘니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간식 꾸러미도 포장하고 사회자 대본
도 만들었습니다.

“은서야, 우리 부모님들이 오시니깐 장기자랑도 해야 할 거 같은데 은서 생각은 어때?”

“애들은 싫어할 거 같지만,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장기자랑은 어떤 게 있을까?”

“음... 선생님 수화 어때요?”

“수화? 좋은 생각이다. 민주 선생님이 수화할 줄 아는데 우리 가서 같이 부탁해볼까?”

은서가 김민주 선생님께 수화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묻고 부탁했습니다. 함께 노래도 고르고 수화도 배웠습니다. 오후에 은서가 친구들에게 수화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함께 장기자랑으로 수화를 하자고 하니 안 하겠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은서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모든 아이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수료식 준비도 했습니다. 홍보지도 만들고 PPT도 완성했습니다.

석모도 여행

아침 일찍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여행 아침의 설렘, 기분 좋은 연락입니다.

이웃 주민이신 이병률 회장님께서 운전해주셨습니다. 아이들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크게 회장님께 인사했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오랜만에 해가 났습니다. 상봉산에 가기로 했는데 날이 더우니 바다로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어린이 여행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도 잡고 새우도 잡으면서 놀았습니다. 썰물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갯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먼바다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주차장 옆 정자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새벽에 출발한 자전거 여행팀까지 다함께 바다에서 놀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으니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모두가 물에 들어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어린이 여행 수료식

석모도 여행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수료식을 합니다. 다른 날에 수료식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가족 여행과 여러 일정으로

석모도 여행 다녀와서 수료식이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석모도에서 신나게 논 덕분인지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여유있게 시작했습니다. 실습 동료들이 도와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은서가 사회자입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옆에서 도와주니 스스로 잘했습니다. 첫 순서는 서연과 서현의 발표입니다. 준비할 때는 부끄러워했지만 실전에서 잘합니다. 부끄러워서 하기 싫어했던 장기자랑도 멋지게 이루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박수도 많이 쳐주셨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손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9명의 아이를 생각하며 정성껏 쓴 편지입니다. 제 진심이 잘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과 포옹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료식 단체 사진

중학생 여름 여행 | 이예지 권대의

참여자 모집

단기사회사업으로 청소년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다인리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작년까지 어린이 여행을 여러 번 함께했는데 이제 중학생 1학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중학생 청소년과 함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인리는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꿈자람책놀이터 네이버 밴드의 홍보 글을 보고 중1 남학생 3명이 신청했습니다. 모두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학부모 어머니께서 신청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여행을 기획하고 떠나는 여행의 의미를 잘 알아주셨습니다.

윤선이도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어린이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중2 고학년임에도 신청했습니다. 혼자 여학생이라 다른 친구가 없어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은 참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4명의 청소년이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수의 아이와 함께합니다.

개별 만남

중학생 여행은 이예지 실습생이 담당합니다. 첫 모임 전에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윤선이를 먼저 만났습니다.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시간, 윤선이와 더 많이 대화하고 싶었으나 처음이라 짧은 문답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윤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살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칭찬과 응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생 5명과 떠나는
신나는 여행**



안녕하세요?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학생 여행을 맡은 실습생 이예지입니다.
이번에 5명의 학생들과 무박 1일로 여행을 가려 합니다.

이번 여행에 있어 핵심으로 하는 단어 3가지를 말씀 드리려 합니다.

1. 자연
바다가 보이는 산이나 섬으로 떠나며 아이들이 자연을 누리며 놀 수 있는 방법을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2. 스스로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어디로 여행을 갈지, 어떻게 갈지, 무엇을 할지 스스로 의논하여 정합니다.

3. 관계
아이들이 이웃주민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도 많은 지지와 격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예지 010-3349-2285
복지관 02-2661-0670

개별 만남 때 나를 소개한 정보지

한명렬, 서재덕, 전서운. 방화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서로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부모님과 먼저 통화했습니다. 중학생 여행 활동을 자세히 설명하고 인사했습니다.

명렬과 재덕은 함께 만났습니다. 방학에도 여러 학원에 다니고 숙제도 많습니다. 이번 여행이 아이들에게 작은 쉼과 놀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운은 어머니께서 집에 초대해주셨습니다. 필요하면 집에서도 회의해도 된다면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별 만남이 유익합니다. 당사자의 곳에 찾아가서 가족과 당사자에게 인사하니 첫 만남과 관계가 생겼습니다. 엽서로 나를 소개하니 여행의 목적과 과정을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전에 개별 만남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첫 회의

첫 회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입니다. 개별 만남 때 미리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작은 파우치에 물건을 넣고 하나씩 뽑아 누구의 것인지 유추하고 물건에 자신을 비유하여 소개했습니다. 재덕은 인 천공항에서 노동자를 위해 사인을 하면 연필을 준다고 해서 서명을 하고 받았습니다. 자신을 '뭘을 준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자기소개입니다. 다음에는 단기사회사업을 하면 추억과 낭만을 주겠다고 말해야겠습니다.

함께 놀이를 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놀이를 생각해왔습니다. 매운 것 먹고 버티기, 허벅지 찌름, 끝말잇기, 팔찌름입니다. 허벅지 찌름은 체격이 좋고 농구를 좋아하는 윤선이 가져온 놀이입니다. 몸을 쓰며 놀이를 하니 재밌고 금방 친해졌습니다.

규칙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무엇을 지키지 정했습니다. 나쁜 말 하지 않고 고운말 쓰기로 했습니다. 회의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이끄는 사람 말을 잘 듣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입니다. 제가 따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잘 지키며 활동하고 싶습니다.

팀 이름 정하기

먼저 팀 이름을 정했습니다. '중학생 여행 준비단' 보다 우리 모임 만의 이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찾았습니다. 치킨 콜라 고양이 라면 치즈케이크 등 여러 음식 가운데 버블티를 모두가 좋아합니다.

우리 팀이름을 ‘버블팀’으로 정했습니다. 명렬이가 종이에 우리 팀 이름을 적었습니다.

“명렬이는 글씨를 예쁘게 쓰고 이렇게 색칠하면서 꾸미는 것 진짜 잘하는구나?”

“아 애 원래 이런 거 잘해요.”

제가 명렬이를 칭찬했고 서윤이가 칭찬을 거들었습니다. 무심하게 말했지만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명렬이도 흐린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행 날짜와 횟수 정하기

코로나19로 당일 여행을 합니다. 1박 2일, 2박 3일 대신에 당일 여행을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여행을 갈지 의논했습니다. 학원을 빠지고 싶어서 학원 가는 요일에 여행을 가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일정과 의견이 달라서 공통으로 원하는 날 가운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복지관의 상황과 일정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 곧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과 형편,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권한과 책임, 당사자나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따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은 그저 묻기만 하지 않고 또한 의논합니다. 「복지요결」 53쪽

내일 날짜를 최종 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일정과 상황을 살펴서 아이들과 다시 의논해야겠습니다.

여행지 정하기



지도를 펼쳐 놓고 여행지를 정하는 모습

우리 여행의 핵심 가치, 스스로·자연·관계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잘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DMZ, 울릉도, 놀이공원 등 현실 가능성이 없거나 우리의 가치와 다른 장소는 포기했습니다.

섬, 계곡, 산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적으니 권대의 선생님께 정보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권대의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했고 모임 장소로 모였습니다. 지도에서 당일 여행으로 갈만한 섬과 산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몇가지 후보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 준비

준비 핸드폰에 지도 어플을 설치하고 가까운 지역의 산, 돌레길, 공원 등을 찾았습니다. 윤선이 대중교통과 거리를 살펴보면서 계양산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세 번 가기로 했는데 계곡은 사람이 붐비고 코로나19로 위험할 수 있어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관과 아이들 일정을 살펴서 두 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계양산에서 먹을 음식을 의논했습니다. 닭강정과 김밥으로 정했습니다. 계양산 아래에 있는 전통시장도 알아봤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방신시장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계양산까지 어떻게 갈지 교통수단을 조사했습니다. 윤선은 시간관념이 뚜렷합니다. 일몰 시각, 등산 소요시간, 대중교통 이동시간, 먹거리 사오는 시간을 고려해서 복지관에 3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부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우리 여행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종이에 여행을 설명하는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설명하고 회비 5,000원도 용돈으로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용돈 줘요~”

“이미 용돈 준다고 말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이거 보여주지만 할래요.”

부모님께 진지하게 자신의 활동을 설명하는 일,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라면 복지관에서 회비 가져오라고만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정식으로 부모님께 설명하기를 바랐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부모님께 오늘 어떤 회의를 했는지, 자녀가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좋아지는 구실, 소통하는 구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명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매일 혼만 내는데…. 명렬이의 새로운 모습이네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좋은 추억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여행 일정 변경

기나긴 장마가 계속됩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계양산은 폭우로 입산 통제가 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정이 취소해야 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낮은 산은 튼튼하대요, 개화산은 산사태에 괜찮을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이 그랬어요.”

명렬이 덕분에 계양산을 대신해서 갈 산을 찾았습니다. 다른 날도 비가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비가 오면 토요일로 미루고, 토요일에도 비가 오면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을지 한창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로 자기가 먹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열띤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일정이 바뀌는 것, 다르게 보면 자연스러운 여행의 모습입니다. 날씨와 여러 사정이 따라 여행이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정이 바뀔 때도 잘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내일, 개화산을 갑니다. 아이들도 산책으로 자주 다녀오는 산이니 부담이 적습니다.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며 다녀와야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 개화산 둘레길

개화산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렬 재덕 서운은 자주 왔던 곳입니다. 체력이 좋으니 앞장서서 걷습니다. 윤선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 여행이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사춘기라 그런지 다들 멀리 떨어져서 걷습니다.

윤선이 혼자 여학생입니다. 선배 누나이지만 남학생과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지 궁리합니다. 함께 놀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섬 여행입니다. 섬에서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행 준비

섬여행 준비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 계양산 여행에서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이니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무엇을 할지, 준비물, 시간표, 회비, 음식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도 어플을 꺼내서 근처 섬을 찾았습니다. 소무의도를 찾았습니다. 관련 영상도 보았습니다. 조금 더 질퍽한 해수욕장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석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을 추천했습니다. 모두 여기로 가자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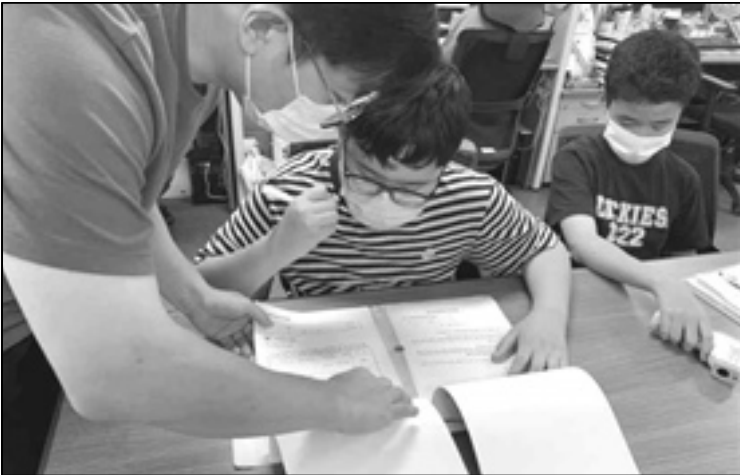
여행에서 무엇을 할까요? 함께 뛰어놀면 어떨지 제안했는데 아이들은 바다에서 나는 생물을 잡으며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산은 개화산을 다녀왔고 윤선이 힘들어하니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에 도착하면 갯벌이에요, 바다예요?”

“그러게~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볼까? 바다 타임이라고 검색해볼래?”

권대익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간조와 만조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윤선이 대표로 간조와 만조 시간표를 확인하고 나머지 친구들에게 이를 설명해줍니다.

교통도 의논했습니다. 석모도는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여쭙니 운전을 하기는 어렵지만 차는 빌려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지관 선생님과 의논한 결과 보험과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복지관 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복지관 차를 직접 빌렸습니다. 대본을 써서 관장님께 왜 차가 필요한지, 언제 써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함께걷기팀에 차량 대여신청서도 아이들이 직접 썼습니다. 운전해주시는 권민지 주임님께 인사드리고 부탁했습니다.



차량 신청서를 쓰는 아이들

“무슨 여행 한 번 가는데 정할 게 이렇게 많냐.”

재덕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그저 실천만 하는 여행을 했더라면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여행지부터 시간표, 부탁하기, 회비까지 모두 재덕과 아이들이 정하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여행계획과 준비물, 시간표 세우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윤선과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점심으로 먹을 라면과 물, 음료수, 간식을 샀습니다. 짐이 무거웠는데 윤선이가 제 짐을 더 들었습니다. 장을 보면서 윤선과 친해졌습니다. 윤선이는 내일 여행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집에 갔습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여행이니 더욱 좋았을 겁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보니 회의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기보다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도 함께 찾으려 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회의시간에 휴대전화 만지지 않기로 규칙 정했잖아~ 그런데 계속 휴대전화가 옆에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자꾸 만지는 것 같아. 우리 휴대전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곳에 휴대전화 모아놓아요.”

의외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이제 안 할게요.’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곁에 둘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모아놓자고 말했습니다. 서로 장소를 정하더니 휴대전화를 쌓아놓았습니다. 아이들과 의논하니 스마트폰의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 민머루 해수욕장



바다에서 단체 사진

아침 일찍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민머루 해수욕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중학생 팀 뿐만 아니라 자전거 여행팀, 어린이 여행팀도 같은 장소입니다.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회계 담당 명렬은 친구들의 회비를 걷었습니다. 남학생들은 바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선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얇은 물에서 조개를 잡으며 놀았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내일 회의를 의논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이야. 내일 뭐 할까?”

“음식 만들어요! 음식이요! 빙수 만들고, 빙수랑 어울리는 음식 같이 만들어요.”

분명 복지관 회의실에 앉아서 음식 만들기를 하자고 했을 때는 모두 싫다

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나와 회의를 하니, 더욱 친해지니 음식 만
들기 하고 싶다 합니다. 자연 속에 있으니 마음이 열리고 조금씩 가까워
졌습니다.

점심은 라면입니다. 컵라면은 맛이 없다며 직접 냄비를 가지고 와서 먹기
로 했습니다. 라면 5개를 순식간에 먹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곱습니다.
주변 편의점에서 라면 3개를 더 사 왔습니다.

점심 먹고 다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자전거 팀이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
서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권대익 선생님도 계시니 더 신나게 놀았습
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부모님께 보내드리니 답장이 왔습니
다.

‘헐.. 자긴 수영 안 한다고 했는데.. 풍덩이네요.’ 명렬 어머니

‘재덕이 여행 가기 전에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그만큼 여행은 즐겁
게 다녀왔니?’ 재덕 어머니

아이들이 이렇게 여행을 기대하는지 몰랐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
만 집에서는 그만큼 여행을 기대한 겁니다. 한참 사춘기 아이답습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반응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여행을 기대하
고 좋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료식 준비

여행을 마쳤습니다. 수료식을 준비합니다. 수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로 음식 나눔은 못 하지만 발표는 그대
로 하며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윤선이 피피티와 초대장으로 만들고, 재
덕이 발표하고, 서운이 사회를 봅니다.

윤선은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인터넷을 참고하며 초대장을 열심히 꾸몄습니다. 재덕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발표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서운은 시간 안에 정해진 일을 잘 마무리합니다. 서로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윤선은 배려 상, 명렬은 열정 상, 재덕은 준비왕 상, 서운은 꼼꼼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요리 활동 준비

한창 수료식 준비로 바쁘지만 아이들은 요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이 수료식이야. 내일 음식 만들기 하려면 오늘 수료식 준비를 다 끝내야 해. 오늘 다 끝낼 수 있겠어?”

“네네 시간 있어요. 저 오늘 늦게까지 시간 돼요. 수료식 준비 오늘 다 하고 내일 음식 만들어요.”

짜파구리와 대야 빙수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대야 빙수에 무엇을 넣을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짜파구리랑 대야 빙수 만들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랑 실습생 선생님들 조금씩 나눠드릴까?”

“왜요?”

재덕이는 항상 그 이유를 묻는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잊었습니다.

“우리도 어린이 여행팀에게 김치부침개 얻어먹었고, 실습생 선생님들이 재덕이 바다에서 재미있게 놀아줬잖아~ 그리고 그날 운전도 해주셨고!”

재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 일, 프로그램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의미 있게 활동하고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윤과 재덕이 대야 빙수에 필요한 재료를 사러 갔고, 은선은 수료식 발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몇 시에 모이죠?”

아이들 기분이 들떴습니다. 부모님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요리 모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윤이가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점잖았던 서윤이 집에 가서 신나게 설명했다는 말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아직 아이들의 마음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행동과 말이 다는 아님을 느낍니다. 어머니와 소통하며 아이들의 진심을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짜파구리와 대야 빙수 만들기

모두가 모였습니다. 먼저 짜파구리를 끓였습니다.

“서윤아, 너 라면 달인이잖아. 물 엄청나게 잘 맞추잖아.”

재덕의 말에 서윤이 전문가처럼 물을 맞췄습니다.

인터넷을 찾아가며 짜파구리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버리고 소스를 함께 비벼줍니다. 여행을 도와주신 선생님께 드리기 위해 3점시를 담았습니다. 직접 사무실에 가서 인사드리고 짜파구리를 드렸습니다.

“저희 중학생 팀이에요. 짜파구리 만들었어요.”

실무자 선생님들과 실습생 선생님들께 음식을 드리고 설명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많이 해보지 않아 부끄럽도 많이 타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 아이들에게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먹을 짜파게티를 만듭니다.

“누나 나 좀 도와줘~ 누나 라면 끓이는 거 잘하잖아.”

강화도 여행을 다녀온 뒤, 남자아이들과 윤선의 대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설거지할 사람 2명, 상 치울 사람 2명 나눠볼까?”

“제가 설거지할게요.”

“서운이 설거지도 할 줄 알아? 엄청 대단한데? 어머니가 무척 대견해 하시겠다.”

“오늘 아침에도 설거지하고 왔어요. 엄마는 제가 설거지하는 거 당연한 거래요.”

맞벌이이신 서운 부모님은 서운이에게 ‘설거지란 모두 다 같이 하는 것’ 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서운은 설거지를 매우 잘하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빙수 만들어요.”

아이들이 기대하던 대야 빙수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합니다. 느낌을 내기 위해 은색 대야에 얼린 우유와 과자들을 넣습니다. 얼린 우유를 손가락으로 부수며 기대되는 마음으로 아이스크림도 넣습니다.



대아빙수 만드는 아이들

“우리 빙수가 엄청 많네~ 실습생 선생님들 초대해서 같이 먹을까?”

“네 좋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윤선이 실습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서로 국자로 빙수를 털어주며 나눠 먹었습니다. 잘 먹겠다는 인사, 맛있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스마트폰 손에서 놓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었는데 사람이 모이니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내일 수료식 못갈 것 같아요. 아빠가 내일 강원도 간대요.”

너무 아쉬워 반복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윤선은 아버지에게 한 번 더 물어본다고 하였으나 이미 가기로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윤선 아버지 계획표에 맞추어 토요일 오전으로 수료식을 정하였고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었지만, 참석하지 못하시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중학생 여행팀 모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윤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수료식 못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영영 못 보는 거예요?”

윤선이 살갑게 말을 거는 편이 아니기에 이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료식을 가지 못함에 아쉬움과 저와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에 속상함이 담겨있었습니다.

“선생님 월, 화는 방화동에 있어! 그때 윤선이 시간 되면 보자!”

중학생 여행팀 수료식



수료식 단체 사진

수료식 날입니다. 발표 PPT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넣을 사진이 있습니다. 어느 사진을 넣을지 궁리했습니다.

“이 사진으로 해요. 이게 명렬이 진짜 표정이예요.”

“진짜 표정이 어떤 표정이야?”

“진짜 즐거워하는 표정이요. 명렬이가 진짜 즐거워할 때 나오는 표정이예요.”

명렬은 민머루 해수욕장에서의 해수욕이 정말 즐거웠나 봅니다. 가장 친한 친구 재덕만 알 수 있는 ‘진짜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렬과 윤선이 오지 않은 2명과 함께하는 조출한 수료식 준비였지만 감동이 넘치는 수료식을 기대합니다.

서운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쭉쭉쭉 나갔지만,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본을 읽습니다. 다음 재덕의 발표 순서입니다. 재덕과 함께 대본을 쓸 적에, 사진을 보며 우리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재덕은 사소한 것 하나 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 우리 처음 만난 사진이잖아. 이날 뭐 했는지, 기억나?”

“이날 물건 가져와서 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 있는 게임도 했어요.”

윤선이 만든 PPT로 재덕이 발표를 합니다. 재덕은 직접 쓰고 연습한 만큼 발표를 잘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깜짝 동영상도 준비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받은 뒤, 권대익 선생님이 편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듯 동영상을 본체만체하였지만,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자신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축스러운 모양입니다. 무뎡

똑한 아이들이기에 큰 반응은 없었지만 놀란 눈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이들에게 줄 편지를 읽습니다. 어린이 여행, 우나개 수료식에서도 울었던 저였지만 우리 수료식에서는 울지 않고 편지를 읽기로 다짐합니다. 정성껏 쓴 편지를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부모님 소감을 들었습니다.

“서운이 예쁜 선생님이랑 같이 여행 간다며 좋아했어요~”

무뚝뚝한 아이들이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전부는 아님을 느낍니다.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오늘 무엇을 했다고 말씀해주시는 그것들을 때마다 집에서는 동생을 괴롭히는 아이이지만, 밖에서는 잘하는 아이구나! 느껴져요.”

세움 받으려고 하던 자리는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세워주십니다. 아이들을 잘 챙겨주었다, 잘 소통하였다 칭찬해주셨습니다.

“부모보다 잘해주시네~”

서운 아버지께서 지나가는 말로 해주신 말입니다. 부모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해줄 수는 없겠지만, 아이의 강점을 알려드리며 가족관계가 더 돈독 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수료식을 마치고 서운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한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하고 행복한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시길 응원해요!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께도 좋은 기억이었으면 하네요! 건강
하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매일 모여 회의하는 시간을 소중하고 행복한 시
간이라고 여겨주셔서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꿈이라고 말하였던 '학
교사회복지사'를 기억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주셨던 어머니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여름 여행 | 양정아 권대의

참여자 모집

고등학생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지난 겨울여행을 함께한 지선과 인애가 참여합니다. 그때 수료식에 참여한 인애의 언니 화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수료식 모습을 보며 다음 방학 때는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3명입니다. 참여자를 더 모집하려 했지만 지선 인애 화해가 3명이 좋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인원이 모이기 힘들고, 당사자가 원하니 3명으로 참여자를 마감했습니다.

첫 만남

공식적인 모임 전에 아이들 한 명씩 따로 만났습니다. 화해와 지선을 먼저 만났고, 다음 날에는 인애를 만났습니다. 서로 어떤 마음으로 이번 여행을 신청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양정아 선생님은 지난겨울 청소년 제주도 여행을 담당한 강연숙 실습생의 학교 후배입니다. 선배에게 방화 11 실습 이야기를 들으며 여름 실습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긴장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첫 만남으로 아이들을 만나니 밝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편안하게 인사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해보고 싶은 여행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점이 보이고 어떻게 사업을 이루어갈지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첫 회의

인애는 동아리 모임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화해와 지선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여행의 핵심을 떠올렸습니다. 스스로, 관계, 자연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떠올렸습니다. 가평, 월미도, 한강, 드넓은 공원, 삼교, 무의도등을 생각했습니다. 비가 올 경우 마곡식물원에 가거나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짧게 하고 여행을 자주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규칙을 정했습니다. 여행 경험이 있는 지선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역할분담도 했습니다. 단체 사진 담당은 양정아 선생님이, PPT 제작과 발표는 지선이가, 영상 편집은 화해가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인애가 오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 모두 모임 아이들

다음 날, 3명이 모두 모여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회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벌칙 대신 예쁜 글귀를 손글씨로 쓰기로 했습니다. 개성이 강한 3명이 모였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격려의 글 받기

지선의 격려의 글 받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지난 여행에서도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격려의 글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정성껏 편지를 써주셨고 용돈을 주셨습니다. 지선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담임 선생님의 마음에 눈물 흘렸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만나는 담임 선생님의 믿음 응원이 지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선이 새롭게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격려의 글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선을 자주 만나는 손혜진 선생님이 이 일을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격려의 글을 받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복지관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선의 부모님께 격려의 글 받는 과정을 잘 돕고 싶습니다.

첫 여행 준비

첫 여행은 8월 4일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도 합니다. 논의 끝에 계양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등산을 싫어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야외활동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습생과 함께 갔었던 계양산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경에 감탄하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계양산을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화해가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할지도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맛집들을 찾아다니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다녀야 할까요?”

“아니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짠 곳을 찾아다니세요.”

“하나만 사서 나눠 먹어요.”

“홍정해서 할인을 받아요.”

“맞아요. 우리 여행은 소박하게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최대한 돈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여행가요.”

당일 여행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부담 없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여행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미 아이들도 소박한 여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양산을 오르며 소박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자에서 쉬면서 보드 게임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물도 궁리했습니다. 개인 간식, 편한 옷, 물, 손수건, 약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마스크가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 하나 더 챙기기로 했습니다.

비가 올 경우는 복지관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계양산 여행 취소

여행 전날입니다.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없는 날이라 온라인 회의를 했습니다. 준비했던 우천 활동으로 복지관 공유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김밥 떡볶이 순대 라면을 이야기했습니다. 4명이 먹기에는 많아 김밥 하나만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재료를 살 때 돈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선생님과 이 부분은 함께 의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재료는 가져오고 필요한 돈은 조금씩 나누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꼬마 김밥 만들기

오늘은 요리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지선이는 몸이 아파서 오지 못했습니다. 세 명이라 꼬마 김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애는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언니를 생각해서 다양한 김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함께 장을 봤습니다. 인애가 재료를 찾고 화해는 계산을 했습니다. 각자 6,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공유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니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뒷정리도 잘합니다. 수시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선생님, 당사자 면접 때 개다리춤 추는 거 보고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요리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꼬마김밥 20줄이 완성되었습니다. 누구와 나눠먹을지 궁리했습니다. 넉넉한 양이 아니더라도 복지관에 있는 실습 선생님과 함께 나눠먹기로 했습니다. 계양산에 가지 못했지만 요리 활동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꼬마김밥 완성

계양산 여행

비로 취소했던 계양산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계획한 내용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번엔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지선이는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화해, 인애와 함께 여행합니다.

화해 인애 집에 방문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정성스레 차도 내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병도 소독하여 담근 체리 청입니다. 사이다와 섞어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든 음료, 감동입니다. 어머니께 우리의 여행을 설명하고 자기소개서도 보여드렸습니다.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권대익 선생님께서 동행하니 안전하게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화해와 인애가 어떤 아이인지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아이들의 강점을 살피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애가 한

라산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과 추억이 되었고 수료식까지 참여하시면서 단기사회사업의 의미와 과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 여행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다이소에서 우비를 샀습니다. 권대의 선생님을 만나 계양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배차시간이 길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동하는 과정부터 계획한 브이로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애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계양산 전통시장. 손칼국수를 먹기로 했는데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다 보니 냉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계획을 바꿔 냉면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건 여행의 묘미입니다.

계양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등산을 싫어하는 아이들이지만 함께 계획한 여행이니 힘찬 발걸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오르니 계양산 능선에 올랐습니다. 흐린 날씨이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내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썼습니다. 정자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산을 오르며 신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활짝 웃는 자매의 모습이 예쁩니다.

“선생님~ 정상까지 멀었어요? 얼마나 걸려요?”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걷자. 금방이야. 거의 다 왔어!”

나무길, 흙길 여러 길 오르락내리락 걸으며 드디어 정상에 도착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이 대견스럽습니다. 평소 산을 싫어한다며 등산하기를 꺼리던 아이들이 비가 오는 곳은 날씨 속에 함께 정상까지 힘내 올랐습니다.



계양산 중턱에 서서

계양산 정상에 섰습니다. 구름이 가득해서 야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짙게 깔린 하늘 속에 구름이 잠시 걷히면 여러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만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숨을 고르고 바람과 자연을 느꼈습니다. 지선이를 위해 영상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도 한마디 했습니다.

하산할 때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옷을 입었지만, 온몸이 젖습니다. 미끄러운 길을 서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내려왔습니다. 두꺼비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생명도 가까이했습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서도 여행을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여행을 계획했고, 자매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 자연을 잘 누렸습니다.

세 번째 여행 준비

김밥 만들기, 계양산 여행에 이어 세 번째 여행을 준비합니다. 처음에 계획한 여행지는 무의도입니다. 갯벌과 트레킹에 좋은 장소인데 아이들은 갯벌은 좋아하지 않고 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의도는 복지관 차를 빌리더라도 주유비와 통행료가 있습니다. 복지관 쪽 자원을 이용하기 보다 당사자 쪽 자원을 먼저 활용합니다. 아이들 용돈이 부족하다면 소박한 여행을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의논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애가 무언가 떠오른 듯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경복궁 가는 거 어때요?”

“오 좋다. 창덕궁도 가자.”

“애들아, 좋은 의견이다! 우리 그럼 궁 투어할까?”

화해도 찬성했습니다. 박물관과 유적지를 다니는 여행도 유익합니다.

“선생님 만 24세 미만은 무료입장이니 선생님도 무료예요.”

“선생님, 통인시장에도 가고 싶어요. 현금을 엽전으로 바꾸어 장을 볼 수 있어요.”

회의가 활기를 띠입니다. 경복궁을 가기 위한 교통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요시간과 일정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옆에서 잘 거드니 회의도 풍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포옹 인사를 했습니다. 인애가 다가와 손에 작은 상자를 쥐여줬습니다. 인애가 직접 만든 파인애플 열쇠고리입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정이 더 들었습니다.

수료식 준비

토요일 궁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료식은 가정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화해와 인애는 궁 여행을 마치고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수료식 준비를 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감사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수료식 때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잔잔한 음악에 맞춰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화해는 어머니 아버지께 따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화해는 엄마 아빠에게 진심을 꼭 눌러 담은 감사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있는 편지지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편지에는 화해가 엄마를 응원하는 메시지들, 감사하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에게는 아빠가 좋아하는 파란색이 있는 편지지를 사용하여 '화해 아빠가 아닌 김성근께' 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화해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번 활동이 어땠는지 작성했습니다. 편지 내용 중 '아빠, 여기서 한 활동들은 전부 자기 주도 활동이야.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나는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평소에 봉사 동아리에서 해왔기에 수월하고 즐거웠어.'라고 작성했습니다. 화해는 첫 만남 때부터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활동이 즐거웠다는 말을 보니 기뻐했습니다.

인애는 편지를 빠르게 작성하고 수료식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하기 싫다며 거절했던 인애가 수료식 대본을 작성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수료식 대본도 함께 이야기 나누지 않더라도 스스로 틀을 잡아 써 내려갔습니다.

지선은 어머니께 감사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지선은 최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회의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여행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편지에는 긍정적인 단어들 사용해 진

심 담은 좋은 말을 가득 써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었던 거 같아.’라며 엄마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지선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밝게 사는 모습이 예쁩니다. 저는 그러한 지선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수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모아 포토북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한 사진을 꺼내 보며 추억에 빠졌습니다. 포토북 안에는 사진, 삼행시, 읽고 힘이 되었으면 하는 시, 제가 쓰는 편지, 부모님이 써준 편지 등이 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때를 잊지 않고 추억하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순간만 있을 순 없겠지만 나중에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만든 포토북

마지막 여행, 궁 여행

오늘은 마지막 여행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합니다. 화해와 인애는 수료식 준비를 하느냐 잠을 얼마 자지 못했습니다. 지선이라도 밤을 새우는 습관이 있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는 첫 여행이니 마음이 설렙니다.

화해가 교통 담당이라 길을 찾아줬습니다.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탄 후에 창경궁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창경궁은 광복절로 무료 입장입니다. 안쪽에 대온실을 가고 싶었는데 공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때마침 폭우가 내렸습니다.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내립니다. 결국 통인시장에 점심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통인시장으로 갔습니다. 작고 예쁜 카페가 많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적은 예산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통인시장에서 엽전을 바꾸고 싶은데 이마저도 못했습니다. 현금으로 사려 했는데 이미 아쉬움에 마음이 토라졌습니다.

발이 아파져 오는 지선, 쌀국수집을 가고 싶어 하는 인애, 카페에 가고 싶어 하는 화해. 세 명의 의견이 모두 달랐습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광화문 교보문고를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는 길, 광복절 집회로 차량이 통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교보문고를 가지 않고 빠르게 방화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준비했던 여행은 비, 통인시장, 교통체증 등으로 여러모로 고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 또한 여행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정 수료식 PPT 발표

가정 수료식

오늘은 가정 수료식입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수료식을 합니다. 궁 여행을 다녀와서 화해 인애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옛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가정 수료식 시작입니다.

인애의 사회로 시작합니다. 먼저 PPT 발표를 했습니다. 화해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발표했습니다. 화해가 만든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봤습니다. PPT와 영상을 보며 많이 웃었습니다. 행복한 추억입니다.

부모님께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화해는 아빠에게는 이번 활동의 전체적인 부분을 편지로 작성했고 응원해주는 마음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편지 읽는 시간이 되자 화해는 편지를 못 읽겠다며 거부했습니

다. 대신 읽어줘도 되는지 물었고 화해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화해는 지금껏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한 마음을 꼭 눌러 담아 쓴 것이 보였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화해의 마음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화해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서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해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엄마가 화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편지를 읽고 서로 포옹 인사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몇 년 만에 딸을 안아보는 거냐며 좋아하셨습니다. 화해와 인애도 아빠를 꼬옥 안아드렸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어머님께서 아이들에게 맞춘 재치있는 말투로 편지를 시작하셨습니다. 감사, 기도, 긍정 마인드, 현명한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편지 읽는 중간에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음과 울음을 나눴습니다. 힘든 일이 있음에도 화해 인애가 감사함의 믿음 속에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살면서 받는 사랑을 받은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화해 인애를 생각하고 큰 사랑으로 키우시는 모습이 보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부끄러운 마음에 편지를 작성하지 못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직접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껏 그래오셨듯이 앞으로 화해 인애가 가는 길을 격려해주셨습니다. 원하는 꿈들을 모두 응원해주셨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의 경험을 들어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덧붙이시며 마무리하셨습니다. 매번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아빠가 해주신 말씀이 화해 인애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화해를 고향 안아주는 아버지

다음은 깜짝 파티입니다. 서로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화해와 인애는 폴라로이드 사진첩을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할 때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예쁜 사진첩에 넣어준 겁니다. 저도 제가 만든 포토북을 선물했습니다. 3주 동안 함께한 시간을 회상하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추억하는 마음을 담아 눈물이 담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의 진심 담긴 마음들이 잘 닿았길 바랐습니다. 포옹 인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가족이 내어주신 근사한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인애가 깎은 토끼 모양의 사과, 인애 화해가 만든 체리청 음료, 찌주신 옥수수과 만두,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잼으로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든 딸기잼 빵, 어머니께서 요리해주신 떡볶이, 김치볶음밥 등 푸짐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가족이 모

두 모여 함께 만들어준 자리가 감사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던 수료식. 이렇게 따뜻한 가정 안에서 수료식을 할 수 있음에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가정 수료식의 매력과 힘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가정 수료식을 하고 싶습니다.

지선이와 개별 수료식

지선이와 개별 수료식을 했습니다. 둘이 만나 소박한 수료식을 하는 겁니다. 지선이를 위한 포토북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이 많지 않은 대신 지선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지선과의 첫 만남, 개별 만남, 회의, 마지막 여행, 제가 지선에게 쓰는 편지, 어머니께서 지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포토북을 작성했습니다. 부모님과 오고 가는 깜짝 편지. 어머님께서 편지를 작성할 때 지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1시간 내내 지선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편지가 구실 되어 어머니와 지선이 이야기 나누고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지선에게 삼행시를 지어줬습니다.

서 : 지선과 함께한

지 : 난 날들이

선 : 생님한테는 선물 같은 하루였어. 고마워 지선아. 널 기억할게. 언제나 응원할게~

어린이 자전거 여행 | 김민주 권대익

참여자 모집

자전거 여행은 지난여름에도 재미있게 이루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었던 서광 현진 재홍이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서광이 동생 영광, 서광이 친구 이룸, 이룸의 동생 이준까지 6명이 신청했습니다.

모두 송화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영광과 이준은 4학년, 서광 현진 재홍 이룸은 6학년입니다. 이미 동네에서 서로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2019년 여름, 자전거 여행이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다시 뭉쳤습니다.

첫 만남 준비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한 명씩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저와 직접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본을 보이니 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먼저 문자를 남겼습니다. 통화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통화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친절하게 맞아주시니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여행을 함께하는 서광, 영광, 이룸, 이준을 용기골 근린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궁리했습니다. 작은 명함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일을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김민주 </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연락처: 010-5764-7705 </p>	<p style="text-align: center;">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사업을 맡은 김민주입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이번 여름 6명의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p> <hr/> <p>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믿고 맡겨 주신 점 감사합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실내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소규모로 모일 겁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 당일에는 야외 모임이니 2m 간격을 두려고 합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아이들과 즐겁고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방학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p> <hr/> <p style="text-align: center;">아이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	---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드릴 명함

옹기골공원에서 첫 만남

서광 영광 이룸 이준과 옹기골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공원에 왔습니다. 아직은 어색합니다. 제가 인사를 나누려 하자 쑥스러워하며 도망갑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쑥스러움이 많아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상대가 남자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천천히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정자에 모여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와 이번 활동의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함께 손을 모아 구호도 외쳤습니다.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오는 공원이라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은 길이 아닌 곳으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 풀숲과 나무, 작은 호수까지 아름다웠습니다. 날씨도 좋아 파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심 속,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으니 놀랍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자연을 잘 누리고 있었습니다.



용기골공원 산책

자전거 선생님 섭외

지금까지 아이들과 자전거 여행을 함께 해주신 이만우 사장님께서서는 이번엔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부탁드릴 분을 찾았습니다.

지난날 우연히 승강기에서 만난 분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자전거와 자전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인사드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동네 아이들과 자전거 여행을 할 때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니 흔쾌히 함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통장 활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연락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전화 드려서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드렸습니다. 함께하시기로 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과 함께 덕으로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활동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자 님 댁에서 인사와 만남

문을 활짝 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자전거 선생님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니 조금은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만큼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자전거를 어떻게 타셨는지, 자전거를 타면 어떤 점이 좋은지, 자주 다니시는 아라뱃길은 어떠한지 여쭙었습니다. 신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들이 고3 때 9박 10일 자전거로 전국 일주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여행이 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그 여행을 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복지관 자전거 여행에서 상상한 모습과 같습니다. 김정자 님은 이미 이를 경험하셨습니다. 신나게 이야기 듣고,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달력에 꼼꼼하게 만나는 날짜를 적으셨습니다.

자전거 여행 첫 모임

자전거 여행 첫 모임입니다. 아이들은 자전거 선생님 오시기 전 30분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라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밥은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개별 만남을 하지 못한 재홍이와 현진이도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였습니다. 더욱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경청 훈련을 한 보람이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으로 어디로 갈지, 준비물이 무엇인지 편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이들과 자전거 선생님을 위한 롤링 페이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롤링 페이퍼 제목도 정했습니다. 제목은 한 글자씩 다른 색을 이용해서 롤링 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학교 학년 번호까지 소개했습니다. 선생님께 롤링 페이퍼를 드리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부드럼이 묻어납니다. 선생님은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게 된 계기, 자전거 준비물, 자전거 수신호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이 1층까지 배웅했습니다. 선생님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첫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일정표를 색연필로 채웠습니다. 집에 갈 때 주머니에 일정표를 넣어서 갑니다. 우리 모임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복지관 1층에서 헤어졌습니다. 함께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모임이 기대됩니다.

자전거 첫 여행, 안양천 합수부까지



자전거 타는 아이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활동이라 멀리 가지 않고 안양천 합수부까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송화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복지관에서 만나지 않고 신방화사거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정자 자전거 선생님은 오늘은 일정이 있으셔서 다음 주부터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신방화사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복잡한 곳이라 바로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향해 갔습니다. 방화대교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인사 나눴습니다. 자전거는 일렬로 탑니다. 어떤 순서로 탈지 의논했습니다. 안전을 살피고 자전거 길을 달렸습니다.

날은 조금 흐리지만 기나긴 장마 가운데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 좋습니다. 구름도 아름답고 불어오는 바람도 시원합니다. 40분 만에 안양천 합

수부에 도착했습니다. 서로 간식을 나눠 먹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싶지만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다시 방화동으로 출발합니다. 음수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가방에서 바가지를 꺼내 서로에게 뿌리며 물장난을 쳤습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마음껏 물놀이를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방화대교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강에서 물수제비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 아이들의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강 아래 모래사장이 있는 좋은 공터가 있습니다. 돌멩이를 주워 물수제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수제비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 체력이 좋습니다. 오늘 첫 라이딩을 했고, 아라뱃길 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보다 4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함께할 날이 기대됩니다.



인양천 합수부에서 단체 사진

자전거 영화제

비가 오지는 않지만 기나긴 장마로 한강이 범람했습니다. 한강 공원은 통제되어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급하게 의논했습니다. 이전 모임에서 비가 오면 영화를 보기로 정했습니다.

일반 영화는 평소에도 볼 수 있으니 자전거 관련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영화 몇 개를 골랐고 예고편 링크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톡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님께 부탁했습니다. 자전거 영화 4개 가운데 만장일치로 '기적의 레이스'를 보기로 했습니다.

영화를 다운하려면 1,500원이 필요합니다. 가족 여름휴가를 떠난 재홍을 제외하고 이룸 이준 영광 서광 현진이가 각자 300원씩 회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적은 가격이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기를 바랐습니다.

복지관 별관 강당이 모였습니다. 각자 먹을 간식을 한 아름 갖고 왔습니다. 영화 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강당에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의 밝은 활력이 넘칩니다. 영화는 의자에 앉기도 하고 돛자리에서 편안하게 보기도 합니다.

이룸과 영광은 영화가 지루한지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서광과 이준은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다면 영화 정보를 조금 더 살피고 미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여행 대신

아라뱃길을 가기로 한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낮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한강이 다시 열리면 아라뱃길 자전거를 탈 생각이었습니다.

자전거 여행 이틀 전날, 한강 수위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살펴
니 한강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정돈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합니다.

서광은 자전거 여행팀도 활동하고 어린이 여행팀도 활동합니다. 서광이
가 있는 어린이 여행팀은 수요일에 석모도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자전
거 여행팀도 같은 날, 석모도 여행을 하면 어떨지 생각했습니다. 석모도
에는 멋진 산과 깎벽이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팀은 등산도 좋아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의논했습니다. 모두
좋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허락해주셨습니다. 일정을 급하게 바꾸는
만큼 준비 회의를 위해 내일 번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석모도 여행 계획 세우기

모두 모였습니다. 어린이 여행팀이 사용한 석모도 지도를 살폈습니다.
아이들도 지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 산을 보며 어디로 올라 어디로
내려올지 찾았습니다. 하산한 지점에서 해수욕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도 살폈습니다.

전득이 고개에서 출발해서 해명산부터 상봉산까지 종주하는 4시간 30
분 코스와 전득이 고개에서 출발해 보문사로 내려오는 코스를 제안했습
니다. 설악산을 다녀온 서광과 영광은 4시간 30분, 이룸과 이준도 곤충
을 좋아하고, 현진도 4시간 30분을 한다고 했으나, 재홍은 오래 등산한
경험이 없어 짧은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살폈습
니다. 과반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등산이니 무리하지 않고 안전을 살피
는 일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살피며 여행을 계획하는 아이들

“애들아 그럼 4시간 30분 코스로 결정하지만 재흥이가 힘들어할 때는 등산 중간에 내려오기로 약속하는 건 어떨까?”

“네 좋아요~”

회비도 의논했습니다. 꼭 지출해야 하는 샤워장, 기름값, 주차비 항목을 알려줬습니다. 점심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해수욕장 근처 편의점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준비물을 의논했습니다. 아이들이 시끌벅적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룸이가 칠판에 나와 준비물을 하나씩 썼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룸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룸이 덕분에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긴 산행을 해야 하니 아침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른 출발 시각에 아이들도 놀랐습니다. 내일 짧은 코스로 여행할지 물었습니다.

“아 그건 싫어요. 그냥 일찍 만날래요. 오늘 일찍 자면 돼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후회 없이 놀고 싶습니다.

석모도 여행

출발

이번 여행에 안예영 실습생도 동행했습니다. 새벽 6시 20분, 복지관에서 출발했습니다. 5분 뒤에 방화사거리에서 재홍과 현진을 만났고, 이룸이 준 서광 영광은 신방화사거리에서 6시 30분에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15분 전에 도착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까요?

“어제 몇 시에 잤어? 피곤하지 않아?”

“어젯밤 9시에 잤어요. 근데 계속 여행이 설레서 깼어요.”

여행 전날 설렘은 아이이나 여행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어머니께서 단체 대화방에 보내주신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광이가 짐도 혼자 챙기고, 간식도 엄마 카드 안 쓰고 자기 용돈으로 사고, 아침에도 알람 맞춰 스스로 일어나고, 우리 영광이가 달라졌어요.”

랩을 좋아하는 현진이와 음악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화 석모도로 가는 길, 차 안에서부터 재잘재잘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등산

산을 오르기 전 준비운동을 했습니다. 태권도에서 준비운동을 많이 해본 서광이가 준비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출발 전에 등산로 표지판으로 우리가 갈 길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오전 8시, 등산을 시작합니다. 멋진 구름다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높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발견한 곤충과 버섯을 찾는 재미가 많았습니다.

“이름아,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사업하고 싶어요. 곤충 사업이요.”

“이름이는 곤충 좋아해?”

“네~ 아주 좋아해요.”

곤충, 파충류 얘기만 하면 눈을 반짝반짝하게 밝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이는 집에서 거북이와 도마뱀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곤충을 좋아하는 이름이답게 산에서 누가 곤충을 봤다고 하면 재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이름이는 곤충 종류도 많이 알고 숨어 있는 곤충들도 잘 찾아냈습니다. 이름이가 개구리, 메뚜기, 풍뎅이를 찾아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름이에게 대단하다는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산을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막길이 나오니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설악산을 다녀온 서광과 영광도 여름 산행이 얼마나 힘든지 예상을 못 한 듯했습니다.

“선생님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려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작년 설악산 등산할 때에는 이렇게 땀이 나지 않았었는데.”

중간중간 간식과 물을 마셨습니다. 봉우리에 올라 멋진 경치를 바라볼 땐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기념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해명산 정상에 섰습니다.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 정상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바람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전득이고개 구름다리에서



해명산 능선에 서서

봉우리에 오를 때마다 우리가 오른 봉우리를 세어봤습니다. 4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 능선을 걸었다며 함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힘들지만 기운차게 걸습니다.

능선의 절반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종주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아이들과 의논해서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산하는 길도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큰 바위를 미끄럼틀 삼아 내려가기도 하고 작은 계곡에서는 물장구도 쳤습니다. 어느새 옷과 신발이 모두 젖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두꺼비도 보았습니다. 4시간 30분 코스의 전체 능선을 종주하지는 못했지만 곤충도 보고 물장구도 치면서 걸으니 어느새 4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정말 수고했어. 근데 우리 이제 갯벌에 가서 놀아야 하는데 피곤하지는 않아?”

“전혀 안 피곤해요. 빨리 갯벌 가요!”

민머루 해수욕장

민머루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회의했던 대로 편의점에서 점심을 하기로 했는데 갯벌을 보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모여 간단하게 라면 핫바 우유 등을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갯벌에서 생물을 잡겠다고 삽을 가지고 왔습니다. 갯벌에 사는 여러 생물을 잡으며 놀았습니다.

어린이 여행팀을 만났습니다. 어린이 여행팀의 예성 은찬 한빈은 자전거 팀 아이들과도 친합니다.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갯벌 끝까지 걸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삽과 신발을 벗어 던지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신나게 노는 영광

바다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서로 물장난치고 넘어뜨리며 놀았습니다. 어린이 여행팀 8명, 자전거팀 6명, 중학생팀 4명까지 바다에서 우리끼리만 있습니다.

함께 산을 타고 노니 아주 친해졌습니다. 바다에서 함께한 2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전의 김민주 실습생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발만 적시며 놀고 옷과 신발을 적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바다에서 물을 먹어가며 흠뻑 뛰어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니 실습생의 변화도 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유난히 길었던 장마 상황에서도 신나게 놀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또 와요! 너무 재밌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긴 갯벌을 지나 육지로 걸었습니다. 더 놀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한참을 놀면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서도 여전히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자연을 느낄 줄 알고 놀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간식도 서로 먹여줍니다. 아이들과 친해졌고 관계가 생겼습니다. 여행이 주는 힘을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수료식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자전거 여행팀은 수료식을 간단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잘 준비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집 앞에 데려다주었습니다. 아직 수료식이 남아 있지만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2박 3일도 함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습하면서 기쁜 날도 많았지만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마음처럼 잘되지 않는 하루도 많았습니다. 오늘 여행을 다녀오니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잊지 못할 여행이었습니다. 집 가는 내내 오늘 하루에 대한 여운이 남았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권대익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여행을 가서 힘들진 않았냐면서 걱정의 말을 건네던 동료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아주 재밌었어. 하루 더 머물고 싶었어.”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어보시는 엄마에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실습 또 하고 싶어졌어.”

수료식 준비

오늘은 수료식 준비를 합니다. 이름과 이준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마로 자전거 여행을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소박하게 수료식을 하려 했으나 지난 석모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활동 마무리를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3주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재미있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 시간을 정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는 서광의 시간을 맞춰 3시로 하려 했으나 시간이 되는 사람은 일찍 모여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까맣게 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서로 까맣게 탄 얼굴을 바라보니 재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놀고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료식 준비했습니다. 재홍과 현진은 작년에 수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의견을 따라 수료식 일정을 짰습니다. 사회자 대본을 짜고 포스터를 만드는 일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영광이 포스터를 만들고 재홍 현진 서광이 사회자 대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광이는 꼼꼼하게 포스터를 잘 만듭니다.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림 솜씨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재홍은 사회자 대본을 잘 짭니다.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 사회자가 애들한테 소감을 물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재홍아, 아이디어 좋은데? 우리 한 명씩 소감 말해보자. 재밌겠다.”

막상 소감을 잘 적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광이가 중얼거리며 형들에게 말

했습니다.

“그냥 뭐 여행 갔을 때 집에 가기 싫었다고 쓰면 되지!”

가장 나이가 어린 영광이가 쉽게 말을 꺼내주니 재홍, 현진, 서광이가 소감을 잘 써 내려갔습니다. 영광이가 형들에게 어떻게 소감을 써 내려갈지 조언해준 점도 고마웠지만 석모도 여행 갔을 때 집에 가기 싫었다는 말이 그만큼 여행을 즐겼다는 뜻으로 더욱 반가웠습니다.

활동 발표할 사진들을 아이들과 함께 골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난 여행 사진을 보면서 지난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또 서로의 얼굴을 확대해보면서 깔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함께 웃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홍, 현진, 서광, 영광, 이룸, 이준이라서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세상 밝게 웃는 저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석모도 여행 사진이 아직 정리 전이라 오늘은 이 정도로 모임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초대장 만드는 영광

코로나 2차 대유행

부모님들에게도 자세한 수료식 일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머님들께 아이들을 위한 손편지도 부탁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님은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광복절 집회로 이후로 사회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기관도 걱정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시 간소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부모님은 초대하지 않고 아이들만 처음 만났던 옹기골 공원에서 수료증을 나눠주고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적은 인원으로 거리를 두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을 담은 상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강점을 생각하고 칭찬했습니다. 그 옆에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시작부터 망설였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고심하면서 썼습니다. 제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옹기골 공원 수료식

아이들과 처음 만났던 옹기골 공원에 왔습니다. 아이들도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이라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티 내지 않으려 더 밝게 인사 나눴습니다.

편지와 상장만 주고받기는 아쉬워 지난 해명산 등산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함께 웃으며 지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입니다.

영상을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들도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함께한 추억이 떠오르는 문구에서는 서로 깔깔 웃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한 명씩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남자아이들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랐습니다. 직접 쓴 편지가 감동이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자전거 여행팀답게 모두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갑자기 퍼진 코로나19로 짧게 수료식을 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허전합니다. 함께한 시간은 가슴 시린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마지막 수료식 사진

배드민턴 마을 선생님 | 김민주 권대의

참여자 모집

복지관 경로 식당에 자원봉사를 하는 마을 청년이 있습니다. 학점 취득으로 대학생 자원봉사로 시작했다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나오는 박주성 선생님입니다. 한국체대를 다니고 배드민턴을 잘 치는 건강한 청년입니다. 이전에도 배드민턴 마을 선생님을 부탁했었는데 어깨 부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탁구 모임에도 참여하셨고, '흠뻑' 물놀이 잔치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깨가 좋아지셔서 이번에 배드민턴 마을 선생님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름학교 '배드민턴 마을 선생님'을 공개모집 했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배드민턴을 좋아하던 서현에게 연락했습니다. 교통 공원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걸음에 공원에 달려 갔습니다. 해질녘 시원한 시간이라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습니다. 서현 서연 혜민 가현이 있었습니다. 함께 배드민턴을 하며 이번 여름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배드민턴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놀기 어려운 시기, 야외에서 함께 땀흘리며 마음껏 뛰어놀고 싶습니다.

첫 만남

배드민턴 활동을 같이하는 서현, 서연, 혜민, 가현을 4시에 복지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10분 전 복지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5분이 지나자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복지관 3층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배드민턴 이야기

를 나누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색함은 따뜻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복지관 1층에서 헤어졌습니다. 혜민이가 김민주 선생님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소심한 것 같아요.”

낮을 가리는 성격이라 아이들도 이를 느끼는 듯합니다.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궁리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배드민턴 다른 신청자 소영과 수아를 만났습니다. 소영 어머니도 함께 복지관 2층 이야기방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 활동을 직접 이끌어가고 기획해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하고 싶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활동하면서 자연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자연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관계예요. 아이들이 하면서 동네 친구들과 관계를 쌓고 동네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매우 좋은 활동 목표네요. 제가 직장인이라서 이런 활동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자주 활동에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싶어요.”

괜히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활동 목표를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번 활동에서 얻고 깨닫는 부분이 많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강점을 많이 찾아주고 싶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기대됩니다.

우리 동네 배드민턴 선생님, 박주성 선생님

오늘은 배드민턴 첫 모임입니다. 첫 만남 이후 비공식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어서 이제 편안합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박주성 선생님과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선생님을 위한 롤링 페이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만들지 의논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예시를 알려주니 몇 가지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의논하면서 ‘웰컴 투 배드민턴, 저희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제목을 정했습니다.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아이가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롤링 페이퍼를 꾸미는 동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을 환영하는 날이니까 선생님을 위해 롤링 페이퍼 말고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면 아이들이 준비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선생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아이들과 선생님이 느끼는 어색함이 줄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니다.

“선생님 그러면 롤링 페이퍼를 숨기고 배드민턴 선생님이 찾게 해봐요!”

“좋은 생각이야!”

아이디어도 많은 아이입니다. 6명의 여자아이들이 신나게 웃으며 롤링 페이퍼를 어디에 숨길지 궁리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박주성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남자 선생님이라 우물쭈물하지만 김민주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니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찾아보십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힌트도 줍니다.

선생님이 다른 곳을 쫓으면 아이들도 하하 웃습니다. 자리에 앉아 자기소개했습니다. 박주성 선생님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옆에서 선생님을 잘 돕기로 다짐했습니다.

계획한 일정이 끝났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워 마피아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성 선생님도 흔쾌히 함께하시기로 했습니다. 함께 노니 분위기가 좋습니다. 더 친해지고 신이 납니다. 첫 모임이 풍성했습니다.

배드민턴 첫 야외활동

기나긴 장마 가운데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기상청 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되어 실내에서 보드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급하게 모임 일정을 바꿨습니다.

오후 5시 30분, 복지관 앞에서 모였습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니다. 복지관 앞 공터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어 동네 곳곳을 다니며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을 찾았습니다. 1101동 앞, 삼면이 막힌 곳이라 여기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박주성 선생님의 안내로 준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라켓 잡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명씩 공을 주고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지만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이들도 매우 더워했습니다. 물도 넉넉하지 않아 운동을 더 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더우니까 다음에 배드민턴 치고 싶지가 않아요.”



첫 배드민턴 활동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좋은 장소를 살피고 준비물로 물을 가지고 오도록 해야겠습니다.

박주성 선생님도 야외활동을 불편해하셨습니다. 배드민턴 전문가로 실내에서만 활동하셨는데 코로나19로 야외에서 해야 하는 상황을 낫설어 하셨습니다. 복지관 강당을 이용하면 안 되는지 여러 번 문의하셨습니다. 여러 규정과 상황을 살폈으나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박주성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내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은 자유롭게 어울리며 즐기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니 모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과 여러 사정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해야겠습니다.

비 오는 날, 마피아 게임과 실내 놀이

아침부터 비가 세차게 옵니다. 온종일 비가 이렇게 내리니 오늘은 배드민턴을 할 수 없겠습니다. 비가 오면 마피아 게임이나 실내 놀이를 하기로 미리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주성 선생님께도 일정을 미리 설명했습니다. 오늘 배드민턴 하지 않는데도 박주성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기로 했습니다. 마을 선생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습니다.

마피아 게임과 제로 게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한참을 웃으며 놀았습니다. 별칙은 다음 운동시간에 준비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별칙이 있으니 아이들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긴장감이 넘칩니다. 결국 소영과 서연이 걸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진행을 못 하겠다고 하니 박주성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일정을 의논했습니다. 장마가 길어 비가 오는 날이 많습니다. 영화를 볼까 했는데 수아와 소영은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리하면 좋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요리 일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복지관과 부모님과 조금 더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화채를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재료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좋습니다. 박주성 선생님도 요리를 좋아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또 함께하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의 제약이 많습니다. 야외활동을 중심으로 잡았는데 기나긴 장마가 또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들도 부모님도 기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뿐입니다.

수박 화채 만들기

오늘도 역시나 비가 옵니다. 지난 시간에 계획했던 수박 화채 만들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각자 국자로 개별적으로 나누어 먹고 야외에서 거리를 두고 먹기로 했습니다. 기관과 부모님께 모두 설명해 드리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으로 허락해주셨습니다. 아이들과도 안전과 방역을 잘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음식 재료는 먼저 집에 있으면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없는 재료는 회비를 모아 같이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수박 반 통이 집에 있다고 합니다. 얼음도 집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회비는 소영을 제외하고 걷기로 했습니다. 사야할 재료는 과일 통조림과 음료수뿐입니다. 각자 2,000원씩 걷기로 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날, 아이들과 화채를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 시원합니다. 소영이 자기 몸만 한 수박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도 채져왔습니다. 수박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보해마트를 휘젓고 다니며 음식 재료를 골랐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골랐는데도 돈이 4,000원 남았습니다. 남은 돈은 다음에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화채는 밀키스를 넣은 수박 화채, 사이다를 넣은 수박 화채, 두 가지 종류입니다. 큰 대야 2개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숟가락으로 수박을 찢습니다. 과일 통조림도 넣고 음료수도 넣으니 먹음직스럽습니다. 야외 테라스로 이동했습니다. 각자 먹을 그릇과 국자를 준비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수박 화채를 먹으니 시원하고 지친 마음이 사라집니다. 네 그릇 다섯 그릇까지 먹었습니다. 다 함께 만들어서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박주성 선생님과 친해졌습니다.



완성한 수박 화채

다음에도 비가 오면 김밥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배드민턴 모임인데 날씨로 운동을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이야기 나누고 놀았습니다. 7시까지만 시간이 되시는 박주성 선생님께서 가셨습니다.

“애들아 그럼 선생님이랑 무엇을 하면서 놀까?”

“아, 선생님. 그냥 저희도 집에 갈게요~ 할 것도 없는데.”

아이들은 박주성 선생님과 놀고 싶었나 봅니다. 박주성 선생님이 가시자마자 집에 간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아이들과 마을 선생님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한걸음 물러서서 박주성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울리는 모습이 보니 흐뭇합니다.

김밥 만들기 긴급회의

내일도 배드민턴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다시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일일이 전화로 소통하기가 어려워 시간이 되는 아이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또 요리해요!”

“또? 이번에는 무슨 요리를 할까?”

“김밥 만들어 먹고 싶어요.”

화채는 간편한 요리이지만 김밥은 과정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실 어른이 있는지 궁리했습니다. 진달래 님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진달래 님께 어떻게 부탁드릴지 준비했습니다. 대본을 썼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실 때와 안될 때의 모든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이제는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합니다. 대본을 완성하자마자 진달래 님께 바로 전화했습니다.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할지 의논했습니다. 야채김밥과 참치김밥을 만드는데 집에 있는 재료는 각자 조금씩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재료가 많아 회비를 1,000원씩만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화채 만들 때 남은 4,000원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밥 만들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오히려 비가 오면 좋겠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도와주시는 어른이 있다고 하니 안심하시며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배드민턴 모임인데 매일 비가 내리니 다른 활동이 더 많습니다. 박주성 선생님도 이해해주셨습니다. 모임도 매일 함께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김밥 만드는 날

역시나 아침부터 비가 내립니다. 오후에 비가 그쳤으나 바람이 매우 많이 불니다. 이런 날에 배드민턴을 하기 어렵습니다. 계획한 대로 김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달래님께 아이들이 준비한 김밥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깨끗은 풀꽃 향기 텃밭에서 주시기로 했습니다. 김밥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재료까지 제공해주시니 더욱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장을 보러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 나는 그냥 음식 만들기만 도와줄게.”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을 찾았습니다. 삼면이 막혀 있어서 고요합니다. 이미 요리 준비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할지 궁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운동을 3~40분 정도 하고, 저녁에 김밥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오후 4시에 모였습니다. 먼저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사야할 재료를 메모했고 가격과 양을 따져가며 재료를 담았습니다. 공유부엌에 재료를 두고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진달래님은 아이들이 오기 전에 먼저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진달래님, 아이들도 요리를 좋아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김밥 손질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애들이 김밥 재료 준비하면 안 돼~ 김밥 싸기만 애들이 하는 거로 해. 내가 애들이랑 많이 요리해봐서 알아.”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관계를 위해 진달래님께 요리를 부탁했지만 당신께서 요리를 모두 준비하시니 아이들의 자주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진달래님의 의견대로 아이들은 김밥 싸는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모였고, 풀꽃향기 회원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근사한 재료를 두고 아이들이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니 풀꽃향기 회원분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6명이 함께 싸니 금세 완성되었습니다. 진달래님께서 예쁘게 잘라주셨습니다.

박주성 선생님은 6시에 가셔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박주성 선생님 가셔야 하는데 누가 김밥 예쁘게 싸줄래?”

“저요!!”

“제가 싸겠습니다!”

박주성 선생님께서 드릴 김밥을 싸겠다는 아이들이 넘칩니다. 아이들이 박주성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선생님께 김밥을 싸서 드렸습니다. 선생님도 격한 반응으로 서연이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김밥을 다 썼는데도 밥이 남았습니다. 진달래님께서 남은 재료를 잘게 잘라서 밥에 넣으셨습니다. 순식간에 주먹밥을 완성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주먹밥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주먹밥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김밥은 복지관 선생님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선물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칭찬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합니다.



주먹밥 만들어 먹는 한서연



함께 김밥 만들어 먹기

또 비가 오면

긴 장마로 또 날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배드민턴을 자주 하지 못했는데 벌써 수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오면 수료식 회의를 제안할 생각입니다.

수아와 소영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오지 못합니다. 가현 혜민 서연 서현과 박주성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여러 활동 경험이 있어서 수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주성 선생님께서 수료식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설명했습니다.

“수료식은요 지금까지 한 활동들 발표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선생님이 저희한테 편지도 써주고요~ 마지막 활동 발표회도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오세요!”

“와 재밌겠다!”

수료식 일정을 의논했습니다. 배드민턴 활동 발표, 부모님 편지낭독, 박주성 선생님의 편지낭독, 관장님 말씀, 실습생 편지낭독으로 정했습니다. 발표 PPT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전에 어린이 여행팀에서 종일 만들어서 다음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 무엇을 할지 의논했습니다. 젠가를 하며 놀자고 합니다. 한 시간 정도 젠가를 하니 조금씩 지루해집니다. 이때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젠가와 마피아 게임을 섞어서 게임을 해보는 게 어때요?”

서연이 스스로 생각한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젠가를 했을 때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비가 와서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과 의논하면서 여러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벌써 추억이 많고 정이 들었습니다.



웃으며 젠가하는 아이들

수료식 준비

수료식 준비로 모였습니다. 함께한 3주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습니다. 수료식 경험이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함께 여행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홍보지와 일정표, PPT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주성 선생님도 일찍 도와 주셨습니다. 홍보지와 일정표는 그림을 잘 그리는 서연이 맡았습니다. PPT는 혜민 수아 소영이 맡았습니다. 박주성 선생님께서 홍보팀을 돕고, 김민주 실습생은 PPT팀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문득 첫 모임 분위기가 생각났습니다. 서로 낮을 가리고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말이 끊기는 시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소란스러워 오히려 실습생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PPT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진을 넣을지,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지 의논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발표 준비를 잘합니다. 혜민이와 수

이는 자신이 만든 ppt를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박주성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이 헤민, 수아, 소영이에게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홍보지 팀도 박주성 선생님과 만드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장난치며 홍보지를 만들었습니다. 예시를 보여주지 않아도 척척 잘 해냅니다.

역할도 나눴습니다. 가현과 서현은 PPT 발표, 헤민과 수아는 사회자, 서연과 소영은 체온 측정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헤민이와 수아는 배드민턴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또 헤민이는 낮을 가려 자기 친구들이 아니면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괜히 다른 아이들에게 통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헤민이가 수아랑 같이 사회자를 보겠다고 말한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같이 ppt도 제작하더니 많이 친해졌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배드민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치던 바람이 불지 않는 곳입니다. 10분만 쳐도 땀다고 소리치던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배드민턴을 쉬지 않고 계속 쳤습니다. 이제는 박주성 선생님 곁에서 줄을 서서 배드민턴을 합니다. 첫 모임 때는 부끄러워서 도망가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주성 선생님은 순서대로 한 번씩 공을 던져 주었습니다. 약속한 저녁 7시가 넘도록 아이들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놀랍습니다. 그만큼 아이들과 박주성 선생님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배드민턴 선생님 수료식

우리 동네 배드민턴 선생님 수료식 날입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부모님도 초대했으나 평일 점심시간이라 오시기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일찍 모여 수료식 준비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현과 서연은 석모도 여행도 다녀와서 피곤했을 텐데도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헤민은 오자마자 실습생에게 안겼습니다. 먼저 표현하고 사랑하는 헤민에게 고맙습니다. 마지막 활동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PPT 마지막 발표 준비와 박주성 선생님을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박주성 선생님도 일찍 오셨습니다. 수료식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과 박주성 선생님은 준비를 끝내고 자유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더욱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곁이 아니라 선생님 옆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욱 많습니다.

수료식을 시작합니다. 관장님과 손혜진 선생님께서 자리했습니다. 실습 동료들도 함께했습니다. 자리가 따뜻합니다.

수아와 헤민의 사회로 수료식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첫마디부터 또박또박 말을 잘합니다. 사회자의 호흡도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서현과 가현이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PPT를 보니 함께한 순간이 떠오릅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박주성 선생님께 롤링 페이퍼를 전달했습니다. 직접 읽어 주면 어떻게 제안했는데 아이들은 거절했습니다. 박주성 선생님과 워낙 스스럼없이 지낸 관계라 직접 전달하기가 부끄러웠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보면 안 되고요. 꼭 집에 가서 읽어봐요~”



수료식 모습

다음은 제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아이들에게 수료증으로 편지를 써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읽어주기가 부끄러웠지만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 얼굴을 뻗히 바라보며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만큼 아이들이 저를 생각해 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행동으로 저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주었고 저를 안아주고 손잡아주었습니다. 그게 저를 향한 아이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헤민이에게 편지를 읽어줄 차례가 왔습니다. 헤민이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있었습니다. 헤민이가 울음을 참는 듯 보였습니다. 헤민이가 울음을 참는 얼굴을 보니 저도 괜히 울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주고 싶어 울음을 참았습니다.



김민주 선생님께 편지 읽어주는 아이들

“아이들이 김민주 선생님을 위한 편지를 준비해줬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저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사실 조금은 눈치 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편지를 읽어주니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었지만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들어가고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박주성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를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따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짧은 3주가 지났습니다. 6주간의 실습을 신청한 이유는 더 많이 깊게 배우고자 싶어서였습니다. ‘6주가 언제 지나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예영 언니

와의 첫 만남 때 언니와 나는 대화가 생각납니다. 예영 언니는 이번이 두 번째 실습이셨습니다.

“언니 실습 6주는 너무 긴 것 같아요. 언제 6주가 끝날까요?”

“나도 실습 첫 주는 정말 느리게 흘러가더라고. 근데 2주째는 1주째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고, 3주째는 2주째보다 더 빨라~ 실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더라고~”

그 당시 언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언니가 어떤 마음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건넸는지 알겠습니다.

아이들과 1층에서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박주성 선생님 곁에 꼭 붙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박주성 선생님과 아이들이 작아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박주성 선생님과 떠나는 아이들

우리 마을에 나쁜 개는 없다 | 신희선 권대의

사업 기획

‘우리 마을에 나쁜 개는 없다’는 반려동물 사회사업입니다. 2019년 1월에 처음 사업을 실천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복지관 근처를 다니면 강아지와 산책하는 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실시한 욕구 조사에서도 늘 반려동물 모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려동물 페티켓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우리 마을에 나쁜 개는 없다’ 사업 이름을 정했습니다. 실습생 가운데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학생이 이 사업을 담당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구실로 여러 모임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반려동물 산책하기, 반려동물 영화 보기, 반려동물 페티켓 캠페인 하기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끼리는 서로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니 더 관계 맺기가 좋습니다. 반려동물 활동에도 더 관심을 둡니다. 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획단 모집

2019년 1월에 참여했던 주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연과 이정은 무럭무럭 여행도 하지만 반려동물 사업도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와 사시는 김경옥 님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전선미 님과 딸 사랑이를 만났습니다. 전선미 님은 여러 일정으로 바쁘셔서 기획단은 하지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하거나 모임 당일에는 함께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연이는 우나개 첫 회의 날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끝에 기획단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만남

신희선 실습생이 기획단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정연과 이정은 복지관 3층 테라스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아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키웠던 여러 강아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으로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전선미 님과 딸 사랑이를 만났습니다. 전선미 님은 손재주가 좋으십니다. 이미 천연용품 만들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 '쿠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아지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활동에 강아지 배변 탈취제 만들기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쭙니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강아지의 장난감 '노즈워크'도 만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함께할 날이 기대됩니다.

김경옥 님을 만났습니다. 떡보와 멍멍이,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네에 괴롭힘을 당하는 강아지가 많으니 학대 예방 캠페인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아지에게 애정이 많으셨습니다.

우나개 첫 회의

우나개 첫 회의입니다. 3주 동안 어떻게 활동할지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아이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 들립니다.

“강아지~강아지 좋아요! 저도 우나개 할래요~”

“안녕~안녕~안녕하세요.~ 째 강아지 극복이요! 저도 할래요!”

“야야 여기 강아지모임이래! 빨리 와봐!”

여러 아이가 왔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세례에 우나개가 어떤 모임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연이가 함께하게 된 겁니다.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이는 자리라 어색할 법하지만 이정이가 밝게 이끌어주었습니다. 다른 기획단도 빠짐없이 신나고 밝은 분위기로 소개했습니다.



첫 회의를 함께한 기획단

“그냥 이거는 집에서 직접 만든 건데~ 샌드위치예요! 우리 이거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시간이 딱 배고플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나눠 먹고 싶어요~ 여기 아이스티도 있어요!”

김경옥님께서 가방에서 간식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손수 만들어 오신 겁니다.

우나개 3가지 핵심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관계, 자연입니다.

스스로 : 주민이 스스로 반려동물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관계 : 반려동물 보호자와 기획단이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자연 : 반려동물과 공원과 자연에서 산책합니다.

핵심어 덕분이었을까요? 기획단이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직접 강아지 산책시켜봐요! 여기 아파트 단지에도 산책할 곳 많아요!”

“강아지 영화 다 같이 보면 어때요? 저 강아지 영화 많이 알아요~”

“똥, 강아지가 똥 싸면 치워야 하는데 안 그래요! 그걸로 해봐요. 선생님!”

“저는 목걸이를 잘 만들어요. 아이들이랑 강아지 목걸이 만들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안을 구상했던 저보다 더 풍성하고 값진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의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인사하는 기획단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빨리 강아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신난 목소리와 표정, 자신이 좋아하는 강아지를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하니 행복하고 기대된다는 김경옥님의 말씀까지. 이런 표현

들이 감사했습니다.

전선미 님과 사랑이가 바쁜 일정으로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회의 내용과 감정을 나눴습니다.

첫 만남이라 떨리고 긴장도 했지만 기획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음 가짐도 나누니 풍성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활동이 기대됩니다.

캠페인 손팻말 만들기 1

이날은 시간이 되는 사람들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연이만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페티켓 캠페인을 준비하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논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날, 권대익 선생님께서 재료 구매를 함께하셨습니다. 오가는 길에 다연과 함께 사는 강아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캠페인 손팻말을 어떻게 만들지 의논했습니다. 다연이의 의견을 옆에서 도우며 함께 손팻말을 꾸몄습니다. 다음엔 다른 기획단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페티켓 캠페인 회의

페티켓 캠페인 날입니다. 김경옥 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앞으로 우나개 활동이 어렵다고 연락 왔습니다. 매우 아쉬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한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페티켓 캠페인에서 이웃에게 어떤 주제를 알릴지 의논했습니다. 전선미 님과 정연은 배변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연과 이정도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우나개 회의하는 기획단

“목줄이요! 강아지가 엄청 따라와서 가끔 무서워요.”

“배변이요, 키우고 있는 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무조건 똥! 코가 막혀요~ 냄새~”

직접 생각하고 구상하다 그림이 더 설명하기 편하다고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막상 나왔지만 부끄러워했습니다. 떠오른 머릿속의 생각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응원했습니다. 눈을 맞추며 칭찬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즐기면서 마음껏 자기 생각을 나눠서일까요? 회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좋은 안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캠페인 손팻말 만들기 2

오늘은 어제 회의한 내용을 손팻말에 직접 그리고 꾸미는 날입니다. 정연, 이정이가 회의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저를 찾았습니다.

“희선 선생님~ 희선 선생님~ 어제 얘기했던 거! 빨리 만들어요~”

어제 회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연이와 사랑이는 어제 회의에서 나눈 그림을 집에서 직접 그려 예쁘게 색을 더해 가져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예쁩니다.

“우리 캠페인 어디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실까?”

“복지관 앞에? 운동장! 아니면... 여기 놀이터! 은하수 공원 어때?”

캠페인 장소를 구상합니다.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을 제안했습니다. 은하수 공원으로 정했습니다.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12단지 관리사무소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대답이 나온 김에 바로 캠페인 장소를 부탁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부탁드릴지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이가 펜을 집어 들고 순식간에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이정이가 대표로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기획단도 한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허락해주신 관리사무소에 고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부탁하는 아이들

다시 회의실로 왔습니다. 무비데이 홍보를 의논했습니다. 오후 4시, 날 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손팻말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색을 골랐습니다. 정연이 동생들이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이런 정연이를 칭찬했습니다. 아이들이 회의에서 정한 문구를 인쇄해서 준비했습니다. 손팻말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꾸몄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꾸몄습니다.

정연 이정 다연은 무럭무럭 모임에 갔습니다. 사랑이는 선생님과 함께 마 저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랑이와 둘이 있으니 강점이 더 잘 보입니다. 꾸미기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서로 의논하며 예쁘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손팻말이 더 근사해졌습니다.

우천 취소, 무비데이 홍보지 만들기

이틀 동안 준비한 페티켓 캠페인 날입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캠페인을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오후 2시에 모여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속상함이 묻어났 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공감하며 나눴습니다. 상황을 살피며 캠페인을 한 주 미루기로 했습니다. 긴 장마 속에서 아이들과 계획한 일정을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꾸며 이루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의논했습니다. 무비데이를 좀 더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홍보지를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색 종이에 원하는 그림으로 하나씩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근 사한 홍보지를 완성했습니다. 더 많은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칼라 복사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무비데이 홍보지 만들기

다음 날 무비데이 홍보지를 동네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나가면 좋을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복지관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방화초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요!”

“사람 많은데는 황제떡볶이가 짱이에요! 제 친구들도 거기 자주 가요!”

어디로 홍보할지, 어떻게 홍보할지 역할을 나누고 대본도 작성했습니다. 총 7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주로 말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했습니다.

정연은 피아노 교실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홍보지를 붙여주셨습니다. 꿈자람책놀이터 도서관 사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방문하는 사람이 적어 도서관 밴드에 홍보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동네를 거닐며 아는 사람이 있거나 산책하시는 분에게 다가가 홍보했습니다. 방화초등

학교 정문, 황제떡볶이, 와와 문구점에도 방문했습니다. 황제떡볶이 사장님은 가게 구석구석 5장이나 붙여주셨습니다. 와와문구 사장님은 어디에 붙이고 싶은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주 가지 않는 곳이지만 동네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다음 주에 음식 만들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는 정연과 이정 어머니이신 김민경님을 만났습니다. 이정이가 엄마한테 우나개 떡볶이 선생님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하셨는데 이정이가 엄마표 떡볶이가 맛있다고 부탁하니 허락해주셨습니다.

종일 마을 곳곳을 다니며 무비데이를 홍보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홍보했습니다. 마을 이웃들을 만나며 관계했습니다. 이것이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리는 실천임을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김경옥 님의 강아지와 산책하기

오늘은 장마 기간 가운데 가장 날씨가 좋은 날입니다. 우나개 첫모임부터 강아지와 산책하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김경옥 님께 아이들과 함께 강아지 산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면 잘 받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강아지 산책을 누구에게 부탁할지 물으니 기획단을 함께한 김경옥 님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떡보와 밍밍이, 시츄 두 마리와 함께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산책 예절도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강아지 산책

“떡보야~ 멩멍아~”

멀리서 김경옥 님과 강아지가 보이니 아이들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강아지와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아지를 구실로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봐봐~ 강아지를 산책할 때 목줄은 되도록 짧지만 조금 길게 잡는 게 좋아~”

산책할 때 목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산책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니 아이들도 모두 집중해서 듣습니다. 산책하며 방화초등학교에 들렀습니다. 코팅한 홍보지를 드리니 같이 교문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셨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시는 어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경옥님께서 우리를 소개하고 무비데이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니 강아지 보호자와 만나기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어졌습니다.

강아지 무비데이 준비

강아지 무비데이를 준비했습니다. 기획단이 이웃을 초대해서 강아지 관련 영화를 함께 보는 활동입니다.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의논했습니다. 정연은 사회자가 인사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갖춰 발표를 잘하는 정연이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가 언니의 대본작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다연은 발열체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안내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옥님께서서는 의자를 세팅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강아지 산책을 함께하고 캠페인과 무비데이를 준비하면서 기획단 안에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강아지 무비데이

우나개의 첫 번째 활동, 무비데이 날입니다. 기획단은 4시 상영 전에 3시에 미리 모였습니다. 영화가 잘 나오는지,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으로 할지 살폈습니다. 무력무력 가족 여행에 참여하는 시율리와 아린이도 왔습니다. 무비데이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4시가 되어가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홍보지를 보고 오고 싶어 왔다고 합니다. 발열 체크와 방명록을 작성하며 자연스럽게 인사 나눴습니다.



강아지 무비데이

정연이와 사랑이의 사회로 무비데이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 동네에 나쁜 개는 없다.’ 기획단입니다. 오늘 무비데이에 보러 와주셨네요!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강아지를 주제로 활동하는 만큼 재미있는 강아지 영화를 저희가 직접 준비했어요. 영화가 시작되면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 주세요.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있어 주세요. 마지막엔 우나개 기획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화 재미있게 상영해주세요.”

간단한 멘트 후 영화 ‘안녕 베일리’가 시작합니다. 강아지의 시점으로 강아지와 주인이 교감하는 애뜻한 관계를 그린 영화입니다. 아이들 모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웃다가 울며 영화를 즐겼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각자 상영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더 공감이 갔다는 김경옥 님, 아이들이 집중해서 영화를 보고 내용도 좋았다는 김경옥 님, 강아지가 하늘나라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슬펐

다는 사랑,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이 재밌었다는 수빈 수연 예원 수현까지. 강아지를 구실로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무비데이를 준비한 기획단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정연과 사랑이 다시 마무리 사회를 보았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눈을 한 분 한 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중간중간 슬픈 장면도 많았지만, 강아지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끝까지 영화를 재밌게, 그리고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는 1m 거리를 유지하시며 순서대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 나쁜 개는 없다’의 조정연, 김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베일리’라는 영화로 함께 나눴던 몽클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의 행복한 추억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비데이를 스스로 기획하고, 열심히 참여해준 우나개 기획단 고맙습니다.

만들기데이 홍보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페티켓 캠페인은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있을 또 하나의 활동, 만들기데이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기획단이 도착했습니다. 만들기데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의논했습니다. 먼저 만들기를 알려주시는 전선미 님과 김경옥 님께 부탁드립니다. 전선미 님은 천연제품 만드는 일을, 김경옥 님은 액세서리와 빵 만드는 것을 잘하십니다. 아이들이 오늘 참석한 김경옥 님에게 직접 부탁드립니다.

“만들기데이 때 저희에게 강아지 목걸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그럼~ 짜잔! 함께 만들고 싶어서 샘플도 만들어왔지요~”

예쁜 목걸이입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강아지 목걸이 만드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선미 님은 개인 일정이 바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부탁하지 못해 따로 말씀드리니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만들기 선생님을 모두 섭외했습니다.

홍보지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논했습니다. 김경옥 님의 샘플도 홍보지에 넣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무실에서 권대익 씨 직접 홍보지와 테이프를 빌렸습니다. 복지관 구석구석에 홍보지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잠시 비가 그쳤습니다. 동네를 다니며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에게 만들기데이를 홍보했습니다. 많은 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는 이웃에게 정성껏 홍보했습니다.

우나개 요리하기

오늘은 기획단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각자 재료를 조금씩 나누어 가져왔습니다. 김경옥 님께서는 고추장과 올리고당, 정연이와 이정이는 고춧가루와 간장, 사랑이는 떡과 다진 마늘, 다연이는 라면과 어묵, 저는 짜장 가루와 파를 가져왔습니다. 사랑이는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데도 재료를 챙겨왔습니다.

아이들이 섭외한 김민경 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셨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다연과 이정은 재료를 썰고 정연은 설거지와 양념 만들기를 했습니다. 빨간 떡볶이와 짜장 떡볶이를 만드기로 했습니다. 물 없이 끓이는 기름 떡볶이를 만드셨습니다.



떡볶이 만들어 먹는 우나개

계량 없이 쓱쓱 하는 모습에 아이들도 옆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떡볶이가 타지 않게 중간중간 저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김경옥님께서 가져오신 치즈까지 넣으니 더욱 먹음직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복지관 사무실 선생님과 실습 선생님과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그릇에 조금씩 마음과 함께 담았습니다. 정연이가 직접 가져다드렸습니다.

기획단이 모여 함께 떡볶이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두 가지 맛의 떡볶이를 먹으니 맛있습니다. 마을 선생님께서 도와주셨고 기획단이 함께 어울리며 요리했습니다.

드디어 페티켓 캠페인



페티켓 캠페인 활동하는 기획단

오전만 해도 우중충한 날씨에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오후에 날이 개고 화창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팻말과 배변 봉투, 탁자, 이젤을 챙겨서 은하수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나가는 분들에게 페티켓 캠페인을 알렸습니다.

“페티켓 캠페인 합니다~ 와서 1분만 참여해주세요~”

“강아지 배변을 잘 치웁시다~ 목줄을 잘 채웁시다~”

오가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셨습니다. 페티켓을 설명하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손팻말을 보며 칭찬해주셨습니다. 강아지 페티켓에 관한 나의 다짐과 마음을 붙임쪽지에 적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배변 봉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주민분을 시작으로 여러 주민분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

서 전동휠체어를 타심에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신다며 열심히 참여해주신 주민분, 커다란 하얀 개를 산책시키러 오신 김에 참여해주신 주민분, 강아지와 얼마 전 이별을 하셨지만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분까지 계셨습니다.

스티커로 참여해주신 26분의 주민분들, 한 글자, 한 글자 포스트잇에 문구를 적어주시며 참여해주신 20분의 주민분들. 다른 방식이지만 진심을 담아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주민분들의 작은 참여가 아이들에게 정말 큰 힘과 추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나개 만들기데이

오늘은 아이들이 직접 섭외한 마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기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첫 회의 때부터 아이들이 손뾰아 기다리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 래서였을까요? 아이들이 원래 모이던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만들기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얼굴에 다 보여서 사랑스러웠습니다.

4시가 된 시간, 11단지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배변 탈취제와 목걸이 만들기까지 모두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배변 탈취제를 만들었습니다. 전선미 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성분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만들기 과정에서도 참여자와 천천히 의논하며 만드셨습니다.

탈취제를 완성하고 김경옥 님의 목걸이 만들기를 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줄의 종류와 색을 골라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었습니다. 김경옥 님께서도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강아지 목걸이 만드는 모습

사랑이는 쉽게 이해하고 금방 만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랑이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이름표까지 다니 근사한 목걸이가 됩니다.

수료식 준비하기

우나개 마지막 활동인 수료식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정연이는 그동안 우리의 활동을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정연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랑과 이정은 PPT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꾸미기를 좋아하는 다연에게는 수료식 장소를 꾸미도록 부탁했습니다. 롤링페이퍼는 김경옥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료식을 준비하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사랑이가 그동안의 일정을 기억하며 이야기합니다.

“우와~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맞아~사랑~ 우리 이것저것 많이 했었지~”

“어쩐지 맨날 맨날 재밌더라니~”

그동안의 활동들을 돌아보며, 사랑이가 즐기며 활동했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했던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나눠준 사랑 고맙습니다.

우나개 수료식

3주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나개 수료식입니다. 출근할 때부터 이제 기획단과 만나지 못한다는 마음에 조금은 시원섭섭합니다. 헤어짐은 속상하고 슬프지만, 그 헤어짐이 축복이 되도록 잘 마무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기획단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편지와 상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나개 수료식

‘2020 우나개 수료식’ 10글자 현수막을 한 글자씩 쓰며 꾸몄습니다. 정연은 예쁜 손글씨로 대본을 썼습니다. 김경옥 님과 사랑은 공유 부엌 자리를 세팅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연의 사회로 수료식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PPT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우나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하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발표했습니다. 짧지만 긴 시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며 웃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정연이가 발표하며 그 감정이 함께 나뉘는 기분이었습니다.

활동 발표가 끝나고 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획을 생각하며 준비한 상장과 편지를 읽었습니다. 울컥한 마음을 다잡고 헤어짐을 축복처럼 마무리하고자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소감을 나눴습니다. 김경옥 님은 아이들 향한 고마움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김경옥 님의 강점이 우나개에서 발휘되었습니다. 사랑이와 엄마의 관계도 보였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사랑이, 딸 사랑이가 상처 받지 않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지만 딸을 믿고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뭐든 어렵지 않게 해내는 정연, 해맑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이정, 딸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눈빛으로 응원하는 정연 어머니까지. 우나개 활동은 기획단 한 명 한 명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이웃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수료식을 마치고 서로에게 롤링 페이퍼를 썼습니다. 행복했던 추억과 마음을 꼭꼭 담아 썼습니다. 퇴근길에 아이들 편지를 읽으니 마음이 뭉클합니다. 3주의 시간이 행복했고 재미있었고 부듯했습니다. 저에게도 기획단에게도 잊지 못할 귀한 추억과 축복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게 상장과 편지 읽는 신희선 실습생



우나개 수료식 단체 사진

무력무력 가족 여행 | 김선재 권대익

참여자 모집

당사자 면접을 준비하며 김민경 님을 만났습니다. 작년부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엄마도 아이도 자연과 더 친해지자’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단기사회사업과 연합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총 5가정을 중심으로 가족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5명, 가정별로 자녀가 2명씩, 총 15명이 모였습니다. 평소 이 사업은 엄마가 중심이 되어 활동했는데 이번 방학에는 아이들이 기획단이 되어 활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



무력무력 기획단 첫모임

10명의 아이가 모였습니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이도 다양합니다. 인원이 많지만 아이들의 개성과 성격을 살렸습니다. 강점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꾸준히 칭찬하고 응원했습니다. 금세 신이 나서 참여했습니다. 3주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 각자 마인드맵으로 그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

여러 일정이 있어 못 오는 아이들이 많아 5명이 참여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개화산 숲 체험에서 선생님께 할 질문지도 만들었습니다.

아린이의 강점이 보입니다. 친구들을 잘 격려하며 활동합니다. 말도 예쁘게 합니다. 표현도 잘합니다. 저에게도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럭무럭 활동이 좋아요.”

“저는 사랑받는 기분이 좋아요”

이런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개화산 여행 준비

세 번째 모임입니다. 개화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숲 체험 선생님을 미리 만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대신 여행 당일에 숲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떤 질문을 할지 의논했습니다.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든 「웃으면서 떠나는 여행」¹⁰⁾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뿐이라 돌려 읽기가 어려워 중요한 부분을 직접 읽어주었습니다. 표지와 그림이 흥미롭게 되어있어 아이들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6학년 동준이가 처음 참석했습니다. 사춘기를 한참 지나는 듯합니다. 모임에 회의를 느끼며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동준이가 스스로 모임을 선택하기보다 엄마의 제안으로 온 듯합니다. 그럼에도 동준이가 자연스럽게 모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 동준이와 마음을 주고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화산 여행

오늘은 개화산 여행하는 날입니다. 개화산을 오르기 전에 도시락으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김밥 말이까지 아이들이 직접 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이 주인 되는 의미를 알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주었습니다.

지난 활동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동준이도 왔습니다. 다행히 동준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칼질도 잘하고 할 수 있는 요리도 많았습니다. 동준이가 당근 오이 손질을 도맡았습니다. 동준이의 모습을 보며 동준이를 바라본 저의 짧은 시선을 후회했습니다. 동준이는 강점이 많은 아이입니다. 이런 동준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김밥 만들기 활동이 즐거웠습니다. 전체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동준이가 활동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10) 책 소개 cafe.daum.net/coolwelfare/S6la/47



개화산 오르는 길

김밥을 만들고 개화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산이 싫다던 아이들도 서로 먼저 도착할 거라며 열심히 올랐습니다. 함께 오르니 금방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숲 선생님은 개화산의 숨은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개화산 생태습지에서 체험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 양서류와 수중식물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자연과 가까이하는 힘을 알았습니다.

일몰을 보러 하늘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김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김밥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마로 날씨가 좋지 않아 일몰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큼니다.

무럭무럭 가족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모임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나갈 시간이 기대됩니다.

천연 모기 퇴치제와 버무리 만들기

무럭무럭 연간 사업 가운데 천연 모기 퇴치제와 버무리 만들기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럭무럭 가족만 참여하는 방식을 계획했는데 다른 아이들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했습니다.

최은숙 강사님은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이웃입니다. 이미 동네에서 천연 제품 만들기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아이들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시며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옆에서 기다려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만든 물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울식물원 소풍

오늘은 서울식물원 산책이 있는 날입니다. 기존에는 고려산 일몰을 계획했으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가까운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울식물원까지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걸어가는 방법도 있으나 아이들은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식물원 안을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나무 의자와 탁자가 있으니 분위기가 좋습니다. 함께 일몰을 보았습니다. 편의점 커피면과 미리 사 온 김밥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공원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엄마들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싶어 했지만 엄마들은 공원에 불거리가 많다고 설득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수락했습니다. 길을 걸으니 불거리가 많았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호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숲을 헤치며 개구리 소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도심 속 공원이지만 자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인 동건이는 엄마 품속에 업혀서 돌아갔습니다. 시울이와 아린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무력무력 가족 여행은 이렇게 가족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걷고 또 걸어 방화동에 도착했습니다. 덥고 힘들지만 여느 때보다 더 밝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미련 없이 신나게 놀았기 때문일 겁니다.



공원 산책하는 아이들

다음 여행 회의

다음 여행을 준비합니다. 엄마들이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우유, 옥수수, 수박 등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당사자 쪽 자원으로 이루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간식을 먹으며 기분 좋게 회의했습니다.

개화산과 서울식물원을 다녀왔고, 다음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동윤이가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을 칩니다. 동윤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동윤이가 왜 장난을 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결국 ‘관심’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좋은 여행지 후보를 말하니 동윤이도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장난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제가 안 된다고 하니 마음속으로 더 속상했을 겁니다. 더 지지하고 격려해 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다음날 수료식과 여행을 또 의논했습니다. 전날 인기가 많았던 하늘공원과 갯벌 가운데 하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10명의 아이 모두 의견이 다양합니다. 정연이가 회의를 주도하며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이는 강점이 많습니다. 이미 복지관에서 여러 활동을 했고 스스로 할 줄 압니다. 혹여나 정연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정연이는 동생들의 말을 경청하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시간보다 들어주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덕분에 모임도 더 풍성합니다.

갯벌로 여행지를 정한 후에 어떻게 놀지 생각했습니다. 갯벌 영상을 보며 조개를 어떻게 잡는지 살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여행지와 관련해서 공부하니 집중력이 높았습니다.

수료식 일정도 의논했습니다. 장기자랑은 무엇을 할지, 가족 소개는 어

떻게 할지, 여행 발표는 누가 할지 정했습니다. 이정 정연은 진행과 PPT를 맡았습니다. 아린이는 대본을 쓰기로 했습니다. 장기자랑은 다 함께 '꿈꾸지 않으면' 노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노래를 찾고 불러보았습니다. 개별 장기자랑으로 마임과 마술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소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활동이 가족 여행인 만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랐습니다. 각자 가족의 특징과 장점을 썼습니다. 정연이는 엄마에 대해 기타를 잘 친다, 요리를 잘한다, 기쁨 무섭다 같은 웃으며 들을 수 있는 가족 소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아린이는 부끄러워서인지 꼭꼭 숨기며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아린이는 서울 오빠의 좋은 점만 적었는데 서울이는 아린이 소개를 장난스럽게 적었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두 가정 모두 아빠의 설명이 비슷했습니다. 잠이 많고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행은 아빠들도 꼭 같이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아빠와의 관계도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영종도 갯별 여행

오늘은 갯별 여행을 하는 날입니다. 10명의 아이와 4명의 어머니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가 건희 승훈 어머니는 개인 사정으로 못 가셨습니다. 대신 반가운 손님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이웃에 함께 사는 운동우 님의 딸 소현이와 가깝게 지내는 이상관 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원래 운동우 님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승합차 두 대로 이동했습니다. 한 대는 복지관 차, 다른 한 대는 어머니께서 민들레차를 빌리셨습니다. 영종도로 가는 길, 차 안이 시끌벅적합니다.

동윤이가 가는 길이 지루한지 짜증을 부렸습니다. 큰 형 동준이가 동윤이를 챙겼습니다. 김미경님께서 동준이를 칭찬하셨습니다.

“역시 동준이가 큰 형이다, 동준이가 동생들을 잘 봐주네~”

동준이가 동윤이를 옆에서 더 잘 살폈습니다. 칭찬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종도 마시안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갯벌에 들어가기 좋았습니다. 날씨가 무럭무럭팀을 도왔습니다. 박정준님이 갯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챙겨주셨습니다. 소현이와 함께 다녔습니다. 소현이가 밝고 장난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함께한 손님들이 계시니 무럭무럭 가족 여행이 풍성했습니다. 동네 여러 이웃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상관님께서도 간식을 한 보따리 사주셨습니다. 동네 이런 모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잘 이루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했습니다.



영종도 가족 여행

수료식 준비

아이들과 대부도 여행과 수료식 준비 회의를 했습니다. 사회자 대본도 완성하고 여행 발표 준비도 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무조건 도와주기보다 마음에 두는 사진을 함께 고르고 제목을 붙이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각자 발표하고 싶은 여행을 골랐습니다. 발표자가 여행 사진을 골랐습니다. 어린 동윤이는 개별적으로 만나 도왔습니다. 동윤이의 속마음도 들었습니다. 다 함께 부를 노래도 연습했습니다. 아린이는 '달팽이의 하루' 한 곡을 더 부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편지도 썼습니다. 정성껏 편지를 쓰는 모습이 예뻐니다. 수료식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함께한 여행을 멋지게 발표하는 겁니다.

무력무력 대부도 수료 여행

기다리던 대부도 수료 여행입니다. 아침 8시, 복지관에서 만나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출근 시간과 겹쳐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작은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어느새 같이 노래하며 신나게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입니다. 박정준 님께서 장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15명이 써도 넉넉한 공간과 마당이 있습니다. 갯벌도 보이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마음껏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입니다.

먼저 연날리기 놀이를 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연을 꾸몄습니다.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연을 날렸습니다. 각자 꾸민 연이 멋있었습니다. 잘 날지 못하는 연은 박정준 님께서 조금 손을 보자 금세 고쳐졌습니다. 다들 연을 신나게 잘 날렸습니다.



물놀이 하는 아이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총도 쓰고 바가지로 물을 채워 놀았습니다. 물풍선도 만들어 던지며 놀았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마음껏 노는 모습이 저도 부러웠습니다.

물놀이가 끝나고 유부초밥과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배고팠는지 다들 맛있게 먹습니다. 밥을 먹고 갯벌에서 놀았습니다.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한참 놀았습니다. 게도 한 바구니 잡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았습니다.

늦은 저녁, 수료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발표 준비를 하고, 엄마들은 공간을 꾸몄습니다. 수료식 회의를 자주 못 온 건희와 승훈이는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정연과 이정의 사회를 봤습니다. 권대익 선생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족 소개를 했습니다. 정연이는 가족을 동물에 비유했습니다. 준비한 발표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서 경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셨

습니다. 장기자랑으로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고, 이정이가 마음을 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준비한 편지를 읽었습니다. 자녀가 엄마에게 편지를 읽고 엄마도 자녀에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아이들이 실습생인 저에게도 편지를 써서 읽어주었습니다. 감동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다 함께 하는 공연입니다. 아이들이 ‘꿈꾸지 않으면’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감동이 넘칩니다. 답가로 부모님께서 공연을 했습니다. 우쿨렐레와 타악기로 노래했습니다. 근사했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족이 서로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3주간 있었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아이들과 하는 단기사회사업이 이렇게 매력 있을 줄 몰랐습니다. 행복한 수료식이었습니다.



무력무력 수료식 모습



편지 읽는 아린



수료식 단체 사진

윤동우 님 가족 여행 | 안예영 권대의

가족 여행

윤동우 님은 지금까지 세 번의 단기사회사업 실습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2017년 여름은 중년 이웃들과 나들이를 다녀오셨고, 2020년 1월에는 아파트 이웃과 떡국 모임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여름은 윤동우 님과 딸 소현이가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소현이가 가고 싶어 하던 바다로 다녀오셨습니다. 여행을 직접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아빠와 딸은 마음껏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가정과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인사

윤동우 님을 자주 만나시는 하우정 선생님께서 윤동우 님과 만남을 주선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윤동우 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우정 선생님께서 다독여주셨습니다.

“윤동우 님께서 워낙 잘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윤동우 님께서 승강기 앞까지 마중 나오셨습니다. 댁까지 안내해주십니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방 안에 있던 소현과 인사했습니다. 윤동우 님께서는 몇 번 인사드렸지만, 소현과는 첫 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차 있고 커피 있어요. 뭐 드실래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윤동우 님께서 마실 것 내어주십니다. 따뜻한 녹차를

마셨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조금은 쌀쌀했던 공기가 따스합니다. 따뜻한 차 때문인지 윤동우 님의 따뜻한 마음 때문인지….

그동안 어떻게 여행하셨는지, 소현이는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행 준비를 거들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찾아뵙고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소현이와 아파트 단지 열 바퀴

“소현아, 밖에 바람도 불고 시원하더라. 선생님이랑 산책하러 나갈까?”

“네.”

“윤동우 님, 오늘은 소현이와 산책 다녀올게요. 다음에는 윤동우 님과도 산책하고 싶어요.”

“예, 그래요.”

고맙게도 소현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윤동우 님께 인사드리고 소현과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동네를 잘 아는 소현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소현이 좋아하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렁이, 자전거, 놀이 여행, 소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현이는 이상관 아저씨와 가족처럼 가깝게 지냅니다. 아저씨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열 바퀴를 돌 정도로 이야기가 풍성했습니다. 또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개화산 산책

“저희 바다 여행 가기 전에 가볍게 한강에 가거나, 개화산 일몰 보러 가면 좋겠어요~”

“개화산 밤에 가보고 싶어요. 낮에는 두 번 가봤는데, 밤에는 못 가봤어요.”
가벼운 마실을 제안했습니다. 마침 소현이 저녁에 개화산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운동우님은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상관님과 함께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내친김에 오늘 가자! 우리 이상관님께도 여쭙보러 가는 거 어때?”

소현과 함께 이상관님께 부탁드리러 갔습니다. 이상관님께 개화산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개화산 같이 가요~ 같이 가주세요~ 제발요~”

소현이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 이상관님께서 오늘은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하다며 내일 가자고 하십니다. 소현과 그 둘레 사람이 함께 가길 바랐기에 소현에게 물었습니다.

“소현아, 그럼 개화산은 내일 갈까?”

“아니요. 오늘 가고 싶어요.”

소현, 권대익 선생님과 개화산 하늘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소현이 말이 많아졌습니다. 신난 듯했습니다. 소현과 함께 길을 찾아가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소현이 잘 걷습니다. 체력이 좋습니다. 소현과는 다른 산에 가도 괜찮겠습니다.

하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산 위로 붉은 해가 점차 내려옵니다.

“우와!”

소현이 옆에서 연신 감탄했습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찍어달라고도 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날이 아주 맑았습니다. 일몰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름을 물들인 빛깔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함께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소현 덕분입니다. 소현에게 일몰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산에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산에서 일몰을 보는 첫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윤동우 님이나 이상관 님과도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현과 발걸음이 더 가볍습니다. 다음엔 아빠와 한강 여행도 가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소현이 좋다고 합니다.



함께라 더 아름다웠던 개화산 일몰

무력무력 가족 여행 준비

어제 윤동우 님과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윤동우 님은 복지관으로 오는 길에 무력무력 가족 여행 팀을 만나셨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봤는데 여럿이 어디 가더라고요. 김미경 과장님도 계시던데요.”

무력무력 팀을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윤동우 님께 무력무력 가족 여행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여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나도 다음에 끼워달라고 해야지.”

윤동우 님께서 무력무력 팀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김미경 과장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실습 초반부터 윤동우 님께서 무력무력 가족 여행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가 조심스러워 제안하기를 미뤘습니다. 윤동우 님이 먼저 마음을 표현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무력무력 팀에서 산이 아닌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무력무력 팀의 대표이신 김민경 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김민경 님, 무력무력 팀에서 갯벌이나 하늘공원으로 여행 가신다고 들었어요. 윤동우 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이번에 함께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윤동우 님 알죠. 전에 면접도 같이했었어요. 윤동우 님과 소현이가 함께 간다는 거죠? 저희는 정말 좋은데요~”

윤동우 님께서도 좋아하셨습니다. 하늘공원 경사가 있어도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여행안내는 김민경 님께서 윤동우 님께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무력무력 가족 여행 이야기

기다렸던 무력무력 가족 여행 날입니다. 갑자기 운동우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신 이상관님께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영종도로 가는 길, 다 함께 할 수 있는 끝말잇기 놀이를 했습니다. 세 글자로만 답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정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다음 차례인 소현이 대답 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현이 뒤를 돌더니 이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현이 오랜 시간 생각해 대답했습니다. 아직 조금은 어색하지만 같이 어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말잇기는 영종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갯벌 체험을 했습니다. 소현은 도구가 없었습니다. 소현이 박정준님께 직접 도구를 빌렸습니다. 소현은 정연 다연 김선재 선생님과 함께 조개를 쫓았습니다. 차에서 낮을 가리던 소현은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소현아, 이모가 판 데 와서 굶어봐.”

박정준님께서 당신을 ‘이모’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모, 친근합니다. 벌써 꽤 가까운 사이가 된 듯합니다. 박정준님께서 소현이가 조개를 잘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소현아, 이리 와봐. 같이 서울이 위에 흠 올리자.”

김민경님께서 소현을 부르셨습니다. 소현에게 함께하자고 하셨습니다. 소현이 신나게 서울에게 펄을 묻혔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물때가 되어서 갯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관님께서 마실 음료를 사주셨습니다. 한창 놀다가 마시는 음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이상관님께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삼촌’, ‘선생님’ 하며 이상관님께 음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챙겨온 간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박정준님께서 아이들에게 케이크 한 입씩 먹여주셨습니다.

“소현아, 케이크 먹자. 이모 쪽으로 와 봐. 아~”

물이 들어온 바다에서 한참을 놀았습니다. 해가 들어갈 즈음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잠시 대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그새 뛰어놀았습니다. 소현도 함께였습니다.

사장님의 부름에 아이들이 식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현도 함께 가다가 뒤를 돌더니 제게 손짓합니다. 일부러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한 탁자로 모여들었습니다. 소현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있는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제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끼리 함께 먹고 다 같이 물러나가 또 뛰어놀니다. 소현도 함께 ‘얼음 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바다에서 노는 모습

윤동우 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소현이 친구들과 잘 놀고 있다고, 어른들도 많이 챙겨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잘됐네요. 소현이 그 녀석이 친구가 적어서요. 이번 여행이 소현이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가 됐겠어요.”

무럭무럭 가족 여행에 함께하며 소현의 또래 관계가 두터워지길 바랍니다. 알고 지내는 이웃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윤동우 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습니다. 윤동우 님의 바람대로 이 여행을 시작으로 소현의 마음밭이 넓어지길 넉넉해지길 소망합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가장 앞자리에 앉은 소현은 몸을 아예 뒤로 돌렸습니다. 소현이 먼저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깔깔 웃어가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행 갈 때와 올 때 소현이 다릅니다. 갈 때는 어색한 분위기에 이름도 부르지 않더니 이제는 서로 언니, 동생 하며 부릅니다.

윤동우 님께서 소현을 마중 나오셨습니다. 다른 부모님과 반갑게 인사 나눴습니다. 윤동우 님께서 함께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과 이웃 사이가 되었습니다. 소현은 동네 어른과 관계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행 준비

윤동우 님과 산책하며 가족 여행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현이가 그렇게 바다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소현이가 좋아하니깐. 소현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 소현이가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소현을 아끼는 윤동우 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장소, 시간, 이동 수단, 같이 갈 사람을 정했습니다. 장봉도에 가기로 했습니다. 윤동우 님께서 뱃삿과 일정을 모두 알아보셨습니다. 식당도 직접 알아보셨습니다. 여행 날짜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 번 논의 끝에 차량은 복지관 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복지관 차를 대여하셨습니다.

무력무력 가족 여행 이야기

즐거운 장봉도 여행 날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후 시간의 일정은 그때 가서 맡기고 우선 지금 즐겁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삼목선착장까지 가는 길, 윤동우 님께서 매실 주스와 떡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간식이 더해지니 여행가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여행을 축복하듯이 선착장에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온 햇빛이 반갑습니다. 윤동우 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비 온댔어? 날이 이렇게 좋은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 보니 삼목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차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윤동우 님과 권대익 선생님께서 배표를 사러 다녀오셨습니다. 윤동우 님께서 당신 돈으로 배표를 결제하셨습니다.



갈매기에게 새우깡 주기

드디어 장봉도로 들어가는 배를 탑니다. 윤동우님께서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새우깡 두 봉지도 사셨습니다. 하나는 소현이 손에, 하나는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줬습니다. 윤동우님도 이상관님도 팔을 높이 들고 동참했습니다. 소현은 한꺼번에 달려드는 갈매기 떼에 다가가기를 머뭇거렸습니다.

“소현아, 아빠 봐봐. 이렇게 손 뻗고 하는 거야.”

소현이 아빠를 따라 손을 높이 뻗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듯하던 소현도 이내 즐거워했습니다.

장봉도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오로지 소현이 좋아하는 바다만 생각하셨던 윤동우님입니다. 소현이 드디어 눈앞에 바다와 마주했습니다. 소현은 어떤 기분일까, 그런 딸을 바라보는 윤동우님은 어떤 기분일까... 팬스레 몽클합니다. 바다에 발도 담그고 물장구를 쳤습니다.



아름다운 가족사진

점심은 윤동우 님이 봐두신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밥값은 윤동우 님과 이상관 님이 각자 회비로 계산하셨습니다. 여행하며 먹는 칼국수와 김치찌개는 꿀맛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섬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구름다리도 다녀왔습니다. 다리 위에서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추억을 남겼습니다. 아버와 딸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배 시간을 놓쳐 한 시간 동안 선착장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시간이 남은 김에 벤치에 모여 앉아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소현이 보드게임을 잘 알고 있어서 규칙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재밌게 놀았습니다. 한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가족 여행을 하니 아버와 딸의 관계가 보입니다. 가족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이상관 님과도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마침식 준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마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한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편지 읽고 포옹하기로 했습니다. 실습생이 가족에게 편지 쓰기로 했습니다.

윤동우 님과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오전에 병원을 다녀오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동우 님께서 편지 쓰는 일을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이를 거들어드렸습니다. 윤동우 님께서 복지관에 오셨고 편지지를 드렸습니다.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 편지에 담으셨습니다. 마침식 장소는 이상관 님 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윤동우 님께서 직접 부탁하셨고 장소를 섭외했습니다.

가슴 깊이 남을 마침식 이야기

마침식 날입니다. 이상관 님께서 다과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권대익 선생님이 만든 여행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상관 님 댁에 있는 큰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큰 화면으로 여행 영상을 보며 추억했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을 인화해서 선물했습니다. 윤동우 님 가족과 이상관 님이 이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상관 님께서 액자를 바로 TV 위 선반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먼저 윤동우 님과 소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현이 윤동우 님과 이상관 님,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상관 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편지 낭독 후 윤동우 님과 소현의 뜨거운 포옹

마지막으로 윤동우 님이 소현에게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편지를 읽은 뒤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이 기회로 소현이 아빠의 속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오늘로 윤동우 님과 소현을 만나는 일도 마지막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윤동우 님께서 좋은 사회복지사 될 거라며 축복해주셨습니다. 소현이 함께해서 좋았다고 잊지 말아 달라고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한 일뿐입니다. 이 여름, 뜨거웠던 여름.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사람살이 배웠습니다 | 김선재 실습생

사회사업 시작

‘너는 사회복지 하면 잘 어울리겠다.’

학창시절 선생님, 친구들이 참 많이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썩 좋지는 않았습니니다. 마냥 봉사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성격 좋다는 뜻이겠지’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입학할 전공을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선택지 중 사회복지도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커오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많이 생각 났나 봅니다. 결국, 여차여차하여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사업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화11 복지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입니다. 20년도 방화11 복지관에서 동계 실습을 했던 강연숙 학생의 발표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재밌었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

평소 알고 있었던 사회복지 현장실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실습생이 온전히 맡아서 했습니다. 단순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가 이루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을 누리며 여행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해보고 싶지만 망설였습니다. 이미 실습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굳이 세 번까지 할 필요 있나 싶었습니다. 졸업 준비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발표 한 번 듣고 두 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강연숙 학생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좋은 말과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물어본 것은 하나인데 열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 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혼자 논리적으로도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두 달 실습한다고 달라질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졸업 준비하고 내 할 일 하기 문제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의 응원, 앞길 막을 장애물 없으니 단기사회사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배움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소박하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껏 감사는 물질적이어야 제대로 감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물, 현물 드러야 감사 완성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진심 있는 편지보다 의미, 내용을 담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심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기쁜 감동이었습니다. 감사의 완성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람살이 배웠습니다. 사회사업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어째서인지 당사자 앞에 서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당사자 같고 당사자가 나 같습니다.

사람살이 웃고 울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 뿐 결국 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 다를 것이 없으니 당사자가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당사자를 마음속에 들이니 저도 당사자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단기사회사업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주체성 있는 사회사업을 배웠습니다. 평소 주는 대로 받는 대로 살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려 합니다. 주체성 있는 사회사업은 제 성격에 잘 맞습니다. 당사자도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 원하는 것 이루고 자신 있게 당사자 좋아하는 것 했으면 합니다.

감사

무럭무럭 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 해준 것 보다 받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뭐가 그리 좋은지 안아주고 매달려 줍니다.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기분 느꼈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합니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할 수 있게 해준 무럭무럭 아이들 고맙습니다.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새봄, 예영, 예지, 희선, 정아, 민주 당 신들만 보고 있어도 단기사회사업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업 하며 느끼고 배운 점 많습니다. 사실 동료 보며 느끼고 배운 것은 더 많습니다.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한 애춧합니다. 지금까지 알아 온 동료들 많지만 이번만큼은 참 특별합니다. 덕분에 많이 성장했고 배웠습니다. 저보다 어린 동료지만 이렇게 속 깊고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합니다. 많은 배움을 준 동료들 평생 놓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함께 걷는 길 | 조새봄 실습생

함께 걷는 길

사회복지가 알고 싶어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배우고 싶고,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걷기 시작했지만, 그 길을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제 곁에서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걷고 있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지지도 친구들의 지지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스스로 다독이며 걸어 갔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포기하자, 뒤 돌아가자, 너의 길이 아니다.’ 수많은 소리가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 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을 만났습니다.

“조새봄 선생님을 잘 돕고 싶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 손을 잡고 걸으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걷는 길은 더 험하고, 숨이 가빠 올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길에는 감동, 추억,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동료들과 함께 걷고 또 걸으니, 수료식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발 벗고 나서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따뜻한 한마디를 잘 전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웃는 모습에 가짜 웃음같이 느껴졌고, 울음이 가식같이 다가왔습니다. 남이 볼까 두려워 제 감정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회사업을 하면서 제 감정을 다시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눈물이 강점이라 말해주고, 응원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함께 울어주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런 동료가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 더는 감정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들어내며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받은 감동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더 신나게 지역사회를 누비며 사회 사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었고,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저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사회사업을 하니 감동이 더 배가 되었고, 마음이 풍족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억을 얻었습니다

이곳에 와 복지요결을 처음 배웠습니다. 복지요결을 배우며 ‘그래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요결 방식대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여름 사회사업을 복지요결 방식대로 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욕만 앞서 단기사회사업을 시작하니, 첫 만남부터 어려움이 부딪혔습니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수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고 늘 곁에서 응원해주는 동료들과 권대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1시간30분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슈퍼바이저가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좋은 동료를 만나게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표정이 어둡고 힘이 들 때도 그저 곁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항상 뒤처질 때 먼저 찾아와 곁에서 걸어주던 선재 오빠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공감의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예영이가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일을 잘해나가고 언제나 살갑게 인사해주던 예지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힘이 들 때 누구보다 먼저 괜찮냐는 말을 건네주는 물어주는 정아가 있어 위로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힘이 되어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민주가 있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는 희선이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함께 밤을 지새워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나 달려와 주시는 열정 가득한 권대의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동료와 선생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회사업가의 길을 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실습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활동하는 6주간 행복했기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길을 갈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번 여름의 기억이 오래도록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추억으로 남게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리게 걷는 사람 | 안예영 수료사

2020년 1월 15일. 구슬 7기를 수료하며 다짐했습니다.

‘올여름은 단기사회사업으로 보낸다.’

작년에 실습했고 구슬 활동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락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바르게 실천하려면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사회사업 바르게 배울 방법. 제게는 단기사회사업이 그랬습니다.

1월, 2월, 3월. 어느새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복지관들은 하나둘 실습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불안은 점차 커졌습니다. 일반 실습도 하지 않는 이때 단기사회사업이 열릴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뜻이 아닌 줄 알고 내려놓겠다 했습니다.

5월. 어느 모임에서 권대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름에 단기사회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지만 그래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마음이 들떴습니다. 지원한다 한들 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여름을 시작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방화2동 발바닥 닳도록 두루 다니며, 당사자보다 앞서지 않고, 가슴 뛰게 즐겁게 누리길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전심 다 해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발바닥 닳도록 두루 다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얇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두루 다녔습니다. 여유가 있다 싶으면 동료들 사업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때 그 일의 주체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 사이 관계가 살아나고 생동하는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마음 다해 당사자를 만나는 동료들의 모습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두루 다닌 만큼 사회사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사자보다 앞서지 않길 바랐습니다. 당사자보다 한 번도 앞서지 않았나? 늘 한걸음 뒤에 있었다? 자신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내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높아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가슴 뛰게 즐겁게 누리고 싶었습니다. 일하면서 온전히 즐기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회사업 내가 재밌게 해야 하는데, 일로써 부담 가운데 머무르다 끝날까 두려웠습니다.

지난 6주를 돌아보면 즐거운 기억뿐입니다. 때때로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미와 기쁨과 행복이 더 컸습니다. 즐겁게 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함께한 동료 선재 새봄 예지 정아 민주 희선, 그리고 권대익 선생님 덕분입니다.

어젯밤 민둥산을 내려오며 보았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까만 밤하늘, 그 아래로 쏟아져 내리던 별들, 그 아래로 빛을 뿜내던 반딧불이. 고요함 속 풀이 바람에 스치던 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 귓가에 남아 아득히 울립니다.

그 아름답던 자연도 이토록 가슴에 남는데, 함께했던 6주 그 반짝이던 시간은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겨질까요. 소중한 동료 선재 새봄 예지 민주 정아 희선. 소중한 선생님 권대의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회사업 현장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어떤 사회사업가 될래? | 어예지 수료사

평소와 다른 고민 그리고 선택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정하기 전 나에게 어떤 유익 불이익이 있을지 모두 계산하고 선택합니다. 먼 미래까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양, 선택하면서 유익 불이익을 종이에 적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해 해결책까지 생각하는 참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방화11종합복지관은 고민이 참 짧았습니다. 전 실습 수퍼바이저 선생님이 모집공고문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방중 실습 생각 전혀 없었던 저. 실습을 구할 생각조차도 없었지만 괜히 하고 싶은 마음에 덜컥 전화했습니다.

평소 선택하던 방식이 아닌 탓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너 잘 선택한 것 맞니?'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선택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너무 두렵고 힘들 것 같아 제 선택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맞다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길이 아니라면 실습 합격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다음날부터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 길을 걷겠다 다짐합니다.

이예지 뭐 될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방학 시작 전 방학 계획을 세웁니다.

매 방학 이예지 뭐 될래? 라는 주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졸업 후 또는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실습에 집중하기 위해 이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학 때는 미래에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도와야 하는 이유와 방법. 사회사업을 더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확신이 셉니다. '이예지. 뭐될래'가 아닌 '이예지. 어떤 사람, 사회사업가 될래?' 그 답을 이번 방학 좋은 동료, 권대의 선생님과 함께 찾았습니다.

열정을 먹고 사는 사람

왜 사서 고생이냐며, 편하게 좀 살라며, 자신이라면 못하겠다며 실습을 말립니다. 열정을 먹고 사는 저는 이런 말들이 칭찬으로 들립니다. 나의 열정을 격려사로 응원받습니다. 13명의 응원으로 열정을 배가 됩니다. 그 열정으로 6주를 불태웠습니다. 실습 전에는 둘레 사람들에게, 실습 중에는 실무자 선생님과 권대의 선생님, 동료들에게 격려를 받습니다. 이게 격려의 힘을 까요? 열정이 솟아납니다. 그 열정을 먹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배웁니다.

배움.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약함을 드러내는 법은 어렵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약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첫째 딸로 태어나서인지 항상 씩씩하게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격려로 바꾸어 주는 사람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저의 곁에 있습니다. 실습생 워크숍, 사업을 준비하며 서로의 약함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은 나눌수록 나뉘집니다. 선재 새봄 예영 민주 희선 정아 와 곁에 있으며 배웁니다.

배움. 누구처럼 사회사업 하고 싶니?

권대익 선생님은 가르침보다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알려주십니다. 충고보다는 격려를 해주십니다. 진지함보다는 웃음을 지으십니다. 훈계보다는 제안하십니다. 실습생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실습생들을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시십니다. 실습생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사회사업 흠뻑 빠져 공부한다면 권대익 선생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훗날 슈퍼바이저가 되는 날이며 관심과 사랑만 주는 권대익 선생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멘토라면, 권대익 선생님이 저의 멘토십니다.

소망. 이벤트가 되지 않길

복지요결 강연 듣고, 매일 일지 쓰며 나의 실천을 되돌아보고 권대익 선생님께 지혜를 구하던 6주의 시간. 이 시간이 그저 삶 중 이벤트로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또 배우며 배운 만큼 실천하고 싶습니다.

감사.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체력

평생 오를 산을 이번 6주에 다 올랐습니다. 체력이 좋지 않았지만 모두 감당해내었습니다. 아직은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한 등산이지만, 이제는 자연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매일 만났던 우리가 내일이면 볼 수 없다니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별 것도 아닌 일에 함께 웃고 늦게 집에 돌아갈 적에도 여러분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서로 존댓말 하던 당사자 면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별이라네요.

선생님의 아재 개그도, 선재 오빠의 능글맞은 멘트도, 새봄 언니의 높은 텐션도, 예영 언니가 나누어주던 비타민도, 민주의 차갑지만 따뜻한 물음도, 희선이의 살가운 인사도, 정아의 정크박스도, 그리울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사랑받는 법, 만남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방화동에서의 추억 잊지 않을 것이고 잊지 못할 거예요. 나의 자랑이자 강점인 여러분이 있기에 사업에 의미를 찾았고, 끝까지 할 수 있었고 함께함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길을 동료가 생겼습니다 | 양정아 수로사

사회사업 단어 뜻 모르고 실습 뛰어 들었습니다. 같은 대학교 선배인 연속 언니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한 이야기를 곁에서 들었습니다. 기나긴 생각 끝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속 언니는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허투루 대충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사는 곳에서 자그마치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그런 건 저의 길에 상관없었습니다. 열정 넘치는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방화11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새롭게 배울까 하는 설렘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격려의 글도 돌레 사람에게 잘 받았습니 다. 그런 응원에 힘입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과업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당사자와의 첫 만남부터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면에 자리 잡아 만남 때 걸림돌이 됐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의 관계에 깊이 파고들 수 없었기에 어려웠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사람으로 있기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기나긴 장마가 과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와 함께 기획했던 여행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과업에서 당사자들에게 좋은 추억과 웃음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속상하고 미안함이 컸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잘했어."라는 위로의 말이 더는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의 마음을 몰라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사회사업 나와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가 나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 처음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을 궁리할 때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생각 끝에 슈퍼바이저인 권대익 선생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털어놓은 덕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위 사람에게 그 일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려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나눈다면 두 배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두 배로 나눠줍니다.

앞으로 실습하며 배운 행복했던 나날들, 감사, 소망, 추억 기억하며 살아 가려 합니다. 이번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실습하며 어려운 일들보다 그러한 일들이 더 가득했습니다. 행복, 감사, 추억이 저의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뤄진 까닭은 좋은 슈퍼바이저와 동료들이 있던 덕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6주가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온종일 바라보며 사회사업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 같은 길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혼자 걷던 길을 이제는 함께 걸을 동료가 생겼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며 다독여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 많이 든 우리 동료들, 슈퍼바이저 권대익 선생님께 무한 사랑받았

습니다. 이 사랑 갖고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잘 나누는 사람 되겠습니다.
선재, 예영, 민주, 희선, 예지, 새봄 모두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으니 이
제 함께 바르게 실천합시다. 추후 현장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러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동료들.

영당이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 신희선 수료사

작년 이맘때 먼저 실습을 한 언니가 있습니다.

“희선아, 단기사회사업 해볼래?”

이 한 마디로 제게 물어주었습니다. 먼저 경험한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예림 언니 덕에 처음 단기사회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사회사업? 사회복지? 다른 건가? 처음 접하는지라 더더욱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하며, 책에서만 배웠던 사회복지가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봉사활동 할 때, 왜 책과 봉사는 다를까? 분야는 같지만 다른 내용일까? 왜 다를까 생각했습니다.

사회사업은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어려웠습니다. 겁먹었습니다. 아주 두렵고 걱정했지만, 그래도 처음인지라 더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방화동에서 먼저 걸언 했던 사회사업 선배의 행복했던 사회사업의 경험으로, 그 이야기로, 제 생애 첫 사회사업 걸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배움

사회사업은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방화동에서 여름 단기사회사업 시작하기 전, 사회사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 시작을 해야 했던 만큼,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사업 바르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 열정으로 뛰어든 만큼, 미래의 직업으로까지 이뤄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먼저 배웠던 선배의 경험이 귀

했습니다. 먼저 걸언한 예림 언니에게 권대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는 저를 맡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회사업하시는 분이라며 재밌는 분이라고 소개해주었습니다.

권대의 선생님과 처음 통화할 때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전까지도 예림 언니와 통화했습니다. 통화를 떨려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많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언니의 응원에도 저는 떨었습니다. 권대의 선생님과 통화할 때에도 “네. 네.” 대답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계속 떨리는 제게 권대의 선생님은 웃으며 괜 찮다며, 떨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첫 대화에 격려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권대의 선생님이 누구신지 더 뵙고 싶었습니다.

첫 사회사업을 좋은 권대의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복지 요결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사회사업, 이웃과 인정, 근본…. 새롭고 많은 단어를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하루 쌓일수록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사회복지의 일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봉사하며 책과 현장이 다름에 혼란스러움을 단번에 정리해주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땡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한 지 중반쯤에는 나도 모르게 복지인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부르셨던 그 노래가 이제는 제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사업에 스며들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아~이게 사회사업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좋은 가르침 주신 권대의 선

생님이 너무 귀합니다. 진심 어린 사회사업가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선생님. 그 배움이 너무 귀합니다.

사회사업의 첫 배움을, 걸음을 바르게 이끌어주신 한덕연 선생님, 권대익 선생님, 그리고 많은 조언으로 응원가 촉복 주신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의 실무자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머리 맞대며 열정으로 공부해준 동료들에게 고맙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귀합니다.

추억

아직도 동료들과 처음 은하수 어린이공원에서 모였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회사업이라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까, 어떻게 함께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원사로 먼저 동료들을 접했습니다. 먼저 접한지라 더 궁금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듣는 말투와 목소리 너무 떨렸고 긴장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제일 오빠라며 대화를 많이 이끌어 줬던 선재 오빠, 걷는 모습이 ‘푸우’ 같은 실무자 면접을 함께하여 더 반가웠던 새봄 언니, 예림 언니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 만나자마자 말 걸고 싶었던 예영 언니, 지원사의 사진에서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만났을 때 더 바라보게 되었던 예지 언니, 얌전히 앉아서 동료들을 바라보며 긴장했지만, 눈빛이 선했던 정아, 지하철역에서 서로를 먼저 알아보았지만 부끄러워 인사하지 못했던 민주.

그때의 서로 알아가려 하지만 부끄러워했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부터였을까요? 다 같이 모였을 때 많이 떨렸지만,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함께함이 두근거렸습니다. 11명의 치열했던 경쟁률을 뚫고 모인 만큼

더 귀했던 것 같습니다.

7명의 동료가 모여 하루하루 나아갈수록 서로를 알아가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호형호제하기로 하며 더 애뜻해지며, 함께 방화동에서 사회사업 하고, 사회사업 꿈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료들을 만났다는 것어요.

함께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사회사업 잘할 수 있을까, 바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공부했습니다. 많이 어려워하기도 했고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헤매 때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더 함께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복지요결로 공부하며, 실무자 선생님들께 조언 들으며 그리고 당사자와 만나며 이웃과 인정을 느꼈습니다. 배웠습니다. 배우며 쌓아갔습니다.

고려산을 동료들과 함께 올랐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체력이 약한 동료들도 있었고, 지친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무릎이 약한 저에게는 더더욱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권대익 선생님께 포기한다고 이야기할까,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할까. 수없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다들 힘들었을 텐데 더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오르는 내내, 내려오는 내내 응원해줬습니다. 함께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모두가 힘들었고 지쳤을 상황에 티 내지 안아준 동료들을 잊지 못합니다. 사회사업 동료라는 이유로, '함께'라는 이유로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며 격려해 준 동료들이 귀합니다. 그 눈빛과 행동의 따스함을 잊지 못합니다. 힘들면 표정에 바로 드러났던 저의 습관도 이제는 다듬어졌습니다. 힘들어도 웃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언제나 저를 보며 웃어주었고,

함께 나눴고, 어떤 일이든 섬기며 경청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뜻하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을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6주라는 시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발바닥 닳도록 두루 마을을 함께 살피며 공부했던 동료들과 이제는 매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기억날 겁니다. 잊지 못할 겁니다.

6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해준 동료들이 너무 귀합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호형호제로 섬겨준 동료들. 선재 새봄 예영 예지 정아 희선 민주. 항상 7명이라며 불렀던 이름. 챙겼던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

함께했던 그 시간 덕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웃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냥 함께 머무름이 귀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도, 함께 배운 실습의 시간이 끝나고 잊지 않을 겁니다. 이 인연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많은 시간을 나눈, 그 시간에 어떤 상황에도 서로를 생각해준 선재 새봄 예영 예지 정아 민주.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소망

2020년 여름 단기사회사업하며 사회사업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나쁜 개는 없다’ 사업을 맡으며, 당사자들과 함께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사람 사는 냄새 누구나 정붙일만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두려웠고,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조금은 느리고 뒤처졌다고 생각되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당사자와 함께, 당사자가 주인 되게 도왔습니다. 당사자와 함께하며, 당사자를 도우며 어른과 아이가 함께 공존하며, 사회사업가가 발맞춰 돕는 사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실천이 첫 발단이 이번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이었던 만큼, 방화동에서 배웠던 사회사업을, 그 방법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함께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머리 맞대며 활동했던 김경옥 님, 전선미 님, 정연이, 이정이, 다연이, 사랑이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순 없지만, 좋은 기관과 좋은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배운 깨달음과 경험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대학교 3학년의 자리에서 현장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러 돌아갑니다. 아직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이 준비가 이 경험이 어렵고 흐릿하다, 처음이라 두려워하기보다 '처음이니 더 마음껏 사회사업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하려 합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 동안 엉덩이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사회사업과 더 가까이 친해지며, 공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아갈 때쯤에는 준비된 사회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당사자를 만날 수 있는 사회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방화동에서의 걸언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툴러도 어려워도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현장에 나아갈 준비를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비록 그 준비가 소박할지라도, 차곡차곡 쌓아 발전시키겠습니다. 속도에 맞춰 최선을 다해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당사자와 발맞춰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귀한 동료들과 귀한 실무자 선생님들께 발바닥 닳도록 경험하고 배운 만큼 잘 기억하겠습니다.

6주 동안 함께 했던 방화동 주민들, 많은 가르침과 진심 어린 응원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권대익 선생, 호형호제하며 정말 잊지 못할 선재 새봄 예영 예지 정아 민주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함이 행복했습니다.

나에게 삶의 방향과 교훈을 준 아이들 | 김민주 수료사

시작

수료사를 쓰려고 하니 권대의 선생님께 처음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실습 모집 공고가 올라오고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과 전화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친한 사람과도 오래 통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권대의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에게 방해받을까 봐 집에서, 또 안방에서, 또 안방 화장실에서 권대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까먹을까 봐 메모에 꼭 해야 할 말들을 적어놨던 기억도 납니다.

양원석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갈 때 권대의 선생님을 뵈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머리에 꽂히는 듯한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권대의 선생님을 생각하니 그 목소리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전화를 거니 제 기억 속에 계신 권대의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제 여름 단기사회사업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설임

막상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고 나서 면접을 준비하는 데 할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에게 실습이란 그냥 '내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 딱 그 정도만 알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실습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다른 기관보다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아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실습 기관에서 실습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기관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까운 기관에서 해도 괜찮겠다는 자기합리화를 하며 권대익 선생님께 실습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 다.

실습 지원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서는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데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이유도 있었습니 다. 또 지원사 예시를 보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는 인맥도, 읽은 책도, 들은 특강도 없었습니다. 저는 칸을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저인데 실습에 붙을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 저는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실습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시간도 적고, 집에서 거리도 가까운 기관에서 배워도 내가 원하는 바는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 다.

권대익 선생님은 통화로 저에게 먼저 지원사를 봐주고, 면접을 진행해서 미리 합격통보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면접을 보러 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쉽게 실습을 포기하겠다는 제 말에 바로 알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기에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제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찾아서라도 지원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 다.

선생님의 제안에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한번 부딪쳐보기로 했습니다. 합격한 기관에 제 의견을 말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권대익 선생님께 전화 다음 날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제 지원사를 채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지원사였습니다. 사회복지에 깊은 뜻이 없었기에 지원사를 채워나가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준비가 부족했던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 솔직하게 권대의 선생님과 면접을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권대의 선생님 역시 제 지원사에서 책, 특강 주제와 관련된 빈칸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권대의 선생님께 솔직하게 제가 읽은 책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은 특강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가 안 된 제 모습에 선생님은 바로 저에게 불합격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불합격 대신 제가 읽을 책과 자기소개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저에게 책 하나를 읽고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의 배려와 지지, 열정 덕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길로, 뜻 있는 길을 가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신 권대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힘든 시간

실습을 준비하면서 사회사업 진행 초반까지가 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뜻이 있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경찰동아리 기장으로 활동하며 경찰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경찰의 꿈을 위해 달려오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경찰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기도 벌써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뜻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성격인데 그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뜻을 잃어버렸기에 다시 경찰의 꿈을 꾸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경찰이 되는 데에 벌써 겁을 먹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입시 지원을 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마침 생활기록부에서 다른 학과를 지원하는 것보다 사회복지학과에 관해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 보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기 유리한 학생기록부였습니다. 일이 쉽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뜻 없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뜻 없이 사회복지기관에 방문했습니다. 뜻 없이 과제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위해 배우고 싶은 않은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하듯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해나갔습니다. 초, 중, 고 내내 배우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해왔듯이 대학교에서도 아무 열정 없이 사회복지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열정 없이 졸업을 위해 공부하는 상황이 익숙한지라 제 생활이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살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할 열정도, 하고 싶은 일도 없었기에 제 현실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3학년 1학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만 해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실습 지원을 앞둔 기말고사 기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실습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추천으로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 실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이신 어머니의 지지와 격려조차도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짜증을 낸 적도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추천해준 탓에 내

가 힘든 것일 수도 있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실습이 졸업요건이기에 실습하긴 해야 하지만 굳이 실습 기간도 길고 집에서 거리가 먼 기관에서 해야 하나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저를 도와주시고 믿어주시는 권대익 선생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어주시는 권대익 선생님이 있기에, 도와주시는 어머니가 있기에,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실습을 선택하고 지원했기에 마음을 매일 매일 다잡고 곳곳이 걸어갔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화동에 왔습니다.

바뀐 생각

사회사업을 막 시작할 때까지는 제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확인하러 왔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사회복지가 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잘할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지 않았고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복지요걸을 공부할 때에도 당사자와 지역사회 공생성을 현장에서 어떻게 바르게 잘 실천하는지도 감이 서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투성이였습니다. 사업 초반에 아이들을 만날 때조차 서툴렀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낯을 많이 가리고 다가가지를 못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기에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가 제가 해야 하는 일이어서 하는 게 아닌 하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 권대익 선생님의 제안으로 사업 2개를 덜컥 맡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해야 할 일이 2개라는 생각에 사업을 2개 맡

은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아이들 부모님께 연락하기가 귀찮고 힘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고 전화하는 일이 힘든 저에게는 특히 어른들과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남에게 부담 주고,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저에게는 제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수록 그 사람에게 제가 부담이고 피해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계속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하다 보니 하게 되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연습했지만 아직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사회사업을 하는 동안 묻는 방법을 배우고, 부탁하는 방법을 배우고, 의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6주 전보다 성장한 제가 보였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하면서 참 많이 얻고 갑니다. 당사자와 함께하는 즐거움, 동료들과의 추억, 권대익 선생님과의 추억, 진로에 대한 반향을 얻고 갑니다. 많이 배웠기에 더 고민해야 하고 더 공부하기로 다짐하면서 방화동을 떠나려고 합니다. 방화동에 있으면서 인사를 나누었던 주민들, 아이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쳤던 1102동 앞 공터,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녔던 옹기골 공원, 실무자 선생님들,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공유 터 등 모두 잊지 못할 겁니다.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알려주신 권대익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열정이 있기에 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제가 아이들과 재밌게 뛰어놀고 동료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기에

아이들과 함께한 3주, 너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 기간이 짧

다고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놀고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사업이 2개라 힘들었지만, 사업이 2개인지라 더 많은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뛰어놀기 좋은 곳을 가면 괜히 자전거여행을 함께했던 이룸, 이준, 서광, 영광, 현지, 재홍이가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참 놀기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누리면서 짓는 미소가 보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안 불고 비가 오지 않으면 괜히 배드민턴을 같이 쳤던 혜민, 가현, 서현, 서연, 수아, 소영이가 생각납니다. 아이들과 신나게 땀 흘리며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집니다. 단기사회사업이 끝나니 그동안 아이들과의 활동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꾸 '아이들과 더 뛰어다닐걸, 더 함께할걸, 더 마음을 나누어줄걸, 더 대화를 나눌걸'이라는 생각들이 영켜 섞입니다. 첫 실습, 처음 맡아본 단기사업이기에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훨씬 큼니다. 실습이 끝나가니 알게 모르게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다가 떨어지니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첫 실습, 첫 단기사회사업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알려주고 간 계 있었습니다. 사회사업을 흥미롭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생각하던 저였습니다. 왜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저에게 사회복지를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아직은 내 길이 사회사업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사회사업의 매력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회사업을 더 알아보고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저에게 삶의 방향과 교훈을 준 이 아이들을 평생 잊지 못할 듯합니다. 저에게 많은 사랑과 기쁨, 웃음을 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있기에

6주 동안 함께해준 동료들이 있기에 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 곁에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6주 동안 함께 웃고 울고 했습니다. 이런 동료들과 마지막이기에 너무 아쉽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래오래 이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동료들에게 많이 배우고 갑니다. 선재 오빠에게 다정함을 배웠습니다. 새봄 언니에게 열정을 배웠습니다. 예영 언니에게 감사를 배웠습니다. 예지 언니에게 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아에게 대화를 배웠습니다. 희선이에게 세심함을 배웠습니다. 선재 오빠의 다정함을, 새봄 언니의 열정을, 예영 언니의 감사를 예지 언니의 말하는 방법을, 정아의 대화를, 희선이의 세심함을 닮고 싶습니다. 동료들이 가진 강점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웠고, 위로받았고, 격려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곱 후배에게 전하는 마음 | 수료증, 실습 지도자 권대의

2020년 사회사업 실무학교 마지막 순서, 수료식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온 힘을 다해 이 여름을 함께했습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함께했습니다.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감동 감사가 넘쳤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은 제가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이 신나는 일을 못 하게 될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매일 뉴스를 살폈습니다. 관부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 실습을 어떻게 이룰까 궁리했습니다. 아침 차게 준비한 굴업도 30명 조별 여행은 무산되었습니다. 실습생 7명과 외부 활동 중심으로 1박을 하지 않는 방법을 조건으로 실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단기사회사업 기관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한덕연 선생님께서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상황을 살피고 준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120시간 일반 실습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획한 6주를 모두 마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열정으로 실습 지도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우리가 복지 야성 소진과 타성을 읽었듯이 뜻, 사랑, 재미로 이 일을 합니다.

뜻.

실습생과 함께하는 단기사회사업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단기사회사업은 복지요결 방식, 사회사업

정수대로 실천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만나며 지지 격려 응원 칭찬했습니다. 저 혼자면 못했을 이 일을 7명의 실습생이 동네 곳곳에서 지역주민을 만나며 복지를 이루었습니다.

사회복지 대학생의 성장이 사회복지 현장의 성장이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20년 뒤 사회복지계를 이끌어갈 인재라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지금은 실무자와 학생이지만 곧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 선배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회사업가인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선배의 지지 격려 응원 칭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구슬 책방에서 만난 김세진 선생님도 저에게 그런 선배이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김동찬 선생님도 저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여러 좋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사회사업 정도를 걷는 선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다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회사업 잘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선배에게 받은 사랑을 대학생 후배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 동료에게 에너지와 자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지 당사자와 만나는 감동과 감사가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 집니다. 가슴이 뚫립니다. 자전거여행 등산 갯벌을 다니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노니 즐겁습니다. 수료식마다 함께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수료식에서 잔잔한 감동을 누렸습니다. 실습하면서 이렇게 여러 주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만난 주민과 이후 여러 사업에서 다시 만나거나 다음 단기사회사업에 함께할 힘이 됩니다.

실습생과 함께하는 기쁨이 큼니다. 실습생에게 저의 지식 경험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실습생과 사회사업을 함께하니 제가 더 깨어 있게 됩니다. 후배와 함께하는데 어찌 대충할 수 있을까요. 저를 지키고 저를 연단하는 일이 이 단기사회사업입니다.

때때로 저를 응원해주는 실습생, 실습 이후에도 연락하고 찾아오는 후배가 힘입니다. 뜻있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를 만나는 일이 저에게 힘입니다.

재미.

단기사회사업은 제가 좋아하는 일로써 이룹니다. 제가 하고 싶은 주제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여행과 등산은 제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저를 살게 하는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재미와 감동으로 다가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산 바다 갯벌 섬 계곡 강. 구석구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마을 선생님 활동, 반려동물 활동이 지역사회에 관계를 회복개발 유지생동 개선강화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서 생활복지운동과 아파트 관계망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뜻과 의미가 없는 주제로 일을 하다면 얼마나 곤역스러울까요. 저는 재미있게 일합니다.

단기사회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실무자와 네트워크를 합니다. 보고 싶은 선배, 동료를 합동연수와 수료식에서 만나고 서로의 사업을 살피며 도전과 자극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실습생과 함께하는 재미도 큼니다. 제가 선배에게 받은 지식과 경험, 등산과 여행, 동료애를 나눕니다. 후배에게 나누는 재미가 있습니다.

뜻 사랑 재미. 제가 열정으로 단기사회사업에 임하는 힘입니다.

2020년 여름, 선재 새봄 예영 예지 희선 정아 민주 7명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사회사업 실무학교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54일 역대 최장 장마의 환경에서 6주 34일 272시간 동안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두루 만나며 사회사업을 실천했습니다.

6월 중순, 실무자 면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정성껏 만나고자 맞이했습니다. 20년 뒤 사회복지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실습생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썼고 저와 주민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만남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사회사업 실무학교는 공부 실천 추억 글쓰기 4가지 핵심어를 중심에 두고 함께했습니다.

공부.

면접에 합격하고 모두가 모여서 「한여름 날의 낭만잔치」 책을 읽고 나눴습니다. 대부분 책모임이 처음이었습니다. 책에서 단기사회사업 흐름과 과정을 알았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 방화동 이웃을 먼저 만났습니다.

합동연수 3일 동안 「복지요결」을 공부하며 사회사업 근본을 공부했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리며 복지요결을 자신의 사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복지관 여러 실무자 선생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복지요결 방식으로 일하는 실재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선행연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잘 보내는 4가지 방법, 글쓰기 특강, 생활복지운동 특강, 어린이 여행사업 특강을 했습니다. 각자 선행연구 목록을 실습 전부터 꾸준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실천에 앞서 우리는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실천.

생활복지운동으로 공동사업을 했습니다. 개별사업을 하기 전에 동료와 함께 사회사업 작은 경험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역사회를 통째로 만나 문제를 예방하는 일, 단기사회사업 7명의 실습생과 지역사회에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함이었습니다. 4곳의 아파트를 두루 다녔습니다. 주민 기획단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홍보지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은 붙임쪽지가 붙었습니다. 기획단에게, 붙임쪽지를 붙인 주민에게, 오가며 홍보지를 본 주민에게 이 메시지가 다가갔습니다.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공동사업 외에도 동네 곳곳에서 7개의 개별사업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조용한 방화동 마을에 여러분의 활동에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추억.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함께 여행했습니다. 석모도 민머루 해변 갯벌에서 걸었습니다. 복지인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새봄이의 웃음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상주산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습니다. 고려산 일몰은 아름다웠습니다. 길을 잃어 돌고 돌았던 시간은 평생의 추억입니다.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7가지 놀이를 신나게 했습니다. 소무의도를 땀 흘리며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개별과업은 대부분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여행도 즐거웠습니다.

글쓰기.

사회사업가의 글쓰기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자 당사자와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6주 동안 매일 글을 썼습니다. 글쓰기가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기록에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났습니다. 구슬 책방에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사회사업가 선배가 공부하고 기록한 책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회사업 기록을 이어갈 다음 세대입니다.

선재 새봄 예영 예지 희선 정아 민주. 함께한 7명의 후배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후배들을 만남이 저에게 복입니다.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선재.

실습생 가운데 유일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없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동생들을 챙기고 응원했습니다. 때로는 넓은 사고로 진지하게 질문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선재는 무럭무럭 가족 여행 사업을 맡았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자연과 더 친해지자는 마음으로 다섯 가정이 모였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부모가 모였을 겁니다. 아이들이 기획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의 여행을 아이들이 함께 의논하고 계획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개화산에서, 새롭게 생긴 서울식물원에서, 마시안 해변 갯벌에서 여행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와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재를 좋아합니다. 모일 때마다 선재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우성칩니다.

수료식이 이루어졌던 대부도에서의 하루는 한 편의 영화와 같았습니다.

대부도 바다와 멋진 펜션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근사한 분위기에서 수료식은 감동이 넘쳤습니다. 부모와 자녀, 아이들과 선재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감성이 넘치는 선재는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꿈꾸지 않으면' 노래와 엄마가 부르는 답가도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뛰어다니는 동동이의 모습조차도 정겨웠습니다.

이런 이웃이 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웃이 있는 방화동은 따뜻한 동네입니다. 선재가 아이들을 정성껏 만나고 부모님과 잘 의논한 덕분입니다.

선재는 세 번째 실습입니다. 사회사업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도전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여러 직원을 만나며 질문하고 경험을 들었습니다. 선재는 해외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직한 질문을 했고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이런 선재에게 사회사업 좋은 사례와 선배가 많기를 기대했습니다. 방화11에서 경험이 그러했기를 바랍니다.

새봄.

저와 웃음소리가 비슷합니다. 아니 저보다 화려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사업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열정이 가득합니다. 언니로 동생과 스스럼없이 지냈습니다. 동생들도 새봄을 친구처럼 따르고 좋아합니다.

새봄은 어린이 여행사업을 맡았습니다. 어린이 여행은 단기사회사업 인기 활동입니다.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복지관과 조금 떨어진 송화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여행을 준비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노는 이 활동의 의미를 알고 추천받아 신청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역대 제일 많은 9명의 아이들, 여행도 보내지만 많은 시간을 학원에 가야만 하는 아이들.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회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새봄이는 최적의 방법

을 찾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복지요결 방식대로 실천하려 궁리하고 애 썼습니다.

새봄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과업을 세분화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부탁했 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주체 의식과 역량이 적을지라도 새 봄이와 함께한 시간이 발판이 되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새 봄이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사회사업가 답게 일했습니다. 새봄이는 동료의 여러 사업을 도왔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먼저 만나고 놀았습니다. 이런 새봄이를 아이들도 동료들도 좋아합니다.

새봄은 발목을 다쳤습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늘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튼튼한 새봄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신 천천히 걸었습니다. 느리게 걷는 세상을 보았 을 겁니다. 내가 힘을 뺐을 때 열리는 일을 보았을 겁니다. 어찌면 사회사 업도 이와 같은지 모릅니다. 새봄은 엄청난 에너지로 동네를 휘저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 자신의 힘을 빼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걸음에 내 속 도를 맞춥니다. 새봄은 팔방미인 슈퍼맨처럼 여러 재능과 능력이 있지만 내가 없어도 재미있게 놀았던 아이들의 모습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음이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일지 모릅니다.

새봄이는 이번 실습으로 사회사업가로 살 것인지 궁리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만났던 새봄. 조새봄 선생님 때문에 복지관 에 오는 일이 즐겁다는 아이들. 사회사업도 잘 이루고 아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이루었습니다. 현장은 이런 예비사회사업가를 기다리고 있습 니다. 아니, 새봄은 이미 사회사업가입니다.

예영.

박유진 선생님과 김세진 선생님께 배운 예영은 세 번째 정보원 활동입니다. 강감찬관악복지관이 법인이 바뀌면서 실습을 하지 않아 예영이 방화 11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행운입니다. 이미 알고 지낸 예영이가 방화11에서 함께한다니 기뻐했습니다. 예영과 단기사회사업을 한다니 재미있게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영은 윤동우 님 가족 여행을 도왔습니다.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실습하고, 구슬에서 사례관리를 공부한 예영이가 사례관리로 돕는 정신 약자 윤동우 님 가족 여행에 책임자였습니다. 예영은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한걸음 물러나 기다렸습니다. 윤동우 님 가족과 무력무력 가족이 직접 관계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진심으로 윤동우 님과 소현이를 만났습니다. 소현이가 무력무력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의 눈물. 극적으로 다시 가겠다고 했을 때의 그 생기발랄함까지. 이런 안예영 선생님을 윤동우 님과 소현이는 좋아합니다. 예영은 실습을 잘 배우고 싶어 11단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우림필류 아파트까지 생활복지운동을 시도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넘어 소현이의 또래관계까지 도왔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동료의 사업과 수료식에 두루 참여하며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이런 예영이의 모습이 동료들에게 모범과 힘이 되었습니다. 예영이 펼쳐나갈 사회사업 인생이 기대됩니다.

예지.

서울신대 후배입니다. 그토록 후배들을 찾아 헤멜 때는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만났습니다.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고 싶어합니다. 1차 실습기관

에서 방화11을 추천받아서 왔습니다. 진작에 오지.

중학생 여행을 담당했습니다. 한참 사춘기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불러도 대답 없는 아이들. 그럼에도 끊임없이 아이들과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부모님께도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조금씩 그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장님도 인정한 김삿벌보다 예쁜 예지. 이런 예쁜 선생님과 함께한다고 집에서 엄마에게 자랑한 아이. 석모도 여행을 설레어서 준비했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명렬이는 진짜 웃음, 진짜 표정으로 놀았습니다. 진짜 웃음 가운데 바닷속에 앉아 다음날 음식 만들어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열렸습니다. 이예지 선생님 덕분입니다.

언젠가 함께 산을 오르며 예지는 자신의 체력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평소 등산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 근육을 쓰니 좋아졌습니다. 다시 2주를 쉬니까 체력이 도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지만요. 사회사업 근육도 이와 같을 겁니다. 방화11에서 뜻을 세워 공부하고 실천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이 공부 근육, 실천 근육을 쓰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 갈 겁니다. 꾸준히 실천하기를 응원합니다.

정아.

와우. 동료와 슈퍼바이저를 애정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목소리에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난겨울 실습한 연속이가 아끼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정아는 언니처럼 사회사업을 잘 이루었습니다.

정아는 고등학생 여행을 맡았습니다. 코로나로 3명 소수로 만났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은 세 명의 아이들, 사례관리로 돕고 있던 지선이와 여행

이라는 적극적 복지사업으로 재미있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상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선이는 가정사 때문에 복잡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늘 회의도 빠지지 않고 오던 아이였는데 여행 준비도 여행도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친했던 지선이와 인애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비가 왔습니다. 경복궁 탐방을 하는 날이 광복절 집회라니. 머피의 법칙처럼 여행 과업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행 결과, 실적만 놓고 보면 아쉽습니다.

반면 여행 과정을 살펴보면 정아는 잘 이루었습니다. 비 오는 날 계양산 야간 산행을 했습니다. 그 폭우를 뚫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힘든 산을 우리는 웃으며 오르고 내렸습니다. 고려산에서 길을 잃은 여행이 우리 실습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듯이 고생한 여행이 뒤돌아보면 귀한 추억이 될 겁니다.

정아가 맡은 사업은 사례관리사업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선이의 외부 상황은 사례관리 오랜 경력을 가진 손해진 선생님이 집중해서 도와도 쉽지 않고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저 사례관리자는 끊임없이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당사자의 삶을 거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정아가 사례발표 때 인용한 사례관리 공부 노트처럼 뜻을 세워 도왔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돌아서기도 합니다. 사람을 돕는 일이니 인생을 돕는 일이니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애 화해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니 인애와 화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와 재미있게 여행을 다녀왔으면 좋았겠지만 상황이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정아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아가 이번 과정에서 또 다른 과정과 사업을 경험했기를 바랍니다. 가정 수료식은 감동이 넘쳤습니다. 4인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PPT와 동영상을 부모님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연신 웃음이 넘쳤습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읽으며 눈물 흘리는 화해, 그런 화해에게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는 엄마의 편지. 엄마 아빠와 포옹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만에 아이들을 안아보았습니다. 화해와 인애 가정에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어려움과 희노애락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활동이 이 가정을 조금 더 애정이 깊어지고 바탕을 살게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 일을 정아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선.

제가 아끼는 후배 예림이의 후배입니다. 사회사업 잘해보고 싶어 방화11에 지원했습니다. 늘 하고 싶었던 우나개사업을 맡았습니다. 여섯 명의 기획단이 모였습니다. 무비데이, 만들기데이, 페티켓 캠페인, 요리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무력무력 사업, 캠페인 사업과 겹치는 상황에서도 늘 웃으며 우나개 사업을 잘 이루었습니다.

김경옥 님은 제가 자주 만나던 분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살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오셨습니다. 집에서 외롭게 보내시다가 복지관에서 합창단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만날 때마다 만족하셨습니다.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잠잠해진 시기에 우나개 활동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런 김경옥 님께서 만들기데이 강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사자가 힘있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재료를 준비해 오시고 늦은 시간까지 이웃에게 강아지 목걸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이 하셨는데 이런 관계를 주선한 복지관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사회사업가는 주선하는 사람, 관계 주선사, 사회 공작원입니다. 희선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희선은 육상선수 출신인데 무릎이 좋지 않아 은퇴했습니다. 오랜만에 땀 흘리고 멋진 자연 풍경 앞에 섰습니다. 아

파도 티를 내지 않고 끝까지 산을 올랐습니다. 환한 미소로 동료와 함께 했습니다. 사회사업도 이렇게 잘 실천했습니다. 생활복지운동도 동료들과 도와 코칭하고 예쁘게 꾸몄습니다. 우나개 기획단과 함께 홍보지를 만들고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환한 미소로 희선이가 먼저 재미있게 참여했습니다. 사랑이는 수료식을 준비하며 우나개 사업을 돌아봤습니다. “어쩐지 맨날 맨날 즐겁더라니~” 사랑이의 멋진 어록입니다. 사랑이처럼 희선도 맨날맨날 즐겁게 실습을 이루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희선의 스토리 글을 읽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희선, 애썼습니다. 희선이가 좋아하는 예림 언니처럼 꾸준히 연락해요. 현장 사회사업가로 다시 만납시다.

민주.

이렇게 귀한 민주를 실무자 면접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집 가까운 실습지에서 실습할 수도 있었는데 큰 비용을 내고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민주를 사전에 먼저 실무자 면접을 해서 섭외한 저의 안목에 놀랐습니다. 깨끗했던 자기소개서 초안. ‘한여름 날의 낭만잔치’를 읽고 독후감 쓰기를 부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정리해서 왔습니다.

실습 일정도 그렇게 잘 이루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배움의 과정을 잘 이루었습니다. 석모도 여행을 다녀와서 저에게 “선생님,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신나요.”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민주가 온 몸을 던져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민주가 먼저 여행을 누리니 아이들도 민주 곁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엄마, 나 실습 또 하고 싶어졌어.” 사회사업가 선배이기도 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회사업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가 자랑스러울 겁니다.

배드민턴 사업도 잘 이루었습니다. 마을 선생님 활동이니 아이들과 마을 선생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박주성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수많은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배드민턴 사업은 잘 이루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관계를 주선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한 민주 덕분입니다.

민주는 사회사업 재미와 감동의 보물을 알아버렸습니다. 사회사업 잘하고 싶고 잘 배우고 싶어 하는 민주는 아직 3학년입니다. 아직 성장하고 배워야 할 길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현장 사회사업가로 다시 섰을 때, 엄마와 함께 복지요결을 공부하고 실천을 고민하며 서로가 쓴 글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멋진 사회사업가 가족입니다.

6주 34일 272시간의 사회사업 실무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두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울 겁니다. 허전할 겁니다. 아침마다 실습실로 향한던 저의 발걸음은 이제 없습니다. 아침마다 포옹 인사하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밤늦도록 함께 사업 이야기 나누며 궁리했습니다. 석모도 갯벌과 고려산 일몰을 함께했고, 무의도 갯벌과 소무의도 트레킹을 함께했습니다. 강점 워크숍을 했고 때때로 공유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여행도 많습니다. 함께 웃고 눈물 흘렸던 당사자 수료식. 이 여름,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와 같습니다. 가슴 깊이 이 추억을 간직하겠습니다.

실습은 이제 끝이지만 여러분의 사회사업 인생은 다시 시작입니다. 선재 새봄 예영 예지는 4학년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되고, 정아 희선 민주는 학창시절을 조금 더 보내게 됩니다. 사회사업은 100m 달리기보다 아니라 마

라톤과 같습니다. 이번 여름 실습으로 사회사업 달리기를 멈추면 한여름의 꿈으로만 남게 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 끝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 이 길을 꾸준히 걸읍시다. 사라지지 맙시다. 보고 싶고 그리울 때 동료와 때때로 연락하며 응원합시다. 각자 걸어가는 이 길을 서로에게 전합시다. 사회사업 글쓰기를 꾸준히 하며 글로 각자의 발걸음을 나눕시다. 때때로 만나 서로를 꼬옥 안아주며 사회사업 인생을 응원합시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사회복지 현장에 서면 함께 이 현장을 일구어 갑시다.

실습을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7명의 사업과 마음을 제가 충분히 품을 수 있도록 제 그릇이 커지기를 바랐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하는 여러분을 지지 격려 칭찬 응원하는 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여름 이 시간이 한 명의 예비사회복지사 사회사업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회사업 재미와 감동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34일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혹여나 부족했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을 알고 있지요?

선재야, 새봄야, 예영야, 예지야, 정아야, 희선야, 민주야.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이 여름 잊지 못할 겁니다. 선재 새봄 예영 예지 정아 희선 민주 사회사업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사회사업 인생에 큰 추억과 낭만, 배움과 성장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안녕.

2020년 8월 20일

선재 새봄 예영 예지 정아 희선 민주를 응원하는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선배사회사업가 권대익 드림

스스로 하니 뿌듯하고 재미있어요 | 한서연 어린이 인터뷰

1. 이번 방학 활동의 목적을 알고 있나요?

친구와 함께하고 신나게 놀고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이번 활동에서 내가 스스로 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배드민턴) 비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의견 냈어요. 게임, 배드민턴도 치고 참치김밥도 만들어 박주성 선생님께도 만들어 드렸어요.

(생활복지운동) 가위와 풀로 자르고 붙이며 홍보지를 꾸미고, 포스트잇 상자를 만들었어요. 상자는 잘 만들었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어린이 여행) 발표도 하고 어디 놀러 갈지 의견도 내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어요. 또, 요리 활동에서는 김치전 반죽을 만들고 직접 부쳤어요.

3. 스스로 활동하니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내가 잘하지 못해도 스스로 한다는 게 뿌듯했고, 스스로 하는 게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4. 왜 스스로 하는 게 재미있었을까요?

학교 방학에는 애들이랑 만나기도 쉽지 않고 보통 집에만 있게 돼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좋아요. 선생님이 정해진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실행하면 그 과정에서 실패도 느끼고 성공도 느낄 수 있어서 더 재밌어요.

5.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방화11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무엇인 거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공부나 목적이자라면,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스스로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좋은 거 같아요.

6. 이번 활동에서 새롭게 알게 된 친구나 이웃, 어른이 있나요?

송화초 친구들 6명과 소영, 수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만나다 보니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선생님도 만났어요. 배드민턴 요리 활동에서는 진달래님이 참치김밥 만들기를 알려주셨어요. 어른들이 도와주시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7. 대학생 선생님과 함께 하는 활동은 어떠했나요?

대학생 선생님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이 들어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좀 더 가르쳐주시는 느낌이고, 대학생 선생님은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같이 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 친구 같고, 저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거 같아요. 때로는 친구 같다가 선생님 같기도 해요.

무조건 가르치지 않고, 이해를 시켜주시려는 점이 좋았어요. 또, 친구 같

기도 하고 제가 말할 때 귀 기울여주세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평소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별로 없는데, 대학생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니 재밌어요.

대학생 선생님이 우리에게 고맙다고도 말해주시고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바로 사과해주시고 칭찬도 자주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칭찬해주시면 뿌듯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칭찬해주시니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더 잘하고 싶은 의지가 불타요.

8. 배드민턴 활동은 마을 선생님인 박주성 선생님이 함께했는데 어땠나요?

배드민턴 활동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 나오게 되었잖아요. 대학생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닌 전문적으로 배드민턴을 하시는 마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니 더 재밌었어요. 배드민턴을 치면서 조금씩 기술을 알려주시는 게 좋았어요. 대학생 선생님처럼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어 주셨어요.

9. 이번 활동에서 무엇이 재미있었나요? 다음에 또 하고 싶나요?

스스로 하는 게 뿌듯하고 재밌어요.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이웃을 만나는 것도 좋았어요.

(배드민턴활동) 김밥 만들고 남은 재료로 주먹밥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주먹밥을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뿌듯했어요.

(생활복지운동)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깐 주민들이 저희가 만든 홍보지에 주민들의 글이 담기는 걸 보니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 저희가 했다고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보시고 저냐고 물어보시곤 칭찬해주셔서 정말 뿌듯했어요. 활동이 끝난 후 경비원 아저씨를 조금 더 생각하

게 된 거 같아요.

(어린이 어름 여행) 갯벌에서 놀면서 새우랑 작은 조개도 잡고 바다에서 놀았던 활동이 재밌었어요. 요리 활동 때 친구들과 서로 티격태격했지만, 서로 힘을 모아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활동이 재미있고 기억이 남아요. 회의할 때도 오늘 회의의 주제를 가끔 까먹을 때도 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회의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10. 활동하면서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나요?

네. 많이 나눴어요. 부모님이 제가 오늘 복지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있던 이야기를 부모님과 나누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11. 여러 번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떠했나요?

새로운 친구, 선생님과 만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친구들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매번 활동을 참여하며 느끼지만 스스로 하는 게 느는 거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도 문득 생각나고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추억이 생겼어요.

12. 코로나 19 상황 가운데 이번 활동을 하니 어떠했나요?

코로나 19의 상황 때문에 이번 활동은 기대하지 못했어요. 1박 2일 여행도 못 가고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복지관이란 친구들이 힘을 내서 추억을 만드니 고마웠고, 생각 이상으로 재밌고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13. 이번 활동을 다시 한다면 더하거나 빼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노는 활동을 더 하고 싶어요.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못 하지만, 함께 회의하며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요리 활동을 더하고 싶어요. 집에서 불이나 칼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복지관에서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빼고 싶은 부분은 없어요.

14.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배드민턴 활동, 어린이 여행 활동은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또, 만드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을 잡아라’ 활동에서 꽃꽂이를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박주성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 방서현 어린이 인터뷰

1. 이번 방학 활동의 목적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 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웃, 마을 선생님, 친구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2. 이번 활동에서 내가 스스로 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배드민턴) 수료식 준비도 저희가 하고 가현이와 함께 수료식 사회를 봤어요. 또, 배드민턴을 쳤어요. 박주성 선생님에게 첫 만남과 수료식 때 롤링 페이퍼를 만들어 드렸어요.

(생활복지운동) 홍보지를 만들고 붙이고 접고 수거까지 저희가 다했어요.

(어린이 여름여행) 어디 갈지 회의를 통해 계획하고 ppt 발표를 했어요. 요리 활동에서는 설거지랑 요리도 저희가 다했어요.

3. 이번 활동에서 새롭게 알게 된 친구나 이웃, 어른이 있나요?

(배드민턴) 박주성 선생님을 알게 되고 수아와 소영이와 친해질 수 있었어요.

(생활복지운동) '생활복지운동'을 함께한 김경옥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강아지를 키우셔서 강아지를 만졌던 적이 있었는데 활동 이후에 동네에서 마주칠 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름여행)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처음 봤는데, 함께 여행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어요.

4. 이번 활동에서 무엇이 재미있었나요? 다음에 또 하고 싶나요?

(배드민턴) 박주성 선생님과 배드민턴을 칠 때가 재밌었어요. 저희가 배드민턴을 못 치는데 박주성 선생님이 맞춰서 쳐주시니 재밌던 거 같아요. 배드민턴 채를 잡는 법, 공을 세계 날리는 법을 알려주셔서 신기하고 좋았어요.

(생활복지운동) 저희가 경비원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저희가 홍보지를 만들고 꾸미고 붙이니 전달까지 하니 뿌듯하고 재밌었어요.

(어린이 여름여행) 갯벌에서 계도 잡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바다에서 놀았을 때가 재밌었어요. 또, 애들이 전부 장난기가 많다 보니 회의할 때도 재밌었어요.

5. 활동하면서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나요?

네. 부모님이 수료식 때 오셨는데, 저에게 그렇게까지 발표를 잘하는 줄 몰랐다고 칭찬해주셔서 좋았어요. 발표하니깐 조금씩 용기가 생기고 뿌듯했어요.

6. '어린이 여름 여행'을 신청한 이유가 뭐가요?

여행을 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이 오잖아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 있을 거 같아서 신청했어요.

7. 코로나 19 상황 가운데 이번 활동을 하니 어떠했나요?

코로나 19여서 집에서만 있다 보니 할 게 없었는데, 복지관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방학 동안 재밌었던 거 같아요.

8. 이번 활동을 다시 한다면 더하거나 빼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빼고 싶은 부분은 없어요. 더하고 싶은 부분은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게 여행을 더 많이 가고 싶어요. 당일치기 말고 1박 2일로 가고 싶어요. 배드민턴 활동이 다음에 있다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실내에서 치고 싶어요.

9.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꽃꽂이 활동, 요리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료식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 무럭무럭 가족 여행 김사울 김아린 어린이 인터뷰

1. 이번 방학 활동의 목적을 알고 있나요?

(시울) 무럭무럭은 다른 이웃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예요.

2. 이번 무럭무럭 하면서 스스로 무엇을 했나요?

(아린) 회의요.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수료식에서 장기자랑했어요. 오빠는 마술했고, 저는 노래 불렀어요. 편지도 우리가 주고받았어요.

(시울) 어디로 여행갈지, 가서 뭐할지 회의했어요. 수료식 회의도 우리가 했어요.

3. 이번 활동하면서 새롭게 알거나 친해진 이웃이 있나요?

(아린) 정연 언니, 이정 언니랑 친해졌어요.

(시울) 승훈이랑 건희 누나는 모르던 사이였는데 알게 되었어요. 승훈이랑 조금 친해졌어요.

4. 이번 활동에 무엇이 재미있었나요?

(아린) 갯벌에 수영했던 것이 재미있었어요. 엄마들이 꽃게 잡아 와서 구경했어요. 짝짓기하는 게들도 있었어요. 식물원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상어놀이, 더덕잡기했어요. 해지는 것도 봤어요. 개구리도 봤어요.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었어요.

생활복지운동은 경비아저씨께 편지 쓰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랑 마지막에 편지 붙인 것과 떼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경비아저씨가 직접 쓴 것도 봤

어요. 뿌듯했어요. 경비아저씨가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좋았어요.

(시울) 수료식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좋았어요. 생활복지운동에서 승강기 붙이는 것이 재밌었어요.

5. 이번에 활동하면서 가족들과 이야기 많이 나눴어요?

(아린) 네 개화산 갈 때 김밥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그 김밥 엄청 맛있다고 아빠한테 조금 남겨 달라 했는데 아빠가 다 먹었어요.

(시울) 엄마랑도 더 친해졌어요.

6. 실습 선생님과 함께하니 어땠나요?

(아린) 선생님이랑 친해졌어요. 재밌었어요.

(시울) 회의 마지막 날에 선생님과 논 게 재미있었어요.

7.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땠나요?

(시울)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좋았어요.

(아린) 코로나가 있어도 이웃과 노니까 재밌었어요.

8.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아린) 하룻밤 자고 오면 좋겠어요.

(시울) 돈이 많았으면 뷔페 가고 싶어요.

(아린) 오빠가 뷔페를 좋아해요. 오빠 생일 때 뷔페에서 생일파티도 했어요.

(아린) 캠핑가고 싶어요. 다음에도 가족끼리 여행 가고 싶어요.

(시울) 경주에 가보고 싶어요. 예전에 가봤는데 못본 것이 많아서 가고 싶어요.

(아린) 한강 공원에도 가요. 가는데도 얼마 안 걸려요. 엄청 높은 다리도 있어요. 거기 올라갈 때마다 아찔하고 재밌어요.

스스로 하니 더 재미있고 자유로워요 | 중학생 여행 황윤선 인터뷰

1. 어떻게 여행을 신청하게 되었나요?

저는 스스로 계획하고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해요. 6학년 때 복지관에서 동해 삼척 바다에 가서 재미있게 논 기억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평소에 이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부모님이랑 여행 갈 때는 아빠가 계획을 짜주시니까요. 이런 여행은 계획을 아빠만 알고 계셔서 조금 답답해요. 그런데 이번 여름 여행은 제가 스스로 하니까 더 재미있고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2. 이번 방학 활동의 목적을 알고 있나요?

같이 협동해서 계획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벗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배웠어요.

3. 이번 활동에서 내가 스스로 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행계획을 동생들이랑 다 같이 세웠어요. 역할 배정도 했는데 저는 길 찾기 담당을 맡아서 목적지를 어떻게 가는지 알아보고, 교통비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어요.

할머니가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 각자 맡은 준비물도 직접 챙겼어요. 요리할 때는 회비가격도 직접 정해서 가져오고, 장도 직접 봤어요. 바다에 갈 때는 제가 장을 봤고, 요리할 때는 서윤이랑 재덕이가 장을 봤어요.

4. 이번 활동에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더 친해진 친구나 이웃, 어른이 있나요?

같이 여행 갔던 서운, 재덕, 명렬이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여행을 같이 다니니까 점점 친해졌어요. 이예지 선생님도 알게 되었어요. 바다에 같이 놀러 갔던 초등학교 동생들도 알게 되었어요.

5. 이번 활동에서 무엇이 재미있었나요? 다음에 또 하고 싶나요?

산 갔을 때 공기 냄새가 참 좋았어요. 바다에 갔을 때는 스스로 라면도 끓여 먹고 새우도 잡고 계랑 조개 잡는 것도 재밌었어요. 바다에서 공놀이도 하고 빠뜨리고 노는 것도 재밌었어요. 요리할 때는 요리사처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재밌었어요.

6. 활동하면서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나요?

짐을 싸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디 가는지, 언제 가는지, 재밌었는지 동생이랑 아빠가 많이 물어봤어요. 아빠랑 평소에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었는데 여행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눴어요.

7.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번 활동을 하니 어떠했나요?

집에만 있어야 해서 아주 답답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마스크 벗고 숨을 쉬니까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제 친구들이랑도 다 같이 이 활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여를 못 하게 하셔서 아쉬웠어요.

8. 이번 활동을 다시 한다면 더하거나 빼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이번 활동은 4명끼리 여행을 갔었는데, 더 많은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당일치기밖에 못 했지만, 다음에는 숙박해서 더 오래오래 놀고 싶어요. 회의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한곳에 모아두고 하면 회의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9.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태백에서 김밥도 만들고 레크레이션, 아침 제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행 가는 것 하고 싶어요.

마음의 폭이 넓어졌어요 | 가족 여행 윤동우 님 윤소현 인터뷰

1. 이번 방학 활동의 목적을 알고 계시나요?

윤동우 님 | (생활복지운동) 경비원 아저씨께 고마움을 전하잖아요.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이 인사 한마디 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게 경비원 아저씨한테 큰 보탬이 됐을 거로 생각해요. 경비원 아저씨가 일하면서 더 보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족 여행) 소현이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알뜰하게, 재미있게 여행했어요.

윤소현 | 주민들과 서로 어울리고 친해지는 것 아닌가요? 가족끼리도 친해지고요.

2. 아이가 방학 활동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실천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윤동우 님 | 소현이가 장봉도로 바다 여행 갈 때 돛자리, 우산을 챙겼어요. 자기 카드도 챙겼어요. 저는 여행을 준비했어요. 배에서는 커피도 샀고요. 이상관 님과 같이 뱃삿을 냈어요.

윤소현 | (생활복지운동) 경비원 아저씨께 편지를 썼어요. 가위랑 풀도 제가 빌렸어요. 또 종이를 자르고 붙였어요. 승강기에도 종이를 붙였네요.

(무력무력 가족 여행) 갯벌에서 조개를 직접 껴어요.

(개화산 산책) 제가 먼저 개화산에 가자고 말했어요. 길도 찾았어요.

(가족 여행) 장봉도 안내소에서 제가 지도를 챙겼어요. 보드게임 하자고

도 말했네요. 보드게임도 챙겼고, 선생님들한테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3. 아이가 이번 활동에서 새롭게 알게 된 친구나 이웃이 있나요?

윤동우 님 | 소현이가 무럭무럭 팀과 여행을 다녀오면서 김민경 님을 알게 됐어요. 덕분에 저도 김민경 님과 알게 됐어요. 실습생 선생님들 면접을 같이 보기는 했지만 알고 지내지는 못했거든요.

윤소현 | (생활복지운동) 언니들을 알게 됐어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얼굴을 알게 됐어요. 함께했던 어른도 알게 됐어요. 저번에는 지나가다가 만나서 인사했어요.

(무럭무럭 가족 여행) 정연 언니를 알고는 있었는데 갯벌에 갔을 때 더 잘 알게 됐어요. 김민경 아주머니도요. 원래 친하게 지냈던 이상관 아저씨도 함께 가서 즐거운 추억이 됐어요.

4. 집에 돌아와 활동에 관해 이야기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아이가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활동을 보고 어떠셨나요?

윤동우 님 | 장봉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소현이와 함께 사진을 보면서 여행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소현이가 즐거워했어요. 가족 여행 말고도 소현이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좋아했어요. 특히 선생님들과 개화산에 다녀온 일이 좋았다고 해요. 무척 신나 보였어요.

윤소현 | (무럭무럭 가족 여행) 갯벌에서 김민경 아주머니가 조개 찾는 법을 알려주셔서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바다 앞에서 술래잡기, 얼음 땡 했던 게 재밌었어요.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요.

(개화산 산책) 개화산에 선생님들과 같이 가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좋았어요.

(가족 여행) 차를 타고 가는 게 좋았어요. 배를 타는 것도요. 갈매기한테 새우깡을 줬던 것도 재미있었어요. 평소에 가족 여행을 잘 가지 않았었는데 아빠와 여행가니 좋았어요. 외식을 잘하는 편도 아니어서 여행하며 밖에서 밥 먹는 게 추억이 됐어요. 같이 보드게임한 일도 재미있었어요. 아빠와 서로 편지를 읽어줬던 것도 좋았어요. 아빠한테 편지를 받은 건 오랜만이에요. 지금까지는 읽기만 했었는데 귀로 들으니까 좋았어요.

5. 이번 활동에서 가족들과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나요? 가족과 조금 더 가까워졌나요?

윤동우 님 | 소현이와 장봉도에 다녀와서도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관 님과도 그래요. 지난번에 여행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저와 소현이와 이상관 님, 셋이 찍은 사진이요. 이상관 님이 그 액자를 TV 위에 올려놓아서 이상관 님 집에 갈 때마다 여행을 생각하게 돼요.

윤소현 | 아빠랑 평소에도 이야기를 잘 나누는 편인데 여행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6.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번 활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윤동우 님 | 그동안 지나 소현이나 밖에 잘 나가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가족 여행을 하면서 오랜만에 나가니 좋았어요. 소현이가 바다를 가고 싶어 했는데 장봉도로 여행을 다녀오니 참 좋았어요. 장봉도는 가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해요. 장봉도에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배도 타니 좋았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여행하니 더 즐거웠어요.

윤소현 |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잘 놀지도 못했어요. 여행도 못 갔는데 여행가니 좋았어요.

7. 이번 활동을 다시 한다면 더하거나 빼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윤동우 님 |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여행 가는 것도 좋을 듯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 수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 대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어울리면서 다과도 하고 대화 나눌 수 있으니 좋죠.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도 함께 가도 좋아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이 많잖아요.

윤소현 | 빼고 싶은 건 없어요. 활동해보니 다 좋았어요. 갯벌에 가는 건 또 했으면 좋겠어요.

8.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윤동우 님 | 한 가정이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정이 모여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족이 함께 가면 아이들끼리 친해지고 어른들도 서로 친해지니 좋아요. 복지관으로서는 소개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니 좋고, 동네 사람들은 서로 알게 되니 좋잖아요.

윤소현 | 바다 여행, 갯벌 여행하고 싶어요. 자전거도 타고 싶어요. 보드 게임도 같이 하고 싶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 선생님께 어린이 여행 양은찬 양은서 어머니 인터뷰

1. 주체성, 자주성, 주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테두리에서 독립된 개체로 점차 나아가려는 사춘기 첫 발걸음의 시기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생각이 들어가고 친구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주체성, 자주성, 주도성이 실천된다고 생각합니다.

2. 더불어 삶, 공생성, 공동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지역에 살아보지 않았고, 일정 지역의 친구와 주민을 만나왔습니다. 이번 여름 여행에서 새로운 지역의 친구들과 지역주민을 만나 어울리면서 또 다른 생활과 문화를 잠시라도 엿보았습니다. 더불어 삶, 공생성, 공동체성은 달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이번 방학 활동의 목적을 알고 계시나요?

내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자연 속에서 노는 활동이라고 들었습니다. 여타의 프로그램들은 이미 모두 만들어져서 참여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니 부모로서 부듯했습니다.

4. 아이가 방학 여행 활동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실천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부모의 권유로 참여했으나 대학생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결과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5. 아이가 이번 활동에서 새롭게 알게 된 친구나 이웃이 있나요?

또래 친구인 방화초등학교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재능 기부해주시는 마을 이웃과 어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장애를 가진 분의 재능 기부가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마을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새로운 이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 집에 돌아와 활동에 관해 이야기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아이가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활동을 보고 어땠나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았나요? 아이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름 활동이 끝나면서 대학생 조새봄 선생님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제 조새봄 선생님을 못 만나지 않냐,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은데 그땐 조새봄 선생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대학생 선생님이 천방지축 아이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들어주시고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 보호자에게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셨던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갇혀있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대학생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시 한번 내 아이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의 강점을 살피며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조새봄 선생님께 큰 박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7. 이번 활동에서 가족들과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나요? 가족과 조금 더 가까워졌나요?

엄마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번 활동을 신청해주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활동 중에는 유쾌한 경험과 본인이 맡은 역할을 상의하는 과정을 들려줬어요. 아이와 대화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8.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번 활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코로나19와 길었던 장마 날씨의 변수로 활동에 제약과 변경이 많아 복지관이 여러모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방역 관리에 힘쓰시고 일정이 변경될 때마다 아이들과 보호자 의견을 반영해주시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여행이라는 매개체는 누구나 즐거운 주제인데 지금까지는 부모를 따라다니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이 관심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찾아가고 그곳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여행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날 서윤이가 정말 행복한 얼굴로 잠들었어요 | 중학생 여행 전서윤 어머니 인터뷰

1. 주체성 자주성 주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자기 생각인지 아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한 비를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실화하는 힘. 그 실천력을 주도성이라고 생각해요.

2. 더불어 삶, 공생성, 공동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학교 수업시간에 「페스트」라는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서윤 어머니는 중학교 교직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카뮈가 했던 말이 ‘과거의 전염병으로부터 인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하게 힘은 성실성과 연대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작품에서 전염병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도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해결하고 그 해결해나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 생각해요.

3. 이번 방학 활동의 목적을 알고 계시나요?

아이들 스스로 계획하고, 계획한 바를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목표였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과보호되잖아요. 엄마 없이 해보자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엄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윤이랑 애들도 너무 집 안에서만 있으니까. 자연에서 노는 것도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4. 아이가 방학 활동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실천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서윤이가 저한테 말하기로는 여행 장소를 정할 때 서윤이가 바닷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는 너무 멀지 않냐고 물었더니 서윤이가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들떠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행 갈 때 차가 모자랐는데, 그 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요새 어른들은 아이들이 부탁하기 전에 해주잖아요.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윤이가 필요해서 관장님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날 저녁에 들떠서 저한테 말한 기억이 있어요.

5. 아이가 이번 활동에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더 친해진 친구나 이웃이 있나요?

같이 여행 갔던 누나를 알게 되었어요. 서윤이가 ‘복지관에 이렇게 많은 분이 일하시는지 몰랐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서윤이가 음식 가져다드리고 하면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까이 있는 복지관이었지만, 잘 몰랐던 이웃인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어요.

6. 집에 돌아와 활동에 관해 이야기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아이가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활동을 보고 어떠셨나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았나요? 아이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다에 가서 라면을 해 먹었잖아요. 거기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아주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라면이 모자라서 더 사 와서 끓여 먹고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할 때 서운이 얼굴이 너무 예뻐어요. 바다에서 신나게 놀다 와서 얼굴을 새카맣게 탔는데 눈을 때굴때굴 굴러가면서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아빠가 서운이를 안아주면서 '우리 서운이 너무 행복했겠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서운이가 원래 감정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인데 '응 엄청 좋았어! 아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잠이 들 때도 정말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근래에 본 얼굴 중에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7. 이번 활동에서 가족들과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나요? 가족과 조금 더 가까워졌나요?

서운이가 밖에서는 무뚝뚝해도 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준비물을 어떻게 짰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같이 밤에 운동하러 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요.

8. 이번 활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개별화되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모이고 끝나면 집으로 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것은 과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것도 좋았지만, 이 과정을 아이들이 함께 겪었잖아요. 의논하고 잘 안 되면 다음 날에 또 회의하는 게 참 좋았어요.

둘째가 서윤이한테 왜 이렇게 회의할 것이 많냐고 물어보면 서윤이가 "넌 몰라도 돼. 우리가 결정할 것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정을 겪는 경험이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많이 맛본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카톡으로 연락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공지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카카오톡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나 봐요. 서윤이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랑 게임 이야기만 하고 초성으로 대화했었는데, 카카오톡으로 준비물 준비와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톡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9. 이번 활동을 다시 한다면 더하거나 빼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선생님이 처음에 소개해주실 때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소개해주셨어요. 서윤이는 그게 인상 깊었었나 봐요. 그런 직업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복지관에 가서도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새로운 직업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남을 도와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또 하나가 있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서윤이는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어른이 돼도 무언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10대 아이들에게 자기 꿈에 관해 설명하고 그래서 너희들과 이런 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서윤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직업이 있었어?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졸업식처럼 수료식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

은 것 같아요. 자신이 되게 소중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형식이 굉장히 썩스럽고 낮간지럽지만, 자신들이 발표하면서 아이들이 지지받는 것 같아요.

재덕이랑 서윤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둘이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말은 창피했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재덕이 엄마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수료식 발표화면 속에 있는 제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더라고요. 집에서는 너무 어렸는데. 아이들을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먼 곳을 가고 싶다고 말해요. 권대익 선생님께서 자전거 타고 춘천 간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 듣고 서윤이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료식 다녀와서 저한테 다른 프로그램도 해보고 싶다고 말해요. 겨울에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신청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도 듣고 부러웠는지 자기도 꼭 신청해달라고 하더라고요.

10.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아이들만의 공간을 찾아주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화동 주민으로서 걱정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놀이터가 있고, 어른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가도 구박받아요.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럼 저 아이들은 어디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청소년들은 센척하지만 약한 존재잖아요. 복지관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니까 청소년들을 위해 힘을 실어주셨으면 해요. 공원이나 놀이터도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는 없는 거예요. 청소년에게 나가서 놀라고 하면서, 놀 공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항공고등학교 없어지니까 스포츠몬스터(스포츠 융복합 테마파크)처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면서 아이들이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11. 복지관 사업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서윤이는 학원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와 생각이 맞는 엄마들이 꽤 많아요.

다른 엄마들한테 ‘서윤이 복지관 프로그램 갔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신청해주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몰라서 못 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제가 엄마들한테 정보를 알려줘요. 좋은 정보 있으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담당자 평가

배움

① 생활복지운동 | 지역사회를 통째로 만나 변하게 하는 일, 예방하고 억제하는 일

올 초에 강북구에서 경비원 아저씨 갑질 사건이 큰 이슈였습니다. 가정의 달 생활복지운동으로 아파트 승강기에서 이웃에게 안부 전하는 활동을 한 직후였습니다. 생활복지운동을 떠올렸습니다. 아파트마다 경비원 아저씨와 인사하고 마음을 전하며 관심을 두는 일이 있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관련 제도와 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하지만 사회사업가는 '관계'에 집중하는 일, 생활복지운동이 그 정체성에 부합합니다. 4개 아파트 단지에서 동시에 생활복지운동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전체가 확인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를 대하는 주민의 자세가 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코로나19와 실습지도 | 복지관 다운 실천

코로나19로 실습을 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회협회에서도 실습이수 기준시간 120시간 가운데 80시간만 직접 실습하도록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사회사업을 이루어갈지 궁리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소규모 야외활동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실습 이후 복지관 동료들과 코로나19와 복지관 실천을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사사무소 구슬 김세진 선생님은 관계를 생동하게 하는 일이 복

지관 사회사업가답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이 공동체성이 살아나고 생동하면 자연스레 돌레 자연환경에도 덜 해를 준다는 겁니다. 온라인 영상과 기기에 고립되기 보다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선생님은 개인 중심 관계망 사업을, 일상으로 일상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회 생태와 자연 생태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실습생이 이룬 9가지 개별사업이 이뤘습니다. 소규모 야외활동 중심으로 관계에 중점을 두고 사업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복지관 다운 실천임을 확신했습니다.

③ 적극적 복지사업의 성과 | 당사자의 변화

단기사회사업은 문제를 다루는 소극적 복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살리는 적극적 복지사업으로 이룹니다. 이번 여름 활동에 참여한 윤동우님은 단기사회사업 실습 과정을 세 번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과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서비스를 받으신 것에 익숙하셨습니다. 실습생이 꾸준히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여행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동우님의 힘으로 이뤄가시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윤동우님은 딸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생활복지운동, 가족여행, 무력무력 여행을 다녀온 소현에게 딸이 마음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④ 사회사업 재미 | 당사자와 인격적인 만남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당사자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당사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 보

람과 감동,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자전거 여행을 담당한 김민주 실습생은 여행을 다녀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하루 더 머물고 싶었어요. 실습 또 하고 시어요.” 아이들과 함께 뛰어들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니 사회사업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과 부지런히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결과입니다.

⑤ 출판 | 「마음의 폭, 넓어지다」, 「함께 걷는 사람」

안예영 실습생이 윤동우 님 가족여행과 생활복지운동 실천 과정을 잘 기록했습니다. 몇 번 퇴고 모임을 거쳐 「마음의 폭 넓어지다」 책을 출판했습니다. 기존에는 푸른복지 출판사에서 출판했다면 구슬뿔은실 출판사에서 김세진 선생님과 몇 번의 퇴고 모임 끝에 책을 출판했습니다. 글을 쓰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습지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성찰했습니다.

7명의 실습생이 9가지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실습생의 일지를 발췌 요약 정리해서 「함께 걷는 사람」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동안 실습생의 개별 과업 하나를 한 권의 책으로 출판했다면 이번 여름 활동의 모든 실습생의 기록을 통합본으로 만든 건 처음입니다. 전체 흐름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풍성합니다. 이번 여름 활동을 뜻있게 잘 이루어 왔음을 확인합니다.

⑥ 가정 수료식 | 가정을 돕는 좋은 예시

중학생 여행 수료식은 가정 수료식으로 했습니다. 화해와 인애가 자매인데 엄마 아빠와 당사자의 곳인 집에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엄마의 정성스러운 집밥, 부모님 앞에서 애교 섞인 여행 발표, 서로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 그리고 포옹 인사까지. 풍성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이 가정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개별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가정을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약자의 가정과 가정 수료식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⑦ 영상 | 유튜브에서 감동으로 꽃 피우다

어느해보다 영상을 많이 찍고 편집했습니다. 실습생 워크숍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때마다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한참 뒤에 다시 영상을 보아도 좋습니다.

당사자와 함께한 시간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운동우 님 가족여행 영상은 마침식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아빠와 딸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운동우 님과 소현이가 좋아했습니다. 영상을 두고두고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력무력 가족여행 수료식의 영상은 가슴 따뜻합니다. 2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이지만 그 과정과 내용이 풍성합니다. 무력무력 수료식은 처음 기획할 때 상상했던 모습 그 이상으로 뜻깊었습니다. 이 과정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겨 있으니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소망

① 가족여행 확장

무력무력 가족여행 사업이 뜻깊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과업으로 가족여행은 처음입니다. 5가정 15명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여행을 준비하는 아이들과 이를 믿고 응원해주는 엄마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좋은 힘이 생기니 밖의 다른 가족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윤동우 님과 소현이와 함께 갯벌 여행을 하며 인정을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여행을 또 하고 싶습니다.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가족의 애정 깊어지고 이웃과 인정이 깊어지는 활동입니다.

② 실습생과 4대 사업 확장

2021년에는 전체 직원이 생활복지운동, 소박한 잔치, 이웃동아리, 아동 성장사업 4가지를 중점으로 두고 실천합니다. 이번 여름 실습에서 7명의 실습생과 9가지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57명의 실인원, 555명의 연인원이 참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복지관과 지역사회에서 풍성하게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사회사업 실무학교 극강 사업이 일반 실습인 단기사회사업으로 전환되지만 실습생이 기획부터 평가까지 이루는 과정을 같습니다. 여름 실습도 많은 학생과 4대 사업을 풍성하게 이루고 싶습니다.

③ 신입 사회복지사와 함께

2021년, 조직 개편으로 곁에있기1팀 5명으로 실천합니다. 신입 사회복지사 2명이 함께하니 후배의 성장을 돕는 좋은 선배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신입 사회복지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부 실천 추억 기록의 의미와 과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3주 동안 복지요결 방식으로 당사자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일하는 과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신입 사회복지사가 실습생을 잘 돕고 지원하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④ 전체 직원과 함께

전체 직원과 단기사회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여행과 출판은 어느 정도 내려놓습니다. 훈련된 사회복지 대학생과 4대 사업을 마음껏 신명나게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없는 여름방학을 온 동네가 들썩이며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④ 실습생과 현장에서 다시 만나길

실습 지도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좋은 인재를 훈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실습생과 한 달 동안 마음 다해 만납니다. 사회사업 근본을 공부하고 여러 경험과 사례를 살폈습니다. 때때로 여행하며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사회사업 과정을 글을 쓰고 퇴고하며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과 다시 현장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① 기관 내 동료에게 감사

- 김상진 관장님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심히 살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찾아가면 때로는 애정의 마음으로 조언을, 때로는 무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 김은희 부장님께 고맙습니다. 수료식 참석하며 응원해주시고 실습생 워크숍에서도 용돈도 주셨습니다. 실무 고민 있을 때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마음의 폭, 넓어지다」 책을 출판할 때 성과와 마음을 정리해주신 덕분에 맺음말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 손혜진 주임님께 고맙습니다. 팀 여러 일을 잘 살피지 못한 상황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실습 전체 과정에 관심을 갖고 수료식도 자주 찾으
며 응원해주셨습니다.

- 권민지 주임님께 고맙습니다.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로 세 모듬의 여
행의 때와 장소가 겹쳤습니다. 운전을 도와준 덕분에 실습생 병원동행도
잘 이루었습니다.

② 기관 밖 동료에게 감사

- 합동연수에서 복지요결 온라인 강독회 해주신 한덕연 선생님 고맙습니
다. 마인드맵 복습까지 더해 실습생과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세진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실습생과 책방에 방문했을 때 대학생으
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기사회사업이 어떤 의
미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 모음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여름 단기사회사업 활동 영상을 모두 모았습니다. QR코드를 확인하면 아래 9가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 영상 모음 QR코드

※ 영상 목록

- ① 면접위원 소개, 실습지원자에게 전하는 마음
- ② 당사자 면접 합격자 발표
- ③ 프로그램 워크숍
- ④ 개화산 일몰 산책
- ⑤ 장봉도 여행
- ⑥ 석모도와 고려산 여행 실습생 자유 여행
- ⑦ 개화산 둘레길 걷기 실습생 자유 여행
- ⑧ 계양산 야간 산행 실습생 자유 여행
- ⑨ 무의도 여행 실습생 자유 여행

맺음말 | 권대의

단기사회사업과 동 중심 실천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단기사회사업을 이루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경험은 복지관이 2018년부터 동 중심 조직개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7년 여름, 단기사회사업 방식으로 실천한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존 복지관 전체사업을 경험하는 방식의 실습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실습이었습니다. 세 명의 부서 관리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한 사업씩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까지 한 사업을 복지요결 방식으로 온전히 실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슴 뛰는 열정과 설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다.

복지관의 많은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마을로 나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며 뜻있게 사회사업을 실천하기를 꿈꿨습니다. 마을이 사람 냄새가 나고 생동하기를 바랐습니다. 「정겨운 사람살이」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18 연간사업보고서

2017년 여름, 복지관 첫 단기사회사업을 세 명의 팀장님과 실습생이 이루었습니다. 복지요결 방식의 힘과 의미를 알았습니다. 2018년부터 동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방식으로 복지관 전체사업을 이루어가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직원마다 각자 뜻있게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2020 여름 단기사회사업 통합 사례집

3년 동안 단기사회사업 실습 지도자로 일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학생들의 실천과 기록까지 도왔습니다. 그때마다 학생들의 개별 사례집을 출판했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 출판도서 게시판에 PDF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날던 날」 | 중년 나들이 기록, 김미경 박혜원 박성빈, 2017
2. 「내 마음속에 찾아온 봄」 | 어린이 겨울 여행, 김혜선 서주찬 권대의 한수현, 2018
3. 「너라서 소중한해」 | 동네 어른들에게 생활기술을 배운 사회사업, 진성은 강민정 임채령 김미경 2018
4. 「다 같이 놀자」 | 어린이 골목놀이터, 신광재 손혜진, 2018
5. 「우리 땅의 풍경 잘 누비고 왔습니다」 청소년 춘천 자전거 여행, 전재성 권대의, 2018
6. 「우리가 만든 여행」 어린이 여름 여행, 정유진 권대의, 2018
7.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린이 여름 여행, 김성미 권대의, 2018
8. 「진홍빛 어르신 나들이」 어르신과 인천 월미도로 다녀온 나들이 사회사업, 이예쁨 원종배 2019
9. 「다섯별의 동행」 다섯 청소년과 다녀온 설악산 대청봉 여행 사회사업, 전소영 권대의, 2019
10.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퍼지듯」 어린이 홈파티 이야기, 2019
11. 「탁구공 같은 우리 동네」 신바람 탁구잔치 사회사업, 2019
12. 「우리의 여행법」 어린이 겨울 여행, 이한결 한수현 이미진, 2019
13. 「한여름 날의 낭만잔치」 아파트 관계망 형성사업, 박세경, 2019
14. 「소풍」 아파트 관계망 형성사업, 신예주, 2019
15. 「일곱 빛깔 무지개」 어린이 여름 여행, 이예림, 2019
16. 「우리가 만든 잔치와 자전거 여행」 자전거 여행과 오목 장기 잔치, 최준혁, 2019
17. 「관계의 다리 놓는 역사여행」 아이들과 어르신 관계를 도운 사업, 이해민, 2019
18. 「뜨렷한 흔적을 남기다」 여섯 소녀와 다녀온 제주도 여행 사회사업, 강연숙 권대의, 2020
19. 「한겨울 날의 작은잔치」 아파트 관계망 형성사업, 구지윤 권대의, 2020
20. 「한여름 날의 낭만잔치 개정판」 아파트 관계망 형성사업, 박세경 권대의, 2020
21. 「마음의 폭 넓어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습, 안예영 권대의, 2020

이 가운데 세 권의 책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던 날」은 푸른 복지 출판사로 교보문고에서 판매합니다. 「한여름 날의 낭만잔치 개정판」과 「마음의 폭 넓어지다」는 구슬끼는실 출판사에서 판매합니다.

학생마다 실습 이후 한 달 이상 실습일지를 모아 퇴고했습니다. 대학생이 한 달 동안 실습하고 책을 출판한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하고 유의함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쓰며 자신의 실천을 돌아보았고, 출판된 책을 부모님 교수님 선후배 친구와 나누며 지지와 격려, 칭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뜻을 품고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책을 나누며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책을 구실로 새로운 인연을 맺고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글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책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기울여주고 칭찬해주고 계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고 책을 나누며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9 겨울, 이한결 실습생 출판 후기

실습 시간 160시간 안에 책을 출판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실습생마다 실습 이후 한 달 동안 책을 퇴고하고 출판에 집중할 수 있는지 묻고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자인 저도 학생의 퇴고와 행정을 살폈습니다. 경험이 쌓이니 적은 시간에 학생을 도울 수 있지만 이제 많은 책이 있으니 대학생 출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실천과 글쓰기에 재능과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만 신중하게 출판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새로운 방식의 출판을 궁리했습니다. 실무자인 제가 방학 때 이론 여러 사업을 모아 전체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진행한 ‘여행’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3년의 단기사회사업 실습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실무자에게 전하는 10가지 이야기

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출판을 제안받기도 하고 다른 실무자를 위한 필요도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습지도가 특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7명의 실습생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무자가 사업 과정 가운데 조금씩 쓴 글과 7명의 실습생이 이룬 9가지 사업 이야기를 모아 책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이 단기사회사업 기록의 하나의 과정이 될 겁니다. 이런 실천과 기록을 모아 다음엔 더 깊이 과정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단기사회사업 영상과 확장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부터 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선생님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3년 동안 이룬 동 중심 실천을 사업별로 영상을 촬영·공유하고 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과정은 2020년 12월 31일에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1월 초에 <양원석의 복지생각>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2020~2021 겨울 단기사회사업은 취소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진행한 단기사회사업에 애정이 깊고 신나게 활동했는데 매우 아쉬웠습니다. 대신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재도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촬영도 이때 신청했습니다. 3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 대학생에게는 단기사회사업의 유익함을 잘 알려 도전하기를 바랐고, 사회복지 기관에는 단기사회사업이 동 중심 실천의 좋은 저력임을 알길 바랐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

길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 손을 잡고 걸으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걷는 길은 더 험하고, 숨이 가빠 올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길에는 감동, 추억,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동료들과 함께 걷고 또 걸으니, 수료식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새봄 실습생 수료사 '함께 걷는 길' 가운데

이 책의 제목은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조새봄 실습생의 수료사 '함께 걷는 길'에서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번 여름 7명의 실습생과 저는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6주 동안 매일 만나 공부 실천 기록 여행했습니다. 함께 걸으니 이 시간이 힘이 났습니다. 지금도 떠올릴 수 있는 추억입니다.

선재 새봄 예영 예지 정아 희선 민주와 오래도록 사회사업 현장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실습지도자 권대익 사회사업가

함께 걷는 사람

2020 여름,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가족과 애정, 이웃과 인정이 깊어지게 거든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은이 김선재 조새봄 안예영 이예지 양정아 신희선 김민주, 권대익

발행일 2020년 12월 21일 초판 1쇄 인쇄

펴낸곳 푸른복지 펴낸이 양원석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48 117-402 출판사신고번호 제315-2006-00007호

전화 010-2270-8613 팩스 02-6230-9244

블로그 blog.naver.com/welfarebook 전자우편 masil@welfare.pe.kr

ISBN 979-11-6335-042-2

이 책은 환경을 보호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회사업하자는 뜻을 담아 재생지를 사용하여 녹색출판에 동참합니다.